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잠수굿 연구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韓國學協同課程

姜 昭 全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잠수굿 연구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許 南 春

濟州大學校 大學院

韓國學協同課程

姜 昭 全

2005年 6月

제주도 잠수굿 연구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許 南 春

姜 昭 全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月 日

姜昭全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5年 6月 日

Women-Divers' Shamanism Performance
(*Jamsugoot*) in Jeju Island:

- A Case Study of the East Gymneoung Village -

So-Jeon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Studies

2005.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6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7
1) 연구대상	7
2) 연구방법	8
II. 김녕리의 마을현황과 전통신앙의례 배경	12
1. 마을의 역사와 현황	12
2. 전통신앙의례 배경	14
1) 포제(酬祭)	15
2) 무속의례	17
III.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기본 요소와 제차(祭次)	24
1.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기본 요소	24
1) 제일(祭日)	24
2) 장소	25
3) 심방	28
4) 단골 : 어촌계와 잠수회	29
5) 제물마련	37
6) 금기사항	39
2.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기본 제차(祭次)	40
1) 제차의 구성	40
2) 제차의 의미와 진행	41
IV.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역할과 전승상황	48
1. 잠수굿의 역할	48
1) 해상무사고 기원	49

2) 해산물의 풍요	54
3) 공동체의 유대강화	59
2. 잠수굿 전승의 기반	66
1) 잠수의 존재	67
2) 잠수회의 어업생산력 유지	68
3) 제일(祭日)의 고정	68
4) 매인심방의 존재	69
5) 기타	72
3. 잠수굿의 전승과정과 변화양상	73
1) 1990년대 이전	74
2) 1990년대 이후	78
V. 제주도 잠수굿의 형태와 의의	83
1. 제주도 잠수굿의 형태	83
1) 제주도 잠수굿의 기원	83
2) 잠수굿과 영등굿의 상관관계	84
3) 제주도 잠수굿의 형태	91
2. 제주도 잠수굿의 의의	95
1) 생업활동과 신앙의례의 유기적 연관성	95
2) 제주도 공동체문화 전승의 중심역할	96
3) 마을굿으로 기능 확대	98
VI. 결론	100
1. 연구결과의 분석과 정리	100
2. 과제와 전망	103
참고문헌	105

<표 차례>

<표 II-1> 김녕리 소재 신당(神堂)의 개요	21
<표 III-1> 제주시수협 관내 어촌계원수 상위 9개소	30
<표 III-2> 2004년 제주시수협 관내 어촌계별 판매실적	32
<표 III-3> 김녕어촌계 잠수회 조직표	35

[그림 차례]

[그림 III-1] 2003년 잠수굿 당시 제물진설	38
[그림 IV-1] 동김녕마을의 바다밭	58
[그림 IV-2] 김녕리 메인심방의 계보와 변화 양상	72

<사진 차례>

<사진 III-1> 2003년 잠수굿 당시 제물진설 모습	39
<사진 IV-1> 열명	50
<사진 IV-2> 지드림	53
<사진 IV-3> 요왕맞이	55
<사진 IV-4> 씨점	58
<사진 IV-5> 제물의 공동준비	59
<사진 IV-6> 분부사뒀	62
<사진 IV-7> 서우젓소리	65

Abstract

Women-Divers' Shamanism Performance (*Jamsugoot*) in Jeju Island: A Case Study of the East Gymneoung Village

Quite a few cultures with regards to women-divers — called *Jamsu* in Jeju dialect — have passed down to the present. Of the cultures, women-divers' shamanism performance (*Jamsugoot* in Korean) is said a religious belief for women-divers themselves. The effort to perform *Jamsugoot* and to preserve it can be said a religious act that has a great attachment.

The aim of this thesis was to understand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meanings of the women-divers' shamanism performance (*Jamsugoot*). In addition, it was aimed at identifying the internal dynamics of *Jamsugoot* that presumably changes as time goes by. To achieve the aim, this thesis looked at the *Jamsugoot* exercised at the East Gymneoung village, which locates at Gujwa in North County of Jeju Island. The village was selected for the study because the original forms of *Jamsugoot*, women-divers' organization, and a chief shaman have been maintained. Four meanings of the East Gymneoung village *Jamsugoot* were identified.

Firstly, the basic characteristic of the *Jamsugoot* is both an individual and community rite. Secondly, the fact that the selection of the date for the performance of the *Jamsugoot* considers a good time for diving indicates the *Jamsugoot* relates to their jobs. Thirdly, the *Jamsugoot* represents wishes for no accident in sea, for catching a plenty of fishery products, and for solidarity of community. Fourthly, four aspects are involved for the *Jamsugoot* to succeed: (1) the existence of women-divers; (2) the maintenance of the amount of fishery products caught by women-divers' organization; (3) fix of the date for the *Jamsugoot*; and (4) the existence of a chief shaman.

Certain patterns were observed for the change of the Jamsugoot since the 1990s. The exercise of the Jamsugoot was ban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the modernization period. However, the Jamsugoot has revived since the 1990s thanks to the social mood that starts to pay attention to the traditional component of Jeju cultures. This new wav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the Jamsugoot. The positive impact is that traditional component of Jeju culture was shed a light and the new perception emerged to see it as a treasure rather than to overthrow.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impact involves threatening the pure form of the Jamsugoot because the performances were watched in crowd, and, by those from the mainland and outside the village. Women-divers have pondered upon how to preserve its form in as pure as possible.

This case study focusing upon Gymneoung Jamsugoot indicate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Jamsugoot in general in terms of meanings, forms, and importance. No clue about the origin of Jeju Jamsugoot, it is presumed to have a long history when considering women divers' history. Jeju Jamsugoot represents three meanings: (1) inter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activity and religious rites; (2) playing a key role to succeed Jeju community culture; and (3) extending the function of community rite.

Key words: women-divers' shamanism performance (Jamsugoot), historical meaning of Jamsugoot, socio-cultural meaning of Jamsugoot, the change of Jamsugoot.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문제제기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로부터 바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다. 이는 화산섬이라는 척박하고도 거친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덧붙여진 것이기도 하다.¹⁾

제주와 제주민은 먼 선사시대부터 탐라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바다를 이용해 주변 지역과 교류를 하고, 또한 표류·표착의 과정을 통해 서로 문화를 주고받기도 했다.²⁾ 바다는 제주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였으며, 반면에 바다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를 현재까지 유지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바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풍속이나 생업기술 등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인 것은 잠수³⁾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⁴⁾ 물질의 척박한

-
- 1) 충암(冲庵) 김정(金淨, 1486~1521)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산길이 험악하고 자갈이 많아서 평토가 절반도 되지 않아(崎嶇磽确 平土無半)’라고 적고 있다. 또 조선 숙종 28년(1702)에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이형상(李衡祥)은 「남환박물관(南宦博物)」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을 ‘산험해악(山險海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 2)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펴낸 「항해와 표류의 역사」(2003)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항해와 표류에 관해서 적잖은 역사기록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고대의 문물교류에서부터 1653년 하멜의 표류, 그리고 수많은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외지인과 외지문화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한다.
 - 3) 제주바다에서 아무런 도구 없이 나잠어업을 행하던 이들은 그간 ‘잠녀(잠녀, 잠네), 잠수(잠수), 해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다. 해녀나 잠수 등의 호칭에 관한 논의는 강대원(「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김영돈(「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등의 글에 자세히 논의된 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기왕에 쓰인 해녀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반면에 해녀가 일제시대에 식민지정책과 관련된 호칭이니 원래의 명칭인 잠녀나 잠수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볼 수 있

환경을 일구고 더불어 바다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 잠수들과 그들에 의한 물질은 제주와 제주민에게 있어서 바다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욱 실감하게 한다.⁵⁾

잠수는 제주도의 여성들 중에서도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예로부터 독특한 면모를 보여 왔다. 여성이 아무런 특수장비도 갖추지 않고 나잠어업(裸潛漁業)의 형태로 물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인 데다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제주도의 어업소득 면에서도 잠수들의 기여는 실로 컸었다. 또한 물질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어서, 잠수들의 물질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고 전승시켜온 수많은 유형·무형의 문화유산들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잠수들의 문화 가운데 잠수굿은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잠수굿은 잠수들의 무사고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의례이다. 그리고 잠수굿을 통해 잠수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나타난다. 잠수굿이 중요한 이유는 해상무사고·해산물의 풍요·공동체의 연대강화를 통해 잠수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세계관이 분명하게

다. 본고에서는 일단 해녀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제주에서 원래적으로 쓰였던 잠녀와 잠수 중에서 잠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잠수들 중 노년층은 해녀라는 말보다 잠녀와 잠수라는 표현을 본래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동김녕의 잠수들도 스스로를 보통 잠녀·잠수로, 자신들의 굿을 흔히 잠녀굿·잠수굿으로 부르기에 본고에서도 그들의 고유한 풍속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다. 다만 본고에서 잠녀와 잠수 중에 굳이 잠수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본래적인 용어를 존중하는 의미와 동시에 어촌계 내의 조직인 잠수회라는 용어와도 서로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기 위해 잠수라는 표현으로 단일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용어 설정에 대해서 유철인은 잠수나 잠녀는 행위자(내부자)의 용어이며, 해녀는 관찰자(외부자)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유철인, “제주해녀의 몸과 기술에 대한 문화적 접근”, 「민속학 국제학술회의(3회) 요지집」, 민속학회, 1999, p.33.). 한편 최근에 김순자는 잠녀가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제주학 정립을 위한 기본 용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4, pp.36~39.).

- 4) 언제부터 잠수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 ‘잠녀(潛女)’라는 표현이 있는 등 조선시대의 여러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잠수의 존재와 물질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5) 고광민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따는 적극적 어법과, 배를 타거나 어느 정도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물안경을 쓰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일정한 도구로 물 밖에서 채취하는 소극적 어법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적극적 어법의 예로서 잠수(潛水)를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바다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해조류나 어패류들을 따내는 적극적 어법은 제주도에서만 여성들에 의하여 직업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p.233.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제주민의 신앙체계의 중심은 무속의례인 굿이었다.⁶⁾ 이는 제주민 전체가 공유한 것으로, 굿은 마을마다 마련된 신앙성소인 당(堂)과 더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점은 잠수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평생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물질 작업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정신적인 의지처로서의 잠수굿은 반복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잠수와 잠수들이 만들어낸 문화, 물질기술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⁷⁾ 민속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끊임없이 적층된 연구작업을 통해서 현재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⁸⁾까지 나타나게 될 정도이다. 제주문화의 많은 부분이 나름의 독특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잠수와 관련한 문화야말로 더없이 훌륭한 문화유산이기에 잠수에 대한 연구는 곧 제주문화의 정수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 제주에도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유교의례를 시행하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시도되었으나 결국 매년 그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했다. 기존의 무속의례는 겉으로는 수그러드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끈질기게 살아남아 주민들의 신앙세계를 지배했다. 이형상 목사의 철저한 유교의례 확립노력과 신당파괴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간 뒤에 무속의례는 곧바로 복구되었으며, 다른 목사들은 아예 이러한 현실을 묵인하거나 타협하는 형식으로 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의례”(『탐라문화』 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와,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탐라문화』 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을 참고.

7) 잠수에 대한 연구조사 영역은 매우 넓은 편이다. 김영돈은 잠수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의 연구성과인 「한국의 해녀」(민속원, 1999)를 살펴보면 잠수와 관련한 연구영역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즉 해녀기술, 해녀복과 도구, 해녀와 관련한 민속(입어관행과 夢兆, 민간신앙, 설화, 해녀노래, 속담, 직업어), 해녀바다, 바깥물질, 공동체의식, 권익과 수탈, 지역적 고찰, 항일투쟁 등이다. 이러한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그간 잠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8) 일례로 이른바 ‘잠녀학’의 정립을 위한 학문적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제주문화의 독특한 요소로서의 잠수문화와 해양문명사적 가치 등이 결합해 보다 그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시키려고 하는 희망을 보이고 있기까지 하므로, 앞으로의 잠수(해녀)연구는 폭이 더욱 넓어지고 여러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세계섭학회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주최해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구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 초기의 꼼꼼하고 치밀한 현장조사와 기록을 통한 민속지적 연구는 지금까지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자연적·시대적 환경에 수반하여 변화해 가는 잠수들의 삶과 문화를 포착해내는 작업은 그동안 다소 소홀해 왔다고 여겨진다. 자료적 성격을 띠는 민속지적 인 내용을 담은 글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겠으나, 이제까지 1차적인 현상을 기술하는데 그친 감이 있어 잠수들의 삶과 사회, 문화 전반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문화의 층위와 변화해가는 역동성을 세밀하게 보여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원래 민속지(민족지, ethnography)는 단순한 자료의 수집이나 기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⁹⁾ 하지만 잠수와 잠수곳에 한정해서 살펴봤을 때, 그간 우리의 현실에서 초기의 민속학적 연구성과는 현장조사와 정리에 충실했는지 모르나 그 내면의 움직임을 포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혹여 그간 연구자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연구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으로만 민속지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또한 설사 잘 정리된 민속지적 자료를 모았다 하더라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와 그 문화현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역할, 갈등, 조정, 시대적 흐름, 외부와의 대응 등등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된 글은 아직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잠수들의 신앙인 잠수곳은 잠수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잠수와 잠수곳의 변화하는 상호관계를 짚어보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인접한 학문에서 시도된 구체적인 여러 성과들도 있다. 참여관찰을 통해서 조사 연구한 인류학 분야의 글들도 많이 발표되었고, 이밖에 법학, 사회학, 의학 등등의 분야에서도 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성과가 있었다.¹⁰⁾ 각각의 논문들은 자신들의 방

9) 조경만은 민족지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민족지는 단순한 자료의 집성이 아니다. 또 민족지 기술을 위한 현지작업(fieldwork)은 인류학자가 현장에서 그저 무언가를 모으는 것이 아니다.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식론적 과정을 걷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정립된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여 사물을 이해하는 이론과 방법론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현지작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는 인류학자와 현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식론, 이론, 방법론이 관철되어 있는, 즉 이해된 사물의 자료들이다. 민족지 기술은 사물의 이해과정 자체와 이해된 사물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조경만, “「島嶼文化」민속분야 연구의 반성”, 「島嶼文化」 제7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0, p.262.

법론으로 잠수들을 그 주제에 맞게 분석해내고 있다. 특정주제를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해 잠수들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민속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에서 유용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만큼 잠수들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을 증명해주었다. 그런데 앞서 밝힌 것처럼 잠수와 잠수굿을 대상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인접학문의 연구에서도 그동안 별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느껴진다. 잠수와 잠수굿이 가지는 관계, 잠수굿과 마을공동체와의 관계, 잠수굿의 변화과정과 유지존속의 문제 등을 중점에 두고 전체적으로 조명한 글은 생각 외로 드문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는 잠수와 잠수굿에 대해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간 잠수와 잠수굿이 따로 연구되었고, 함께 연구한다 해도 서로의 상관관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을 극복해 나가하고자 한다. 잠수와 잠수굿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얽히고 변화해 나가는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잠수굿을 중심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동김녕마을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진 잠수굿과 마을의 잠수회를 대상으로 해서 고찰함으로써 본고의 문제제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 인접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두희·김영돈, “해녀에 대한 잠수지역의 문제에 대한 조사”, 「논문집」 제14편, 제주대학교, 1982.

조혜정, “제주도 해녀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3.

박양생, “한국해녀의 생리학적 특성 : 잠수양상 및 에너지대사에 관하여”, 「제주도연구」 2집, 제주도연구회, 1985.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1998.

유철인,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제31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1998.

2) 연구목적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이 충족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제주도 잠수굿의 일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고, 그동안 전승·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잠수굿이 가지는 의의를 짚어본다.

둘째, 물질과 잠수굿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힌다. 위협한 작업에 따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위안으로서의 면모와, 굿의 제일(祭日)이나 제차(祭次) 등에서 생업활동과 신앙민속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셋째, 잠수굿으로 대표되는 잠수공동체의 집단유대강화 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잠수들은 잠수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마을 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의례를 가지고 있다. 그 여러 의례 중에서도 물질과 관련된 잠수굿이 잠수들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평상시의 다른 개인의례와 개인의례이자 공동체의 의례이기도 한 잠수굿은 무엇이 같고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넷째, 잠수굿의 제차(祭次) 등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잠수집단과 교감·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고는 굿의 제차가 가지는 의미와 형태 등에 관한 1차적인 서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본고는 잠수굿의 여러 제차 중에서도 특히 잠수들과 직접적으로 교감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제차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시대적 흐름과 관련해 잠수와 잠수굿의 유지·존속의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본다. 굿에 대해 억제정책이 펼쳐졌던 과거의 부정적 인식에 대응해 잠수굿을 보존하고자 했던 당시의 마을 움직임과, 반면에 오히려 현재에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조명 받는 가운데 전통신앙민속을 방해받지 않고 치르려는 잠수들의 움직임 등 시대의 변화와 잠수굿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본다.

여섯째, 현재 잠수들을 위한 무속의례에는 소위 영등굿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등굿은 잠수굿과 어떻게 상호관련성을 보이고 있는지 시론(試論)적이거나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잠수굿의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고는 제주도 잠수곳의 일반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주도 모든 지역의 잠수곳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지역적 범위를 좁혀 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잠수들을 위한 곳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한 지역을 택한다 해도 전체적인 잠수곳 연구에는 큰 지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¹¹⁾

따라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의 동김녕마을이다. 동김녕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마을은 예로부터 잠수들이 많고 물질활동이 활발하기로 제주도내에서도 소문난 지역이었다. 현재도 동김녕마을에만 잠수 104명이 물질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잠수곳이 해마다 치러지고 있다. 잠수회가 중심이 되어 큰 규모로 행해지고 있으며 잠수들이 곳을 대하는 진지함은 사뭇 대단하다. 또한 동김녕마을에는 그 마을의 무속의례를 전담하는 매인심방이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직접 곳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 동김녕마을의 잠수곳이 나름대로 자신의 원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잠수라는 단골조직과 매인심방의 존재, 곳의 연례적인 반복과 지속성을 보장해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제주도 내의 여러 마을에서 잠수들을 위한 곳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마을에 따라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인심방이 없어서 다른 마을에서 심방을 빌려온다든지 하는 어느 정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주는 면도 있다. 또 하나 제주시 칠머리당 영등굿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잠수들을 위한 곳이고 그 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 영등굿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제71

11) 일단 잠수들을 위한 곳은 잠수곳이든 영등굿이든 그 진행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 지역의 사례를 통한 잠수곳 연구가 제주 전체 잠수곳의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이 다른 곳보다 잠수곳의 본래적인 요소가 강한 지역이라면 표본지역 설정에 관한 더욱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호)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잠수굿의 면모에 덧붙여 국가정책적인 면이 포함되므로 본고에서는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요컨대 단골과 심방과 굿이라는 전래적인 삼각축이 온전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동김녕마을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점이 제주도의 잠수굿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동김녕의 잠수굿을 주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민속학 연구에서는 하나의 민속현상 또는 행위를 조사하고 이해해서 그것이 마을주민이나 한 민속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다양한 방법론과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적용시켜 왔다. 「한국민속연구사」¹²⁾는 이러한 민속학 분야의 여러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민속과 관련해 축적된 연구성과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의 민속현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의 정리를 하는 데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¹³⁾

최근의 중요한 민속학 연구 경향 중의 하나로 현장을 중요시하고, 현장과 민속현상과의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소통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현장론적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현장론적 방법을 택함에 있어서 현지조사 연구가 곧 현장론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론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정한 체계와 분석모형을 확립하고, 현장상황에 따른 민속자료의 연행과 전승의 역동적 원리를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현장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¹⁴⁾

임재해는 그동안의 연행중심적 방법(performance-centered approach)은 연행현장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상황론적 방법(contextual method)은 전승현장을 특별히 주목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이 두 방법론을 통합하여 현장론적 방법(field-contextual method)을 표방하였다.¹⁵⁾ 또한 그는 ‘자료와 현장’의 유기적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크게

12) 최인학·최래옥·임재해 編,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13) 최인학 外,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2002. p.31.

14) 최인학·최래옥·임재해 編, 未 책, p.29.

15) 임재해, “제6장 민속문화의 자료와 현장 : 문화현장론”, 「민속문화를 읽는 열쇠말」, 민속원, 2004, p.354.

세 갈래의 문제의식과 만난다고 언급한다.

즉, 하나는 구체적인 민속자료를 현장상황 속에서 해명하는 것으로서, 현장상황의 무엇이 왜 자료를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민속자료 자체만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를 현장상황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적 해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은 민속자료를 통해서 현장상황을 해명하는 것으로서, 민속자료가 현장상황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현장만 주목했을 때 드러나지 않던 문화적 상황이 민속자료를 주목함으로써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다. 셋은 자료와 현장의 공시적인 존재 양상으로서 상호소통구조를 주목하는 일이다. 민속자료를 살아 있는 역동적 문화행위이자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보고 민속자료의 생산과 수용양상을 포착하는 것이다.¹⁶⁾

한편 민속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는 곳은 민속문화가 존재하는 모든 곳이며, 따라서 연행되고 있는 민속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곳 역시 하나의 민속현장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여 민속학을 현장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민속조사는 가장 일차적으로는 민속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두말할 여지가 없으며, 더불어 현장조사와 대별되는 문헌조사 역시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다.¹⁷⁾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고는 일단 현장상황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소통의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장과 민속자료가 어떤 관계를 이루며 변화와 유지, 발전과 도태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속현상이 행해지고 있는 현장 자체와 그 민속현상을 품고 있는 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기존의 역사적인 문헌자료와 더불어 현재에 조사된 민속지나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참고했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동김녕마을의 잠수굿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한다. 잠수굿 자체는 4년 동안 매번 관찰했으며, 특히 본고에서는 주로 2003년과 2004년에 행해진 잠수굿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는 2003년의 잠수굿이 기존의 굿당에서 벌어진 마지막 굿이었기 때문에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원형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의 잠수굿을 통해

16) 임재해, 앞 글, pp.359~360.

17) 리처드 M. 도슨 編·나경수 譯, 「민속조사방법론」,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p.14.

서 곳당의 이전(移轉)과 관련된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잠수굿 자체의 제차(祭次) 형식이나 심방의 굿 진행, 본풀이 등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잠수굿이 잠수회라는 조직과 동김녕이라는 마을공동체의 사회와도 어떤 관련을 맺는 지를 알아보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따라서 잠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수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잠수회의 잠수굿에 대한 인식이나 마을에서 잠수회가 가지는 위상 등도 살펴보았다. 이는 어촌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에 더불어 어촌계의 업무과약과 전·현직 어촌계장과도 인터뷰를 통해 동김녕마을의 어업·잠수활동, 잠수굿의 진행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자료도 참고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잠수굿의 분석을 위해서 잠수들의 제물마련이나 금기를 준수하는 모습, 굿에 참가한 마을사람들과의 관계설정 등도 지켜보았다. 또한 마을 내에서 비교적 노년층이며 굿을 준비하는 데에 정통한 잠수들과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잠수들과도 각각 인터뷰를 통해 심층 조사했다.¹⁸⁾ 이는 물질작업의 세대간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를 지나며 잠수굿이 어떻게 변화해 나갔고, 이를 어떻게 유지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 노력

18) 잠수굿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해 온 결과, 잠수들은 모두 거의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었다. 잠수들마다 굿에 대해 특별히 개인만의 유다른 견해를 표명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여러 인터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중선 씨(75세)와 이형자 씨(49세)를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들을 중심인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중선 씨의 경우는 나이든 원로잠수로서 잠수굿의 실제적인 준비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맡아오던 분이어서 일제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잠수굿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중선 씨의 제보는 그와 동시대를 살아온 나이든 잠수들의 견해와 일치하므로 이들을 대변하는 의미도 있었다. 한중선 씨와의 주인터뷰는 2004년 12월 15일 한중선 씨 댁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이형자 씨는 젊은 세대의 잠수라고 할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잠수굿에 참여하는 과정과 젊은 세대의 잠수굿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형자 씨와의 인터뷰는 2005년 2월 25일 이형자씨 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같은 잠수인 안○숙(48세), 한○옥(46세) 정○선(51세) 씨도 함께 했다.

이들 제보자 외에도 잠수회장을 비롯한 김녕리의 여러 잠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잠수들의 제보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한중선·이형자 두 사람의 제보를 중심으로 해서 세대를 지나며 이어지는 잠수굿의 변화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해 왔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전승의 방법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수굿을 맡아서 하고 있는 김녕의 매인심방인 문순실 심방과 인터뷰¹⁹⁾를 여러 차례 진행해서 실제 심방이 굿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고, 또 잠수회와 어떻게 관계를 엮어 나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잠수굿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마을의 포제(酺祭)나 다른 행사도 함께 보조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포제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잠수굿 이외에 본향당제(本鄕堂祭)나 돛제[豚祭], 조왕제(寵王祭) 등 다른 무속의례도 같이 살펴봄으로써 마을의 다른 전통신앙의례와 잠수굿이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컨대 동김녕마을의 잠수굿을 둘러싼 잠수회와 어촌계와의 관계, 단골인 잠수회와 심방과의 관계, 잠수굿과 마을주민들과의 관계, 잠수굿과 다른 신앙의례와의 관계 등 마을이나 잠수공동체와 잠수굿 간의 상호관련성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는 제주도의 잠수굿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동김녕마을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마을의 사례도 보조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잠수굿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같으면서도 제일의 택일이나 세부제차에 있어서 조금씩 마을마다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와 남제주군 성산읍 신앙리의 잠수굿을 보조적으로 검토한다.

19) 문순실 심방과는 김녕리 내에서나 다른 곳의 무속의례 현장에서도 수시로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주인터뷰는 2004년 9월 1일(1차), 2004년 12월 21일(2차)에 문순실 심방 댁에서 이루어졌다.

II. 김녕리의 마을현황과 전통신앙의례 배경

1. 마을의 역사와 현황

북제주군 구좌읍에는 행정구역상으로 동북리, 김녕리, 덕천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평대리, 송당리,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등 모두 12개의 리(里)가 있다. 이 중에서 구좌읍사무소의 소재지는 세화리에 위치해 있으나, 마을 역사나 규모로 보았을 때 김녕리도 구좌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녕이 오래전부터 이 일대에서 중심적인 마을이었다는 사실은 역사기록에도 나타난다. 즉 고려 충렬왕 26년(1300) 제주에 동·서도현(東西道縣)이 설치될 당시 14개의 현촌(縣村)의 이름이 보이는데 김녕(金寧)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예나 지금이나 구좌읍 일대의 정치·사회·문화·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계속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녕은 일제시대에 들어와 동·서김녕으로 나뉘면서²¹⁾ 두 개의 마을이 되었

20)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pp.16~17. 한편 「三郡戶口家間摺冊」(1904년)에 보면 구좌면에서 김녕의 인구수가 1,39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김녕이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김동진, “『三郡戶口家間摺冊』의 內容과 자료적 가치”, 『濟州島史研究』 제7집, 제주도사연구회, 1998, p.137).

21) 동·서김녕으로 분할된 시기에 관해 각종 자료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제주도가 1995년에 묶어낸 「朝鮮總督府官報中 濟州錄」의 1916년 9월 20일자 기록에 서김녕리라는 표현이 있다(p.72). 그리고 越智唯七이 대정(大正) 6년, 즉 1917년에 編纂한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는 동김녕리와 서김녕리가 나란히 표기되어 있다. 또한 朝鮮總督府에서 1929년(昭和 4年)에 발간한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道」를 보면 동·서김녕이라고 나누어져 있다(p.109). 그런데 각종 마을관련 자료에 이와는 다른 내용도 실려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강대원은 1941년에 현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분할됐다고 적고 있다(「구좌면지」, 韓一文化社, 1979, p.73). 또 박수양은 1905년에 행정상의 편의도모를 위해 분리했다고 쓰고 있다(「김녕리 향토지」, 명성종합인쇄, 1986, p.132). 더욱이 북제주군 구좌읍에서 지난 2000년에 펴낸 「구좌읍지」에는 마을연혁을 다루면서, 1874년(고종 11) 목사 이밀희(李密熙)에 의해 左面이 新左面, 舊左面으로 분리되면서 동·서김녕으로 분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p.512). 한편 오창명은 김녕리가 일제강점기 초반까지도 김녕리라 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옛 김녕리 동쪽 부분을 東金寧里, 서쪽 부분을 西金寧里라고

다. 즉 동김녕리와 서김녕리로 분할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마을통합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의에 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 2000년 1월 1일에 드디어 대촌(大村)마을 김녕리로 다시 하나가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기존의 동·서김녕리에서 현재 ‘김녕리’라는 1개의 리만 존재한다. 다만 마을 내부적으로 동김녕마을과 서김녕마을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김녕마을의 역사와 마을현황을 살피기 위해 김녕리의 전체 상황을 보고자 한다.

김녕리는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22km, 구좌읍사무소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총면적은 19,925㎡로 면적은 넓은 편이지만 경작지는 4,144㎡에 불과하여 협소한 편이다.²²⁾ 최근에는 관광지로도 많이 개발되어 이미 잘 알려진 세계 최대의 용암동굴인 만장굴과 김녕해수욕장, 그리고 미로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김녕굴 및 만장굴은 국가지정유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되어 있다.

2003년 현재 김녕리는 1,146가구에 인구는 3,295명이다. 인구점유 순위를 비율로 따져 본다면 구좌읍에서는 12개 마을 중에서 19%를 차지하여 1위이고, 북제주군 전체에서도 95개 마을 중에 3%의 비율로 6위를 차지한다.²³⁾ 마을 사람들이 ‘천하대촌 김녕마을’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예로부터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녕리는 동성동, 신산동, 청수동, 봉지동, 용두동, 대충동, 한수동, 남흥동의 모두 8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의 네 마을은 기존의 동김녕 지역이고, 뒤의 네 마을이 서김녕 지역이다.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p.212.). 따라서 여러 자료를 살펴볼 때 일제시대 이전과 이후, 또한 일제시대에도 정확히 언제 나누어졌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이에 대해 마을일에 정통한 원로(노인회장 임기추, 79세)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이후가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증언은 1916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록에도 서김녕리라는 표현이 있는 것과 상호 연관을 보이는 내용이다. 결국 여러 자료를 종합해볼 때 김녕리의 분할시기는 일제시대의 1910년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행해지던 토지조사사업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서김녕리로 나뉜 시기는 대략 1910년대 중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2) 구좌읍, 「구좌읍지」, 2000, p.509.

23) 김녕리사무소 현황자료 참고(2003년 현재).

현재 1차 산업으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들 수 있는데 농업에서 주된 작물은 마늘과 양파다. 총 경지면적 604ha(전, 과수원 등)에 680가구의 1,08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어 16가구에서 108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목장은 2개소가 있다. 한편 수산업은 어가호수 676가구에 어민수는 734명이며, 제주시 수협에 조합원으로 있는 주민은 694명인데, 그중 어촌계원수는 630명이다. 어촌계원 중에 잠수인 주민은 모두 162명이다. 어선수는 38척으로 국가어항 1개와 정주어항 1개로 어항수는 모두 2개소이다. 육상양식장도 6개소가 있다.²⁴⁾

한편 2004년 현재 김녕리사무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각종 기관이나 단체, 자생단체 등이 있다. 학교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가 있고, 이동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우체국, 보건소, 파출소, 해경파출소, 소방파출소, 농협, 마을금고 등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자생단체로는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적십자봉사회, 새생활개선회 등이 있다.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이장과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감사, 사무장 외에 8개의 각 동의 동장이 있고, 이와 별도로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 개발위원회 조직에는 당연직으로 어촌계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축산계장 등 4명이 포함된다.

그런데 김녕리 역시 어업이 중요시되는 마을이다 보니 어촌계도 당연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녕리에서 어촌계의 존재는 매우 비중이 있는 편인데, 마을 일은 이장이 맡고 어업관련 일은 어촌계장이 양분되어 맡고 있는 모습이다. 김녕리가 사실상 반농반어(半農半漁)의 마을임을 생각할 때 어촌계의 조직과 잠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들은 잠수굿의 단골 역할을 하고 있다.

2. 전통신앙의례 배경

김녕리에는 현재 신앙생활과 관련해 다양한 종교시설이 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존의 전통신앙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24) 김녕리사무소 현황자료 참고(2003년 현재). 단 수산업 부문은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현황자료(2004년 12월 31일 현재) 참고.

예전부터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의 요소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녕리 전체가 중심으로 믿고 있거나 행해지고 있는 전통신앙의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김녕리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례는 대표적으로 유교식 의례인 포제와 무속의례를 들 수 있다. 이들 의례들은 공동체를 위한 집단의례와 개인별로 치르는 개인의례로 나눌 수 있기도 하다.

1) 포제(醮祭)²⁶⁾

김녕리의 마을 전체를 위한 의례인 포제는 유교식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정식 명칭은 포제(醮祭)로 신명은 포신지령(醮神之靈)이다. 음력 정월 입춘이 지나고 첫 정해일(丁亥日)에 거행한다. 이는 ‘혹정혹해(或丁或亥)’에 따른 것으로, 만약 정해일로 택일할 수 없다면 정일이나 해일이 들어가는 날 중에 좋은 날을 선택한다.

현재 제관은 모두 9명이 맡는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전사관, 집례, 대축, 집사, 예차, 알자 등으로 모두 남자들이 맡는다. 이밖에 도감 등 5~6명 정도가 더 참가하여 포제를 준비하는 데 종사하며, 이 중에는 제물을 준비하고 손님접대를 맡는 여성도 포함된다. 제관선정은 그 해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 사람과 부정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포제청에 입제하여 3일 동안 합숙하여 정성을 드리며, 금줄은 포제단과 포제청 주위에 친다. 동·서김녕 통합 전에는 동·서 따로 했지만 지난 2000년 통합 이후에는 양 마을의 포제를 하나로 합쳐서 예전 서김녕 포제단이 있는 속

25)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실시한 김녕리 학술조사보고에 의하면, 주민의 종교생활은 민간신앙이 강한 편이며 더불어 불교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민 80% 이상이 당에 다니고 불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1989년의 자료여서 현재와 약 15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김녕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김녕리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9, p.227. 참고.

26) 포제 부분은 김녕리의 노인회장으로써 오랫동안 마을의 포제에 제관으로 직접 참여하고, 또 후손들에게 행제방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기추 씨(79세)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인터뷰 일시 : 2004. 12. 21.). 또한 2005년의 포제를 관찰한 내용도 들어있다. 다만 포제에는 특별히 선정된 제관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마을의 다른 남자들도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본 조사자가 여성이므로 참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기추 노인회장님의 배려로 포제 직전에 실제와 같은 연습장면을 볼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간접적이거나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는 있었다.

칭 ‘오로콧’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

제물은 사과 8, 배 8, 감 8, 귤 8, 대축 5홉, 밤 5홉, 한라봉 8, 노랑조 2홉, 검은조 2홉, 나룻쌀 2홉, 산뎃쌀 2홉, 향 3봉지, 양초 2, 우럭 14, 포육 14, 건어(명태) 1, 청주, 감주(식혜), 청하수(물) 1병, 향물 2통이다.

제비(祭費)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임기추 노인회장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마을 주민들의 부조금이나 회사금이 끊이지 않아 제비마련에 별 부담이 없다고 한다. 잠수회에서 포제기간 중에 주민들이 먹을 반찬으로 상당량의 해산물을 회사하고 있다. 이를 잠수들은 ‘포제물에 든다’라고 하며, 포제를 위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이다. 마을 주민들 다같이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마찬가지로 잠수회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의 해산물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포제는 리가 주관하지만 각 동에서 돌아가면서 리를 도와서 진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2005년도 포제에는 용두동이 리를 도와서 했는데, 이후에는 매해마다 대충동→한수동→남흘동→동성동→신산동→청수동→봉지동의 순서로 진행된다. 순번제의 형태를 띠면서 마을 전체가 포제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포제는 음력 정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매해 가장 처음 행해지는 마을의 중요 의례이다. 이는 잠수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 모두 포제를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²⁷⁾ 그리고 포제가 가장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각각의 개별적인 의례들은 모두 포제 이후에 치를 만큼 신앙의례 순서상으로도 가장 큰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2004년에는 포제 일시(음력 1. 24)가 분향당의 정월 신과세제일(음력 1. 13~14) 이후로 택일이 되는 바람에 분향당의 정월 신과세제를 치르지 못한 적도 있었다. 여기에는 아마도 정월 초라는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더불어 포제가 마을의 모든 주민들과 일에 대해서 공동체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번창을 기원²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7) 본 연구를 위해 만났던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한결같이 포제가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가장 처음에 온 마을이 정성을 드려서 하는 행사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8) 포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 … 일시 … 北濟州郡 舊左邑 金寧里 代表 初獻官 ○○○ 敢昭告于 酬神之靈 伏以 於赫明神 司我里城 大哉其位 盛矣其德 自古有年 實賴爾極 煽動和氣 穰穰疾厄 五

또한 19세기부터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포제 나뭇의 역사²⁹⁾와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측면도 있다.³⁰⁾ 게다가 무속식으로 크게 이루어졌던 마을의 본향당제가 현재 축소되고 비념형태로 개별 의례화한 점도 더욱 포제를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의 의례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 무속의례

김녕리에서 무속의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당제(堂祭, 당굿)와 일반 개인집의 무속의례, 잠수굿이다.

당제[당굿]는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각 마을마다 행해지던 것이다. 현재는 마을 사정에 따라 그 규모가 각각 다르게 치러지지만 기본적으로 지연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개인적인 축원을 드리는 의례이기도 하다.³¹⁾ 김녕에서 당제는 본향당제, 일렛당제, 여드렛당제로 구분할 수 있다.

穀豐登 六畜繁殖 惟海所山 如山其積 願言驅魚 以連以續 俾我一鄉 永受多福 謹以牲幣 醴齊梁盛 庶品式陳 明薦歲事 尙饗

29) 이대화는 주현사건의 제정·보급이 제주도 포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도 포제는 19세기 전반, 늦어도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마을공동체신앙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대화, “제주도 포제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8, p.44.

30) 포제의 주체와 성격에 대해서 현용준은 무식부락제(巫式部落祭)가 여성사회의 부락제인데 비하여, 포제를 비롯한 유식부락제(儒式部落祭)는 남성사회의 부락제로 하나의 자연부락은 남녀성의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현용준, “濟州道の 儒式部落祭”,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p.379. 「석주선 교수 회갑기념 민속학논총(동간행위원회, 1971)」의 논문이 재수록 됨). 한편 김창민은 포제가 중심부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서 중심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으며, 당신앙은 그러한 지배에 대한 토착적인 저항의 수단이었다고 정치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김창민,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집문당, 1995, p.118.). 여하튼 제주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중심적인 사고가 널리 유포되었으며, 미신으로 탄압을 받던 무식부락제가 없어졌거나 숨어서 지내는 동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식적이며 남성중심적이었던 포제는 여러 마을에서 마을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의례 중의 하나로 부각될 수 있었다.

31) 제주도의 당신앙에 대해서는 문무병의 “제주도 당신앙 연구”(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993)를 참고. 문무병은 이 논문에서 당의 형태와 당신 계통, 山神信仰, 農耕·治病神信仰, 蛇神信仰, 도깨비信仰, 海神信仰에 대해서 논하고 이어 당신앙의 유기적 상관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신앙이 본향당을 중심으로 당굿을 통하여 혈연·지연으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사회를 결속하고 강화한다고 보았다.

개인집의 무속의례로는 성주풀이, 불도맞이, 귀양풀이 등 비정기적으로 사안에 따라 행해지는 굿과, 매해 행해지는 조왕제와 3~5년 마다 비교적 정기적으로 행하는 뜻제[豚祭]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잠수굿은 김녕의 당 중에서 성세깃당과 관련을 가지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잠수회라는 특정한 공동체에 기반을 둔 무속의례이다.

한편 김녕리에는 이들 무속의례를 담당할 매킨심방도 존재한다. 일단 무속의례 사제 자라고 할 수 있는 심방을 먼저 살펴본다면, 현재 김녕에는 김○보 심방(1933년 生), 문춘성 심방(1922년 生, 속칭 ‘여든이어멍’), 문순실 심방(1961년 生)³², 문○덕 심방(1923년 生) 등 모두 4명의 심방이 있다. 그런데 이 중 문순실 심방의 모친인 문춘성 심방과 문○덕 심방은 현재 고령과 노환으로 무업을 하지 않고 있다. 김○보 심방도 역시 70대로 고령인 편에 속하지만 현재까지 김녕의 당들을 매고 있다. 그는 원래 고향이 김녕이 아니고 삼양(현재 제주도 삼양동)이라는 점이 다른 심방들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순실 심방은 김녕에 살고 있으면서 김녕 당들을 김○보 심방과 나누어 매고 있으며, 이 마을 잠수굿을 맡아서 하고 있다.

(1) 당제

우선 당제를 먼저 살펴보면, 김녕에는 소위 ‘삼분향’이라고 일컫는 세 개의 당이 있다. 분향당인 큰당, 일뤼당인 느므릿당, 여드렛날 가는 성세깃당이 바로 그것이다. 이 당들은 아직도 마을 전체적으로 단골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나름대로 개인과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녕의 분향당인 큰당은 제일이 1월 13~14일, 7월 13~14일, 9월 13~14일이다. 제일이 13일이어서 열사흘당이라고도 부른다. 김녕중학교 바로 동쪽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팽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신성한 느낌을 더해주는 곳이다. 여기서의 당제는 현재 간단한 개인적인 비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크게 굿 형식으로 했다고 하는데,³³ 지금은 심방이 이틀간의 제일동안 당에서 대기

32) 문순실 심방은 가족내력으로 인해 최근 성(姓)이 서(徐) 씨로 바뀌었으나, 그동안 문심방으로 불렸던 사정 등을 감안해 본고에서는 문순실 심방이라고 그대로 호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심방은 전라도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원래 모친의 고향이 김녕이고 본인 또한 4살 때부터 김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녕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있으면 단골들이 각자 편한 시간에 찾아와 간단히 축원을 드리고 가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이 당의 제일에 대한 비념은 정월과 칠월에는 김○보 심방이, 구월에는 문순실 심방이 맡아서 한다.

성세깃당은 해녀와 어부의 안전과 바다풍요를 기원하는 곳으로, 이 곳은 특히 요즘에는 사업가나 타지에 나가서 살아가는 자손들을 위한 기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면도 있다. 성세깃당은 기본적으로 어업관련자들을 위한 당이므로 동김녕마을의 잠수굿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제일은 1월, 3월, 7월, 9월로 8일·18일에 가는 당이다. 이 당도 마찬가지로 제일에 따라서 당제를 맡아서 해 주는 심방이 서로 다른데, 정월에는 김○보 심방이 담당한다. 3월에는 잠수굿과 관련됐기 때문에 특별히 당에는 가지 않고 해변에서 굿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담당자는 문순실이다. 7월의 제일도 문순실 심방이 맡는다. 9월에는 원래 마을 내 다른 심방인 문○덕 심방이 맡아 했었으나, 현재는 문○덕 심방이 고령에다가 노환이 있어서 김○보 심방이 대신 의례를 담당한다.

느므리 일뤼당은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매 7일마다 당에 간다. 주로 치병과 육아에 관련된 당으로 제일인 1월, 7월, 9월 모두 김○보 심방이 매인심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당은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육아·치병을 주로 맡는 곳이므로 아이들이 다 성장하면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안에 후손으로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다니게 된다.

이러한 삼분향은 김녕리 주민들이 매해 꼭 찾아봐야 하는 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김녕리 현지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제일에 맞춰서 찾아온다. 제주시나 심지어 제일교포들도 꽤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나이든

33) 김녕리 학술조사보고(1989)에 의하면, 대제일(1월 13~14일)은 당굿으로 행해지다가 70년대 이후 미신타파의 영향으로 앉은제(坐祭)로 하게 되면서 규모가 작아졌다고 한다(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위 책, p.311.). 한편 김○보 심방은 “김녕 큰당 당굿은 내가 매면서 큰굿 없어졌다. 제비점 하는 얼마 안 되는 돈만을 가지고는 소미 일당을 줄 수가 없었다. 지금은 도액 막는 것도 사라졌고, 각산 받고 개인 액막이 하는 것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인터뷰 일시: 2005. 2. 12. 김○보 심방택).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 정책의 영향으로 김녕 큰당의 당굿도 점점 규모가 작아져 개인적인 비념형태로 변하였고 그러다보니 동시에 개인적인 축원을 위해 가져오는 소액의 제비(祭費)만으로는 심방도 굿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세대에서만 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어받은 젊은 세대의 떠느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당제일이 되면 ‘그동안 보기 힘들던 사람들 당에서 다 만난다’고 할 정도로 참여율이 아주 높다. 특히 정월의 신과세제(新過歲祭) 같은 경우에는 더욱 참여율이 높는데, 김녕리에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믿는 주민들이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 주민들이 다 다녀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큰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회합하고 안부를 묻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밖에 김녕에는 퀘네킷당, 서문하르방당 등이 있다. 퀘네킷당³⁴⁾은 제주 신당의 원조라고 여겨지는 송당본향당의 아들신이 설립했다고 본풀이가 전해지는 당이다. 동굴입구 형태인 이 당은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돛제[豚祭]를 행하곤 했는데, 지금은 당에서 돛제를 하지 않고 개인집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의례를 행하기 위해서 당을 찾아가지는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서문하르방당은 김녕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속칭 ‘영등물’ 해변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형태의 당이다. 돌담을 둥그렇게 두른 형태이며 그 안에는 미륵으로 관념되는 석상을 모시고 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원래 이 당은 마을 전체의 당이라기보다는 파평 윤씨 집안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곳이 기자(祈子)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윤씨 집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자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간혹 다니는 당이 되었다.

김녕리 당들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Ⅱ-1〉참고)³⁵⁾

34) 퀘네킷당은 선사유적지이기도 하다. 동굴입구집자리로 연대상으로는 초기 철기시대에서 탐라후기의 흔적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pp.57~59. 참고.

35) 본고에서는 〈표 1〉을 당의 제일 순서로 작성했다. 한편 문순실 심방의 말에 의하면, 심방이 사설을 할 때에는 큰당→성세깃당→퀘네킷당→느므릿당 순으로 말한다고 한다.

<표 II-1> 김녕리 소재 신당(神堂)의 개요

구분	삼 본 향(三本鄉)			기 타	
	큰당(본향)	늑막릿당	성세깃당	케네깃당	서문하르방당
堂神	큰도안전 큰도부인 (강남천자국 셋똥아기)	강남천자국 용너부인	요왕황제국 말갓아들	케네깃한집	서문하르방, 은진미륵(2위)
祭日 / 심방	대제일 (신과세제) 1/13~14 김○보 심방	신과세제, 1/17 김○보 심방	신과세제, 1/18 김○보 심방 생신일 (잠수굿 제일), 3/8 문순실심방	현재는 당에 가지 않음	택일/ 매인심방이 정해져 있지 않음
	마블림제 7/13~14 김○보 심방	7/7,17 김○보 심방	7/8,18 문순실		
	시만꼭대제 9/13~14 문순실 심방	9/7,17 김○보 심방	9/8,18 김○보 심방		
장소	김녕중학교 동쪽 바로 옆	남흘동 주택가	성세기 포구 입구 남쪽	김녕리 2121번지	김녕리 입구 속칭 '영등물'
祭物	시루떡(양푼시루)1 혹은 양푼떡 1, 삶은 계란 2~3개, 구운 생선, 과일(귤, 사과, 배 등 3개 정도), 채소(고 사리/콩나물), 소주 1, 백지, 지전, 제비쌀, 돈(祭費) 등			똥제와 결합	삼본향의 제물을 기본으로 하고, 송 낙, 일곱자 겹떡배, 지전, 명실 등
巫歌 유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내력담 있음
기원 형태	개인적인 비념	개인적인 비념	개인적인 비념, 단 잠수굿 때는 굿을 함	없음	개인적인 비념
당의 직능 /기원 내용	생산, 물고, 호적, 장적 /무사안녕 등의 종합적 내용	15세 미만 아이들 의 육아, 치병 등 /육아의 전반적 사항	어선, 해녀/ 해상안전과 풍요, 사업, 외방에 간 자식들 기원	액막음, 가정內 축원 등 /똥제와 결합	祈子, 得男 /기자와 득남
특기 사항	본향당의 역할 수행, 당곳이 사 라지고 개인적인 비념의 형태로 변화됨	육아를 전문적 으로 하는 당	현재 김녕의 당 중에서 잠수굿을 통해 간단한 비 념이 아닌 굿을 하는 유일한 당 으로 존재함	현재 당제는 없 어졌고, 가내에서 하는 똥제는 유 지됨	개인조상당에서 마을주민들이 공 유하는 당으로 변화함

(2) 기타

개인의 무속의례로는 닛들임, 성주풀이, 불도맞이, 귀양풀이, 시왕맞이 등 비정기적으로 사안에 따라 심방을 청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그리고 매해 행해지는 조왕제와 3~5년 마다 비교적 정기적으로 행하는 돛제를 들 수 있다.

조왕제는 각 가정의 주부가 중심이 되어 부엌에 좌정한 ‘조왕할망’과 그 밖의 ‘일문전신(一門前神)’, ‘일월조상’, ‘안칠성’ 등을 위해 제물을 차리고 집안에 별다른 사고가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례를 말한다.³⁶⁾ 시기는 정월에 포제가 끝나면 각 가정마다 택일해서 하되 보통은 정월에 대부분 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 사정이 있어 정월에 하지 못하고 영등달인 음력 2월에 하게 되면 영등하르방 뭇으로 메를 추가한다. 김녕리의 많은 가정에서 조왕제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정에서 심방을 불러다가 간단한 형태로 하며 시간은 제물진설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³⁷⁾

돛제[豚祭]는 김녕리의 독특한 무속의례이다.³⁸⁾ 물론 김녕리의 인근마을에서도 경우에 따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돛제는 김녕리 당 중의 하나인 케네킷당의 당신을 위해 돼지 한 마리를 바치는 것으로, 그와 관련된 본풀이도 구송된다. 원래는 당에서 했다고 하나 지금은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김녕 주민이라면 누구나 몇 년(대개 3~5년)에 한 번씩 꼭 하며, 제일교포들도 돛제를 지내기 위해서 꾸준히 고향을 찾아온다.³⁹⁾

이밖에 다른 무속의례로 어업종사자들이 주로 하는 백고사나 연신, 그물크사(해신제) 등이 있었다고 보고 되었지만,⁴⁰⁾ 지금 이런 형태의 의례들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한다고 해도 각각의 개인이 알아서 간단하게 하는 정도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김녕 ‘성세기바당’에 넘치게 몰려 왔던 멸치를 수확하기 위한 그물크사는 현

36) 제주도의 조왕제에 대해서는 좌동열, “제주도 조왕신앙고”, 「학술조사보고서」 5집(난산리 학술조사),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77 참고.

37) 현재 치러지고 있는 김녕리의 조왕제를 살펴보았다. 일시는 2005년 3월 15일(음 2. 6), 장소는 김녕리 김○○ 씨 댁이며 심방은 문순실이다. 시간은 오전 8시 경에 시작해서 9시 10분쯤에 끝났다.

38) 김녕리의 돛제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위 책, 참고.

39) 돛제에 대한 현장조사로 2005년 3월 4일(음 1. 24) 오후 3시 경에 신○○ 씨 댁에서 문순실 심방이 주재한 것을 보았다. 신씨는 현재 제일교포로 돛제를 위해 고향을 찾았다. 시간은 제물진설에서 음복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40)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위 책, 참고.

재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멸치떼가 더 이상 몰려오지 않기 때문인데, 예전에 멸치 후리는 노래가 아주 유명하게 전해질 만큼 극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달라진 어업환경이 신앙의례의 존폐에도 영향을 끼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해마다 음력 3월 8일에 잠수회가 주관이 되어 치러지는 잠수굿도 중요한 무속의례 중의 하나이다. 무속의례를 믿는 마을 주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당제와 개인 무속의례를 행하는데, 여기에 그 주민이 잠수라면 잠수굿이 하나 더해지는 모습이다. 그런데 잠수굿은 동·서김녕 구분 없이 마을 전체적으로 행해지는 포제나 당제에 비해 다소 독특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동·서김녕을 아우르는 하나의 잠수굿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김녕마을이나 서김녕마을이 각각 따로 잠수굿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김녕마을은 전래의 굿 형식을 지키며 행해지고 있는데 비해, 서김녕마을은 전래적인 잠수굿의 형태는 아니고 마을 내에 위치해 있는 절에서 축원을 드리는 방식이다. 서김녕마을은 지난 날 무속의례에 대한 미신타파 정책의 영향으로 절에서 축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래적인 잠수굿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김녕리 내에서도 동김녕마을이고, 본고도 동김녕마을의 잠수굿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Ⅲ.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기본 요소와 제차(祭次)

1.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기본 요소

1) 제일(祭日)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제일은 음력 3월 8일이다. 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지는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마을들이 잠수들과 관련한 굿을 주로 영등달인 음력 2월에 하는 것에 비하면 다소 특이한 형태인 것이다. 제일이 음력 3월 8일로 고정된 것은 잠수굿과 관련이 있는 김녕리 성세깃당의 본풀이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동이요왕(東海龍王) 말жат아들(末男)이 청명(淸明) 삼월 초오드렛날(初八日) 인간(人間)으로 나올 때, 운문대단(雲紋大緞) 섭시(夾袖) 남(藍)비단 쾌지(快子) 버므아즈 가로베기 은집서파동개(筒筒) 주먹 ㄱ뚝 옥느 편씩 ㄱ뚝 상무(象毛) 벌러, 궁전(弓箭) ㄱ득 살(矢)을 벌러 혼쌀 끝을 노민 서울 팔대구웨연주문(八大宮의 延秋門)이 올리고 맞아 천리(千里) 보고 사아 만리를 보고, 영급(靈及) 좋은 신당(神堂)이 옥황(玉皇)의 명령(命令) 받아 밧성세기 좌정(坐定)허여 만민해녀(萬民海女) 초지하고 상선(上船) 중선(中船) 소선(小船) 나끼어작선 초지해야 청명(淸命) 삼월 초오드렛날(初八日)은 연년(年年) 생진대제일(生辰大祭日)을 받고, 메돌(每月) 메월 초흐를(初一日) 초오드레(初八日) 여레드레(十八日) 동삼삭(冬三朔) ㄱ을 석돌(秋三月) 상다락에서 상(床) 받고 춘삼삭(春三朔) 하삼삭(夏三朔)은 하다락(下樓)에서 상받아 동양삼국(東洋三國)간 조손(子孫) 서양각국 간 조손 장수장명(長壽長命)과 소원성취(所願成就) 영급(靈及) 좋은 한집입네다.⁴¹⁾

앞서 말한 것처럼 성세깃당은 해녀와 어부를 보살피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당이다. 이런 성세깃당의 본풀이에서 당신인 ‘요왕황제국 말жат아들’의 생신일이 3월 8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날 잠수굿을 하는 것이다. 잠수굿을 실제 행하는 문순실 심방 역시

4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648. 제주시 건입동 남무(男巫) 이달춘(李達春)이 구송한 것을 채록한 것이다. 이달춘은 김녕리에서 속칭 ‘눌굽이하르방’이라고 불리던 심방으로 김녕의 당을 매었던 심방이었다. 그리고 잠수굿도 맡아서 했었는데, 지금도 김녕리에서 나이가 많이 든 잠수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당의 신인 요왕황제국 말갓아들이 음력 3월 8일에 요왕개폐문(龍王開閉門)을 열고 나오는 날이어서 잠수굿을 그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점은 성세깃당의 당신본풀이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오랫동안의 현실생활문화가 깃든 문화의 총체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주에는 육지부보다 풍부한 서사무가(무속신화, 본풀이)가 구비전승 되어 전해지고 있다. 흔히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대략 나뉘지는데, 이러한 신의 내력담들은 아직까지도 무속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제주민의 현실생활세계에 깊게 남아 있다.⁴²⁾

이렇게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제일은 원칙적으로 성세깃당의 당 제일과 관련이 있다. 당굿의 일종으로 잠수굿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동김녕의 잠수굿은 성세깃당의 4대 제일 중 생신대제일에 당신을 위해서 하는 굿이며, 동시에 잠수회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공동체에 기반을 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세깃당은 어업관련 사람들만 다니는 당은 아니다. 마을 주민들이라면 으레 큰당에 다녀온 후 며칠 있다가 열여드렛날 성세깃당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잠수를 포함한 보통의 주민들이 다니는 제일은 1월과 7월, 9월의 제일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세깃당이 어업관련 주민들만 공유하는 당이 아닌데도 유난히 3월 8일의 제일은 잠수들이 주축이 되어 굿을 치르고 있다. 4대 제일 중 3월의 제일이 다른 제일에 비해서 독특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김녕의 다른 당들이 1월, 7월, 9월이라는 3대 제일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성세깃당은 김녕의 삼분향 중에서도 3월의 제일이 이례적으로 추가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2) 장소

잠수굿은 현재 동김녕의 속칭 ‘세기알’이라는 바닷가에서 행한다. 성세깃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세깃당 안에서 굿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전부터 항상 이 바닷가에서

42) 허남춘은 제주 서사무가의 독자성에 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그 특성을 살피고 있다. 즉 ①기존의 문화를 지키려는 대단한 집착성이 드러나는 점 ②서사무가 속의 여성 주인공이 지닌 자발성, 능동성, 적극성 ③고유명사가 주는 즐거움 ④고대의 질서, 가치관을 느낄 수 있다는 점 ⑤시련 극복의 의지를 일깨우는 점이다.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pp.35~38. 참고.

했다고 한다.⁴³⁾ 잠수회의 원로 중의 한 명이고 오랫동안 굿의 직접적인 준비를 맡아 했던 한중선(75세) 씨의 말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집(굿당)이 없어서 뜰(새, 띠)으로 짜서 몇 마디로 묶어 임시로 집 비슷하게 지어 했다. 이제는 아주 좋아진 것이다. 굿하는 장소는 원래부터 횃집 옆의 장소(2003년까지 했던 장소: 조사자 주)에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비바람을 말함: 조사자 주)이 불어 굿을 못하게 되자 성세기막(멜막)에 가서 했다. 거기서 굿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녀가 물 속에서 죽었다. 멜막에서 한 첫 해에 죽었다. 장소가 나뉘었다. 우리 6촌 동생이었다. 한씨 집의 딸이었다. 그 때문에 그 후에는 원래 했던 자리(횃집 옆: 조사자 주)에서만 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담을 쌓고 쓰레트를 덮어서 자리를 마련해서 굿을 계속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 해녀들에게도 지장이 없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을도 편안했다.”

그러면서 점점 굿당의 모양을 만들어 갔고 2003년까지 거기서 굿을 했다. 굿당은 그리 넓지 않은 크기로 돌담을 쌓아 올리고 시멘트를 덧바른 형태였다. 굿당 바로 옆에는 해녀횃집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 김녕해수욕장이나 해안가 그리고 횃집에 들르는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굿을 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앞을 부정하게 지나다니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신경이 거슬린 어촌계와 잠수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2003년 하반기에 인근 어촌계창고 바로 앞으로 굿당을 신축해 옮겼고, 2004년의 잠수굿부터는 새로운 굿당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예전 굿당이나 신축된 곳이나 별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같은 ‘세기알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특별히 굿당의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새로 마련한 굿당이 어촌계창고 바로 앞에 오롯이 조용하게 자리 잡은 것을 바라보고는 잠수들은 나름대로 안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굿을 치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동김녕의 잠수굿을 하는 장소는 해녀들의 주 활동 무대가 바다인 만큼 자신들의 물질장소 근처를 택한 것이다.

한편 김정수 前 어촌계장⁴⁴⁾은 새로 굿당을 신축하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다음과 같

43) 동김녕마을의 잠수굿에 대해서 언급한 기존의 논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일부의 글들은 잠수굿을 행하는 장소에 대해서 오류를 보이고 있다. 즉 2003년까지 잠수굿을 진행했던 세기알 바다의 굿당을 성세기당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성세기당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옛일주도로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세기알의 예전 굿당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이 설명하고 있다.

“옛날 굿당을 허물고 새로 만들었는데, 내가 간사할 때는 그 때는 옮겨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때는 80년대는 완강히 해신제를 노출시키려고도 안 하고 몸 이상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했고 당을 못 움직이게 됐다. 그런데 왜 옮기려고 했느냐 하면, 파도가 치면 1년에 한번 한 3일만 쓰는 것인데 3일만 써 놓고 문 달아 버리면 거기 알다시피 거기 파도치면 물이 들어와서 제 지내는 데가 엉망이 되어 버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만은 옮겨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처음은 쓰레트 집이었다, 그러니까 비도 새고 안 되가지고 그래도 못 옮긴다고 하니까 그 자리 그대로 쓰레트만 걷어내고 집만 조금 높여 가지고 슬라브를 쳤다. 벽돌담 위에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해 녀분들 거기 청소하려고 하면 하루 걸린다. 짠물이 들어오고 모래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제 지내는 데가 막 이 정도 되었다(조사자에게 오물이 어느 정도 높이로 쌓이는지 설명해 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어디 하나 젓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심방한테 물어보고 왜냐면 심방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심방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올해 해신제 끝날 때 자기가(심방이: 조사자 주) 고해를 해 주겠다 해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내용을 고해를 해 주겠다 해서 결국은 2003년도 하반기에 저쪽에다가 내가 옮기게 된 것이다. 거기(예전 굿당: 조사자 주)가 바람 불고 바닷가다 보니까 문이 아무리 성한 문이어도 오래 못 간다.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들어가고 말이지. 과연 제 지내는 데인데 하루만 우리가 필요할 때 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거는 일년 열 두 달 깨끗이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자리를 높이려고도 했다. 그런데 높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균유지다 보니까 건축물허가가 안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런데 새로 지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도(제주도: 조사자 주)에서는 땅만 있으면 지어주겠다 해서, 그런데 그 자리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어촌계 땅 있는 쪽으로 해서 옮긴 것이다. 지금 있는 곳은 다 어촌계 땅이며 울타리 둘러진 곳 전부 해서 150평이다. 이전하게 된 이유들 중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서 굿하는데 어지럽히는

44) 김정수 前 어촌계장(53세)은 동감녕 잠수굿의 이해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잠수굿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심방과 잠수회를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 어촌계장의 역할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정수 씨는 82년도부터 어촌계 일을 맡아 보기 시작해 2003년까지 약 22년 정도 했다.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어촌계 간사 일을 했고, 9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어촌계장 일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잠수들도 김씨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역할을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재임 시기는 한마디로 70년대의 미신타파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고 또 90년대 들어 새롭게 각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이 조명 받을 때까지를 모두 망라하므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김정수 前 어촌계장 인터뷰 일시: 2005. 2. 26. 어촌계사무실).

이유들도 있었고, 거기다가 도로가 붙어 있어서 차들이 막 오고가고 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들을 차단시키려고 양쪽으로 끈도 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욱먹는 것은 책임자다. 모르는 사람은 왜 차를 막느냐. 해신제는 해신제고 차는 다니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애로가 아주 많았다. 옛날 자리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게 됐는데 그래도 해녀들은 될 수 있는 한 옮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굿은 꼭 여기서만 하는 것 보다는 더 조용한데 가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설득시켜 가지고 이제는 더 좋은 장소로 갔다. 굿당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굿당 이전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크게 옮기려고는 안 했는데, 내가 좀 적극적으로 옮겨서 깨끗하고 조용하게 굿을 하자는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해서 옮기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견을 내도 해녀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삼박자가 맞아 가지고 내가 좀 깨끗이 조용하게 멋진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제를 지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된 것이다. 심방도 좋다고 하고.”

잠수들은 예전 굿당이 현실적으로 오물이 쌓이고 도로와 인접해 불편하기는 했었지만 웬만하면 옮기지 않고 어떻게든 굿을 계속 해 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계속 어렵게 맞물려가자 어촌계장과 잠수회, 심방이 오랫동안 의논하여 결국 굿당을 옮기게 되었다. 현재 잠수들은 새로 지어진 굿당의 조건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전 굿당과 거리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굿당 자체도 전보다 크고 깨끗하며 조용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심방

동김녕 잠수굿을 현재 맡아서 하는 심방은 문순실이다. 문순실 심방은 1961년생으로 태어나기는 육지에서 태어났으나, 4살 때에 부모의 고향인 김녕으로 와서 지금까지 김녕에서 살아가는 김녕토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어머니 역시 김녕에서 무업을 했기 때문에 문순실 심방도 자연스럽게 굿을 배우고 김녕에서 심방일을 할 수 있었다. 문심방은 1981년 스무살 되던 해에 첫 신굿을 했으며,⁴⁵⁾ 거의 같은 시기에 어머니와 함께 잠수굿을 하기도 했다.

“81년도부터 굿을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맡은 것도 그때부터였고 실질적으로는 딸을

45) 문순실 심방의 신굿을 조사해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이 「제주도신굿」(김수남 외, 열화당, 1986)이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굿을 같이 다니고 넘긴 것이다. 어머니가 초감제하면 내가 요왕맞이하고 이런 식이었다. 어머니에게서 특별한 전수과정이 있었다기보다는 항상 같이 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가르쳤다. 이전에는 굿에 대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칠머리당굿 전수생이 되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굿하라고 하면 했었다. 배짱이 두둑해서 좋다고 하고 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소화해 내니까, 또 그것을 믿고 나에게 맡기곤 했다. 그리고 김녕 단골들이 마음이 좋아 어떻게든 나를 믿고 맡겼다. 김녕 잠수들도 다 나를 이해해 주고 받아주었다. 옛날 어린 목소리로 굿을 해도 다 받아 주었다.”(문순실 심방 인터뷰 내용)

잠수굿 자체는 어머니인 문춘성 심방이 그 전에 했던 한옥녀 심방을 이어서 맡았던 것이었으나, 문춘성 심방은 자신의 딸을 항상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잠수굿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모녀가 둘이서 어머니가 초감제를 하면 딸은 요왕맞이를 하는 식으로 하다가, 약 3~4년 후에는 어머니가 딸에게 거의 모든 굿을 맡기다시피 하여 실질적으로 문순실 심방이 본격적으로 잠수굿을 맡게 된 셈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의 잠수굿 경력은 현재 약 25년 정도에 이른다.

잠수굿이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잠수들은 특별한 제지나 간섭을 하지 않았다. 모녀가 둘 다 고향이 김녕인데다가 실제 사는 곳도 김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딸인 문순실 심방이 그때 당시 비교적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열심히 굿을 배우고자 하였기 때문이고 그의 성격도 제법 당차고 야무진 면이 있어서 심방이 바뀌어도 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여차피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이고 잠수굿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동네 삼촌-조카’ 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이다. 문순실 심방은 잠수굿과 마을 당제 이외에도 자신의 단골들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왕제나 돛제 등도 맡아서 하고 있다.

4) 단골 : 어촌계와 잠수회

(1) 어촌계⁴⁶⁾

46) 김녕어촌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어촌계장인 안병삼(48세)씨와 前 어촌계장인 김정수(53세)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한편 김녕리는 제주시수협 관내에 속해 있다. 제주시수협은 구좌읍, 우도면, 조천읍, 애월읍 지역을 포함한다. 현재 제주도에 이밖에도 모슬포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이 있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해안마을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에는 기존의 어업공동체가 어촌계라는 조직의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같은 해 김녕에도 어촌계가 조직되었고 동·서김녕 통합 전에는 따로 운영하다가 2000년 마을 통합 때 어촌계도 하나가 되었다. 현재는 동·서김녕 구분 없이 한 명의 어촌계장이 양쪽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현재 김녕어촌계의 계원은 모두 630명으로 잠수는 동·서 합쳐서 162명이다. 김녕어촌계가 계원수로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제주시수협) 관내에서 가장 많아 단일 어촌계로는 큰 편이다. 제주시수협 관내에는 어촌계가 모두 33개 있는데, 이 중 어촌계원수가 200명을 넘는 곳은 모두 9군데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I-1> 참고)

<표 III-1> 제주시수협 관내 어촌계원수 상위 9개소

(단위 : 명)

지역별	어촌계원수	지역별	어촌계원수	지역별	어촌계원수
종달	286	한동	275	김녕	630
하도	537	행원	292	북촌	269
평대	316	월정	215	산지	368

※ 자료 : 제주시수협현황, 2004. 12. 31. 현재

다만 어촌계 630명 중 실질적으로 연 6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은 선주 33명과 잠수 162명을 합쳐서 약 200명 정도인데, 이들을 빼 놓고 다른 계원들은 실제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촌계원으로 등록되어 때때로 어업활동을 하기는 한다.⁴⁷⁾

어촌계장 선출방법은 계원 630명이 전부 모여서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뽑히는 방식이다. 임기는 4년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연임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연임도 가능하다. 김녕에서 어촌계장이 하는 일은 주로 잠수들에 관한 일이다. 어촌계에는 어부회(선주회)도 형식상으로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운영면에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부회 관리는 하지 못하고 주로 잠수회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어촌계장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바다에서의 무사안전에 대한 관리와 해산물의 허채와 금채를 담당하는 것이다.

47) 김녕리 어촌계장 안병삼 씨의 설명(인터뷰 일시 : 2004. 10. 5.).

한편 김녕어촌계는 어촌계장 1인, 감사 1인, 간사 2인, 사무원, 총대, 잠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촌계 조직은 원래는 어촌계장 1인, 감사 1인, 간사 1인 등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김녕 같은 경우에는 동·서합병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 1인, 감사 1인 외에 간사가 2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간사가 2인인 이유는 동·서김녕의 잠수회가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서김녕 잠수회를 각각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⁴⁸⁾ 어쨌든 행정구역상으로 한 어촌계에서 바다가 둘로 나뉜 것은 다른 어촌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김녕어촌계의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인 총대회는 원래 수산업협동조합법 상에는 10~15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그 이상 추가로 구성하고 싶으면 군수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녕의 경우 다른 마을보다 계원이 많기 때문에 군수인가를 받아서 숫자를 늘려 27명이 있다. 어촌계 회의 때에 모이는 임원은 모두 약 32~33명쯤 되고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러한 어촌계가 마을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위상은 높은 편이다. 안병삼 어촌계장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마을 운영의 자금을 어촌계에서 많이 조달했다. 그때는 농업생산력이 별로 좋지 않은 때여서 툇이나 천초 등을 작업한 후에 어촌계원들이 일정 부분을 마

48) 김녕리 어촌계장 안병삼 씨의 설명으로, 마을은 지난 2000년에 통합되었지만 아직까지 바다가 나뉘어져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바다도 통합되어야 하지만 동·서김녕 잠수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잠수들도 마을 통합과는 별개로 현재 바다를 합칠 생각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서김녕 잠수들의 물질작업과 이에 따른 잠수굿 등의 공동체문화도 각각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안창보 前 이장(2000~2002년 통합이장, 54세)은 다소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초대 통합이장을 맡았었는데 그의 견해는 이렇다. “바다통합은 2000년에 통합선언을 할 때 했다. 근본적으로 해녀들도 다 인정했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까지 마을통합을 몇 번 시도했는데 결국 바다통합 문제에 걸려서 몇 번 무산됐었다. 2000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을 통합이 되었고 다만 동·서 해녀들이 따로 작업하는 것을 통합이 아니라고 봐 버리면 이것은 영원히 통합이 안 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통합을 인정했는데 다만 운영은 당신(잠수들을 말함: 조사자 주)들이 직접 합의하에서 같이 해도 좋고 기존처럼 따로 해도 좋고 하지만은 이게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데에 서로가 동의해서 통합한 것이다(인터뷰 일시: 2005. 2. 26. 어촌계사무실).” 즉 통합 이장을 맡았던 그의 견해는 바다통합은 하되 각각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운영의 묘이며 고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을운영비로 각출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리와 어촌계는 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농협 관계 단체처럼 이익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부터 마을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 리와 어촌계는 거의 하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이장, 어촌계장, 청년회장 이런 식으로 나간다. 지금도 어촌계 비중이 큰 편이다. 마을의 모든 회의나 큰일에 모두 참여해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다.”

이는 어촌계의 생산력이 나름대로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녕이 원래부터 어업을 중요시하던 곳이기도 하지만 생산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녕어촌계의 수산물 생산·판매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시수협 관내 33개 어촌계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I-2> 참고)

<표 III-2> 2004년 제주시수협 관내 어촌계별 판매실적

어촌계별 (구좌읍)	금 액(원)	어촌계별 (우도면)	금 액(원)	어촌계별 (조천읍)	금 액(원)	어촌계별 (애월읍)	금 액(원)
종달	451,490,240	천진	154,992,165	북촌	528,597,635	동귀	68,892,167
하도	1,108,136,818	서광	69,864,300	함덕	148,479,281	귀일	84,861,373
세화	44,344,736	오봉	335,592,760	신흥	236,519,774	구엄	23,834,495
평대	360,391,478	조일	430,882,050	조천	362,527,069	신업	22,216,539
한동	313,769,079	소계	991,331,275	신촌	112,306,395	고내	50,009,733
행원	421,800,898			삼양	3,900,150	애월	64,462,490
월정	376,492,063			화북	14,372,282	곽지	3,547,675
김녕	769,195,368			산지	908,455	소계	317,824,472
동북	92,974,742			용담	4,572,438		
소계	3,938,595,422			도두	53,846,955		
				이호	70,120,485		
				내도	5,340,474		
				외도	28,102,812		
				소계	1,569,594,205		
합계	6,817,345,374						

※ 시기 : 2004. 1. 1.~2004. 12. 31. 계통출하에 한정된 실적임.

위의 표를 살펴보면 김녕어촌계는 제주시수협 전체 관내에서 하도어촌계에 이어 2위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좌읍 전체 실적의 19.5%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이

며, 또한 제주시수협 전체 판매실적의 11.2%에 이른다. 물론 각각의 마을마다 ‘바다밭’의 모양이 다르고 지형, 수중 생산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어촌계원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으나, 일단 애월읍에서 구좌읍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김녕어촌계라는 하나의 어촌계가 보여주는 생산력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녕 토박이들은 거의 다 반농반어의 형태를 겸하고 있고, 어촌계원의 숫자가 많으므로 거의 모든 집이 어촌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할 정도이므로 어촌계의 생산실적은 마을의 중요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김녕어촌계의 대부분의 활동은 잠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일은 잠수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잠수들이 스스로 어촌계의 가장 큰 일이며 우선적인 일로 잠수굿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질적으로 잠수들이 어촌계원 중에서도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잠수굿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촌계장의 표현대로 ‘일년 내내 잠수들하고 씨름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어촌계에서 잠수회는 중요한 조직이다. 이는 어촌계의 모든 살림을 잠수회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수회에서 모든 수입금이 나오므로 잠수회가 실질적으로 어촌계의 핵심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수굿을 할 때 어촌계장이 협조를 잘 하려고 하며, 잠수회의 입장에서도 그의 협조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따라서 어촌계장도 잠수굿을 같이 책임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역시 3일 정성을 드린다.

또한 잠수굿 이외에 체육대회 같은 어촌계 자체의 다른 행사들은 아직 없었고, 다만 가끔 부정기적으로 잠수들이 단체여행가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어서, 잠수굿 이외에 정기적으로 어촌계의 무사안녕과 단합을 위해서 벌어지는 활동이 없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잠수회와 어촌계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잠수회는 잠수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종의 자율적 조직으로, 소위 잠수들만의 특별한 공간인 ‘불턱’⁴⁹⁾에서 웬만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미 그 역사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49) 불턱은 잠수들이 물질 도중 따뜻한 불을 쬐어 몸을 녹일 수 있게 바닷가에 만든 장소로, 탈의장 구실도 하기 때문에 소위 금남(禁男)의 구역이다. 요즘은 재래적인 불턱을

이는 가장 제주적인 문화를 소유한 조직 중의 하나이자 여성들만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생긴 이후에 전국에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설립과정을 보면 자율적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남성중심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김녕어촌계도 이제까지 어촌계장을 모두 남성이 맡아 왔다. 이 점에 대해 잠수들도 으레 남성이 어촌계장을 맡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촌계장은 봉사하고 책임지는 자리이며 잠수회에 협조만 잘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⁵⁰⁾ 또한 어촌계는 법적 지위를 얻고 있는 조직인데 반하여, 잠수회는 어촌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법적 조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2) 잠수회

김녕리에는 현재 동김녕 잠수회와 서김녕 잠수회가 있다. 지난 2000년에 마을과 어촌계는 통합을 했지만 아직 잠수회는 각각 따로 운영한다. 물론 잠수들이 물질하는 바다도 지금껏 나누어져 있다.

전체 잠수 숫자는 162명으로, 이 중 동김녕의 잠수가 104명이고 서김녕은 58명이다. 다만 잠수회는 각각 따로 운영하지만 마을 자체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일단 동·서를 총괄하는 잠수총회장을 두고 있다. 잠수회 총회장이라는 직책은 동·서김녕 통합 이후 생긴 것이므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명목상의 직함으로 형식적인 의논 정도를 나누는 형태이다. 이러한 총회장은 동·서김녕 번갈아서 맡는 윤번제이며 임기는 2년으로 각각의 잠수회장과 총회장의 임기가 같은 주기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그러나 총회장 밑에서 각 지역의 잠수회장들이 자신의 잠수회를 이끌어가므로 실질적인 활동은 양쪽 회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어촌계 잠수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총회장 1인, 동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현대식으로 지어진 탈의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탈의장이 곧 현대의 불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공간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마을의 잠수들이 다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질작업의 여러 가지 문제나 잠수회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을의 대소사나 잠수 각 개인의 갖가지 사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턱은 공간적 의미 외에도 현재의 잠수회라는 조직이 생겨날 수 있는 일종의 원형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잠수공동체의 모임과 운영, 유지를 위한 공론의 장소인 셈이다. 불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립화, 「제주바다 潛嫂의 四季」, 한길사, 1987, pp.30~51. 참고.

50) 동김녕 잠수회장인 김옥희(54세) 씨의 설명.

녕회장 1인, 서김녕회장 1인, 동김녕 총무 1인, 서김녕 총무 1인, 그리고 8개 각 동의 동 회장 1인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잠수회 임원은 모두 6명이라고 할 수 있다.(<표 Ⅲ-3> 참고)

<표 Ⅲ-3> 김녕어촌계 잠수회 조직표

잠수 총회장							
동김녕 잠수회장				서김녕 잠수회장			
동김녕 잠수회 총무				서김녕 잠수회 총무			
동성동 동회장	신산동 동회장	청수동 동회장	봉지동 동회장	용두동 동회장	대충동 동회장	한수동 동회장	남흘동 동회장

다음부터는 동김녕의 잠수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⁵¹⁾ 잠수회장의 선출은 잠수들이 모두 모여서 선출하며 잠수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 투표에 의해서 뽑지는 않는다. 회장이 될 수 있는 잠수의 자질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물질 능력으로 상군기량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어촌계 회의를 할 때에는 주로 잠수회장만 대표로 참석하고 간혹 제주시수협 회의 때는 다른 임원을 데리고 가기도 한다. 어촌계 회의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어촌계장이 사회를 보고 총대들도 모인다. 여기에서 잠수회장은 의결권 한 표를 행사하고, 발언권도 보장된다. 또한 잠수회 회의를 할 때는 각 동회장을 통해서 모이는데, 모두 모이면 약 90명 정도 된다. 잠수들의 회의 장소는 어촌계 창고이고, 최종 결정은 보통 다수결로 정한다. 주된 회의 내용은 작업시기나 잠수곳의 제물마련 관련 정도라고 한다.

한편 잠수회 내에 규약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강한 규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규약도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정해진 것이다. 또한 동김녕의 잠수가 타지(他地)로 가면 입어권을 상실한다. 하지만 만약 다시 돌아오면 그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댓가는 주로 돈이다. 이 돈은 해녀공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의 돈의 의미는 떠나 있는 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봉사'를 대체하는 의미를 가

51) 동김녕 잠수회의 운영에 대한 서술은 동김녕 잠수회장인 김옥희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다(인터뷰 일시 : 2004. 5. 29. 김옥희 잠수회장택).

지고 있다고 한다. 잠수들이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다청소(해안가 환경정리)나 문어 단지 걷기 같은 것을 말한다. 그밖에 새로운 가입자에 대해 일정시기 물질기간 금지가 있기도 하며, 이런 것들은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어서 정확히 적용하기 보다는 대체적인 기준을 두고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회의를 통해 전체가 모여 결정한다. 아무튼 마을을 한번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다시 물질하기가 수월치는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동김녕의 잠수회는 잠수들의 숫자도 아직 많고 나름대로 경제력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부 보조를 받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정경호'라는 관리선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일면도 보여주고 있다. 이 배는 잠수회 소속의 배로써, 물질 때 수수료를 떼서 그 돈으로 사공의 월급과 배의 기름값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탄탄한 배경이 잠수회를 유지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잠수회에서 잠수굿을 제일 큰 행사로 생각하며, 일종의 마을잔치 역할을 하는 것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 잠수회는 해마다 잠수굿을 의뢰하는 단골이라고 할 수 있다. 굿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들 모여 회의를 하고 어떻게 굿을 무사히 잘 치를 것인가를 논의한다. 그리고 제물마련에 모두 동참하고,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은 선배적인 잠수들 위주로 실질적인 굿 준비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김녕의 당에는 단골들이 상단골·중단골·하단골 식으로 존재하는 것에 비하면, 잠수굿에 참여하는 잠수들은 그런 성씨로 위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물론 김녕의 당과 관련된 단골들도 현재 대부분 형식적인 흔적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당들이 단골을 중심으로 그동안 유지, 전승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잠수굿을 의뢰하는 잠수회는 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집단이 아니라, 동일 생업을 공유하는 전문집단으로서의 단골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동김녕 잠수회는 곽·고·김·양·원·이·임·정·조·박·장·한·강·오·문·안·윤·허 씨 등의 다양한 성씨들로 이루어져 있다. 잠수회가 각각의 성씨로 혼합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유대를 형성하는 가장 일차적인 것은 다름 아닌 험한 물질을 같이 하는 동료라는 인식이다. 혈연이나 지연보다는 일종의 직업적인 관계로 짜인 잠수회이기 때문이다.

5) 제물마련

제물마련은 이틀 전부터 한다. 물론 굿의 준비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 굿당에서의 제물마련은 굿하기 이틀 전의 늦은 오후 무렵에 쌀을 씻어 물에 불리는 것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굿하기 하루 전날에는 굿에 쓰일 제물마련을 위해 잠수회에 소속된 잠수들은 거의 모두 나와 물질을 한다. 잠수회 대표들은 그전부터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점검해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지만, 제물이나 하루 종일 먹을 반찬 등은 모두가 모여서 한꺼번에 다같이 물질을 하고 굿 당일에 먹을 수 있게끔 다듬는다.

잠수굿을 위해 물질을 하는 것을 ‘해신제 물에 든다’고 말한다.⁵²⁾ 이 때의 물질은 잠수들이 포구에 다같이 모인 상태에서 어촌계장이 당부의 말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질을 하라고 말하면 함께 관리선인 정경호를 타고 뱃물질을 나서는 것이다. 뱃물질을 나간 대부분의 잠수들은 마을 공동어장인 양식장에서 물질을 하고, 몸이 좋지 않거나 연로한 층들은 갯가에서나마 힘을 보탠다. 이 제물마련을 위한 물질에는 상(喪)이 났다든가 한 부정한 잠수들은 참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신앙을 가진 아주 극소수의 잠수들은 본인이 원하면 참가할 수 있고, 설사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히 제재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잠수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굿을 믿지 않는다 해도 잠수회의 일원으로서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잠수들이 캐낸 해산물은 반찬으로 쓰일 뿐 제물로는 올리지 않는다. 제물을 준비하는 노련한 선배잠수는 같은 해산물이어도 일일이 다 확인하며 그 중에서 모양이 바르고 신선한 해산물만을 취한다. 그리고 그 해산물을 캐낸 잠수도 당연히 부정한 일을 당한 잠수가 아니어야 함을 물론이다. 세세한 것에도 모든 신경을 쓰고 있다.

일반 잠수들이 다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동안, 굿 자체에 쓰일 제물준비를 위해 특별히 선정된 3인의 선배잠수는 굿당에서 자기들끼리만 제물을 만든다. 이 굿당에는 이미 급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3인을 제외하고는 들어올 수 없다.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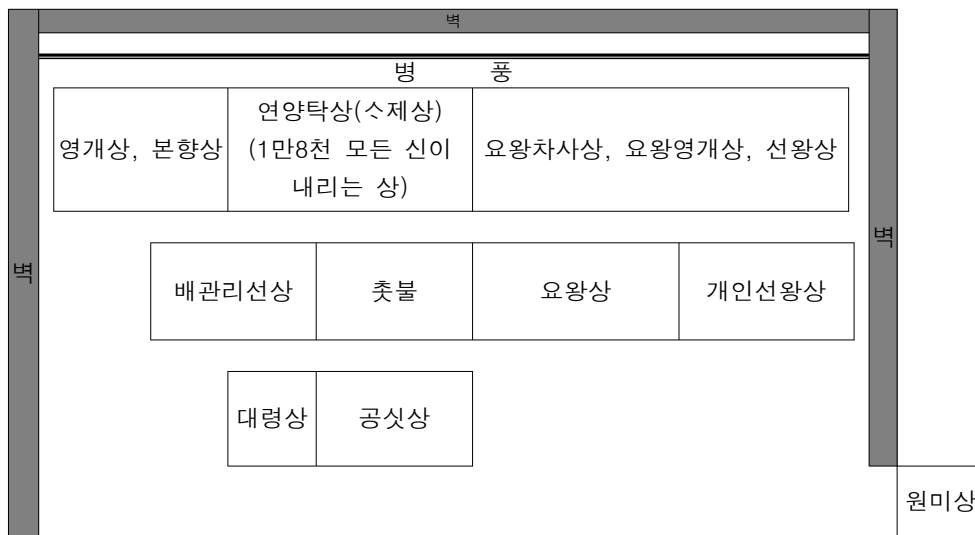
52) 포제 때의 ‘포제물에 든다’와 마찬가지로, 잠수굿을 위해서는 역시 ‘해신제 물에 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행사를 위해 특별한 물질을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이며, 이때 채취한 해산물에 대한 관리는 일반적인 물질작업의 경우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즉 해산물에 대한 채취·운용·회계가 구별되는 셈이다.

은 철저히 역할분담을 해서 신속하고 재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서 각 상마다 올라갈 제물을 다 따로 구분해서 만드는 노련함도 보인다. 몇 십년씩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특별한 제물마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2003년까지 했던 원래의 굿당은 제물마련을 위한 조리시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성을 드리는 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신축된 굿당에는 한쪽에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잠수들은 더욱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이렇게 준비된 제물은 돌래떡, 큰 시리 4개, 작은 시리 32개, 고리동반떡 7개, 과일 7가지(배, 사과, 밀감, 대추, 밤, 꽃감, 비자), 명태, 채소(고사리, 콩나물, 생미나리), 시령묵, 백지, 팔짱거리 3자 세치, 물색 명주 3가지 등이다. 이밖에 굿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먹는 반찬은 일반 해녀들이 어촌계 창고에서 따로 준비한다.

이 굿당에서 쓰일 제물들은 연양탁상(스제상), 영개상, 본향상, 요왕차사상, 요왕영개상, 선왕상, 관리선상, 요왕상 등에 올라간다. 굿당에 차려지는 상은 이밖에 개인선왕상, 원미상과 심방의 무구를 놓아두는 공깃상, 신을 청할 때 필요한 대령상 등이 있게 된다.([그림 III-1], <사진 III-1> 참고)

[그림 III-1] 2003년 잠수굿 당시 제물진설



※ 배관리선상의 원래 위치는 요왕상 옆이라고 하나, 장소가 비좁아 현 위치에 놓았다고 한다.

<사진 III-1> 2003년 잠수굿 당시 제물진설 모습



6) 금기사항

잠수굿은 음력 3월 8일이기 때문에 잠수들은 3일 전인 6일부터 정성을 드리는 기간으로 잡는다. 대개의 경우는 3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잠수회장 등 책임을 맡은 잠수들은 개인에 따라 그 기간이 며칠 더 늘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잠수들이 정성을 드린다는 것이 이른바 금기를 지키는 것이다. 굿당에 처진 금줄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금기라고 했을 때는 굿을 위해서 모든 부정을 없앤다는 것을 뜻한다. 부정하다는 것은 보는 것·하는 것·먹는 것 등 일체를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월경, 성행위를 하지 않고, 상(喪), 각종 사건·사고를 보는 것을 피하고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굿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돼지고기나 자리젓 같은 음식 등을 먹지 않고, 불경스러운 언어구사를 자제하며, 제장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요양질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잠수들의 금기는 따지고 보면 무슨 특별한 내용이거나 거대한 억압구조가 아니라, 세속적인 실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로써 누구나 조심만 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2.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기본 제차(祭次)

1) 제차의 구성

동김녕 잠수굿은 하루 종일에 걸쳐 치러진다. 새벽부터 제물을 진설하고 큰대를 세우고 삼석올림부터 시작해서 굿의 마지막인 도진을 하면 저녁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잠수굿의 제차는 굿의 내용상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초감제, 요왕맞이, 지드림, 씨드림-씨점, 액막이, 배방선 등이다. 그런데 이들 중심적인 제차들은 그 내부에 다양한 제차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선후로 이어지는 제차들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동김녕 잠수굿의 기본제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³⁾

[삼석올림]

[초감제] :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닭음-제청신도업-군문열림-분부사림-새드림-젯드리 앓혀 살려음

[추물공연]

53) 제차 분석은 지난 2003년에 벌어진 굿을 대상으로 한다. 본고의 서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본고는 2003년과 2004년에 벌어진 굿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03년의 굿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기존 굿당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진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기도 하다. 동김녕의 잠수굿은 매년 진행이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각 해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04년의 경우 새로 굿당을 신축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차의 진행 과정에 ‘강태공수목수’와 ‘문진본풀이’라는 제차가 덧붙여 끼여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현용준은 동김녕 잠수굿의 제차를 크게 초감제—요왕맞이—요왕세경본풀이—요왕채스본풀이—씨점·씨드림—즈손들 산받음—배방송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현용준, “濟州의 漁民信仰”,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pp.165~167. 이 논문은 「濟州道 水協史(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1986)」에 실린 것을 재수록한 것임). 기본적으로 당시의 잠수굿이나 현재의 잠수굿은 거의 동일한 제차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용준의 보고와 비교해보면 일부 제차의 순서가 현재와는 조금 다른 면이 발견되기도 한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나 굿 진행에 따른 시간의 적절한 안배, 수심방과 소미(小巫) 사이의 교대 등 여러 가지 사정이 해당 상황에 따라 제차의 일부 순서에서 다소 선후가 바뀌어 행해질 수 있다. 한편 동김녕 잠수굿의 매인심방인 문순실은 1980년대 초 자신이 굿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본고에서 밝힌 제차구성을 그대로 현재까지 변화 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요왕세경본풀이]

[요왕맛이] : <초감제> :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닭음-제청신도업
-선왕의 이야기(도깨비영감)-군문열림(군문돌아봄)-
분부사름-새 드림-도래둘러멤(상촉권상-도래둘러멤-
젯복제맞이굿)-오리정신청귀-서우젯소리-본향툼(소
지사름 포함)-오리정 정데우 마무리

<요왕질침>

[지드림]

[씨드림 - 씨점]

[서우젯소리]

[액막이] : <요왕차사본풀이>, <각산받음> 포함

[선왕풀이-배방선]

[도진]

2) 제차의 의미와 진행⁵⁴⁾

(1) 삼석올림

굿을 시작하기 전에 북, 설채, 대양 등 3가지 연물(무악기)을 간단히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늘옥황에 굿을 시작한다고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동김녕 잠수굿에서는 보통 새벽 6시 30분을 전후에서 삼석올림을 하고, 이어 아침식사를 마치면 심방이 옷을 갖춰 입는 등 본격적인 굿의 준비에 들어간다.

한편 삼석올림이 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삼석을 올리고 난 후에라야 개인요왕맛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삼석을 올리고 나서 아침 먹기 전에 개인적으로 요왕맛이를 간단하게 드렸다고 한다. 물론 현재는 잠수회의 내부 합의로 초감제를 지내고 나서 개인요왕맛이를 하기로 결정되어 대부분 이를 지킨다. 하지만 그래도 사정이 있거나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아침에 개인요왕맛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4) 제차의 의미와 진행을 밝히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연구(집문당, 1986)」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집문당, 2001)」이 큰 도움이 되었고, 따라서 여기에서의 서술은 현용준의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제차에 대해 문순실 심방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고, 본 조사자의 세부제차 구분과 설정에 대해 이를 확인해 주었다.

삼석울림은 일종의 의례 가능여부를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한다. 즉 연물소리를 내야 요왕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2) 초감제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굿은 이 초감제부터 시작하게 된다. 초감제는 기본형식의례(基本形式儀禮)이자 종합청신의례(綜合請神儀禮)이다.⁵⁵⁾ 초감제는 일정한 순서로 세부제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김녕 잠수굿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앞서 밝힌 것처럼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닭음—제청신도업—군문열림—분부사뵐—새드림—젯드리 앓혀 살려움>의 순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심방이 굿을 시작하면 천지자연과 각종 인문사항의 발생을 노래하고(베포 도업침), 굿을 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하면(날과 국 섬김), 이어서 누가 굿을 하여 축원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열명). 그리고 이 굿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게 되고(연유닭음), 그러므로 어떠어떠한 신들이 제청에 내려오기를 청한다(제청신도업). 그런 후 신들이 내려오려고 하면 신역(神域)의 문을 열어야 하므로 격렬한 도랑춤과 함께 문을 여는 모습을 보이고(군문열림), 문이 열렸는지 그 결과를 점쳐 확인되면 신의 뜻을 전달한다(분부사뵐). 한편 문이 열려 신들이 내려오고자 하는 길의 모든 부정을 없애기 위해 새[邪]를 쫓는다(새드림). 그리고 다시 제(祭)의 순서와 신의 위계에 맞게 신들을 청해 제장으로 좌정시킨다(젯드리 앓혀 살려움).

동김녕 잠수굿을 크게 구분하라면 한마디로 오전의 초감제와 오후의 요왕맛이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초감제와 요왕맛이는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초감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초감제에는 아주 극소수의 대표잠수들만 참가하며, 이는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을 방지하고 보다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초감제에만 부정타지 않으면 된다. 초감제만 지나면 괜찮다. 요왕맛이 때는 그나마 괜찮다. 초감제는 신이나 혼령들을 다 청하는 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초감제가 잘못되면 심방도 괴롭고 편하지 못한다. 초감제에는 대표 몇 명만 굿당에 가 있

55)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pp.262~265.

지 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다른 곳에 앉아 있다.”(한중선 씨 인터뷰 내용)

“초감제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초감제 때는 책임진 사람만 굶는데 와서 관찰을 한다. 다른 해녀들은 밥하는 데에만 있다. 책임지고 정성을 완벽하게 드린 사람만 초감제에 와서 본다.”(문순실 심방 인터뷰 내용)

“초감제 할 때는 말은 사람만 참여하고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못했다. 초감제 이후에는 누구나 너나없이 굶판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다. 해녀들 스스로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나타나지도 않았고, 초감제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와서 구경하곤 했다.”(김정수 前 어촌계장 인터뷰 내용)

이처럼 동김녕 잠수굿에서는 무엇보다도 초감제를 가장 중요한 제차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당굿·개인집 굶를 비롯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잠수들이 직접적으로 초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 준다.

(3) 추물공연

굿당에 청해 들인 신들에게 제상에 놓인 제물을 드시도록 권하는 제차이다. 심방은 앉아서 장구를 치며 제상에 놓인 제물을 열거하며 일일이 권한다. 그러면서 기원하는 내용도 같이 말한다.

(4) 요왕세경본풀이

요왕세경본풀이는 동김녕 잠수굿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왕세경본풀이는 심방이 장구를 앞에 두고 앉아 치면서 노래한다. 원래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로서 일반신본풀이에 해당한다. 상세경인 문국성과 중세경인 자청비, 하세경인 정수남이를 중심으로 이들이 농경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것인데 장편의 서사무가이다. 동김녕에서는 이런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거기에다 본풀이 전후로 용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삽입함으로써 요왕세경본풀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용준도 동김녕마을에서 미역, 전복, 소라 등이 번식하는 것도 바다의 농사로 보아 바다에도 농신인 세경이 있다는 관념으로 세경본풀이를 한다고 보았다.⁵⁶⁾

5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p.166.

(5)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용왕, 龍王)을 맞아들어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제차이다. 오후에 진행되는 중요한 제차로, 크게 구분하면 요왕맞이 자체의 <초감제>와 <요왕질침>으로 나눌 수 있다. 초감제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데, 다만 오전보다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닭음—제청신도업—선왕의 이야기(도깨비영감)—군문열림(군문돌아봄)—분부사름—새드림—도래둘러멤(상축권상-도래둘러멤-젓북제맞이굿)—오리정신청께—서우젓소리—분향뚝(소지사름 포함)—오리정 정대우 마무리>의 순서를 가진다.

여기서 <도래둘러멤⁵⁷⁾>이 추가되고, 신을 청해 들이는 <오리정신청께>가 강화되며 제주도 서사민요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우젓소리>가 행해진다. 또한 성세깃당신을 모셔들이는 <분향뚝>이 이루어진다. <분향뚝>은 잠수굿이 성세깃당신과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제차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전의 초감제에 나왔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열명>이나 <연유닭음>, <분부사름>이 행해지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한편 초감제가 끝나면 곧바로 <요왕질침>이 시작되는데, 이 <요왕질침>은 신이 오고 가는 길의 부정을 치우고자 하는 질치는 장면과 그 이후에 요왕문을 열려 맞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푸른 가지가 달린 대나무를 양쪽으로 8개씩 꽂아 두고 벌이는 질치는 장면 역시 대단히 볼거리가 많은 흥미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왕문을 열려 맞을 때에는 대표 잠수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의 문이 열릴 때마다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잠수굿의 오후에 진행되는 요왕맞이는 잠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요왕맞이라고 하며, 이 때는 오전의 초감제보다는 제장의 드나뚝이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이다. 왜냐하면 잠수들은 별도로 개인적인 요왕맞이를 하기 때문이다.

“요왕맞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해녀들은 각자 그 날 아침에 개별적으로 요왕맞이

57) <도래둘러멤>이란 새드림 후 신청께를 하기 전에 심방이 돌래떡을 넣은 채롱을 들고 춤추다가 각종 악기(樂器)에 그 떡을 하나씩 나누어 넣는 행사를 한다. 각종 악기의 신에게 고사 지내어 악기가 잘 울리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868.

를 하고 오기 때문에 초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도대불 너머에 넓은 빌레가 있는데 거기서 각자 요왕맛이를 다 하고 온다. 굿하기 전에 제물 싸들고 가서 한다. 심방이 4시 반에 오면 다섯시에서 여섯시 되어 가면 심방에게 연물소리를 내게 하고, 연물소리를 내야 각자 요왕맛이하는데 요왕문이 열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은 밥 먹기 전에 연물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석 울리고 나서 굿하기 전에 도대불 근처에 가서 밥(메), 채소, 과일, 제숙 등 간단히 차려서 개인대로 다 싸서 가서 자기대로 한다. 심방은 안 가고, 그런데 여든이어머리가 안 아플 때는 여든이어머리가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한다. ... 대표들은 굿 준비를 하느라 개별 요왕맛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가서 한다. 일반 해녀들은 새벽에 연물 올리면 개별적으로 요왕맛이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먹으러 온다. 그래서 초감제 후의 요왕맛이는 이미 자기들의 요왕맛이는 다 했으므로 초감제 만큼 그다지 예민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보는 정도인 것이다. 잠수굿 때 요왕맛이는 전체적인 동김녕 요왕맛이고, 개인 요왕맛이는 각자 자기와 자기네 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자기 집식구 수대로 지를 싸서 드린다.”(한중선 씨 인터뷰 내용)

“바닷가에서 개인요왕맛이는 했다. 심방을 빌기도 하고 안 빌기도 하고 알아서 그냥 자기바다 깨끗한 데에 가서 조그맣게 제물 차려서 가서 했다. 여든이어머리 말에 의하면 원칙은 초감제하고 난 후에 가서 개인요왕제를 드리는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 전에도 할 수는 있었다. 전에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남보다 먼저 새벽에 깨끗할 때 하는 사람이 많다.”(이형자 씨 인터뷰 내용)

(6) 지드림

요왕맛이가 끝나면 제상에 있던 제물을 조금씩 뜯어 모아 ‘지’를 썬다. ‘지’는 흰 한지에 제물을 조금씩 싸는 것을 말하는데, 잠수들이라면 평소에도 하는 기원행위의 일종이다. 지는 용왕신과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제물을 대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는 잠수회 전체를 위한 ‘도지’와 각자의 ‘개인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를 드릴 때는 심방이 대양을 들고 같이 가서 간단하게 축원의 말을 해 준다.

도지는 전체를 위한 것으로 아무나 싸는 것이 아니라 잠수대표들이 싸서 던진다. 그 외에 각각의 개인은 알아서 조그맣게 지를 싸서 바다에 가서 던진다. 일종의 바다라는 절대적인 세계에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씨드림 - 씨점

지드림 후에 씨드림이 시작된다. 동김녕의 잠수들 중에 2인이 선정되어 바닷가를 한 바퀴 돌며 줍씨를 뿌린다. 줍씨는 해산물의 씨로 관념되며 곧 해산물이 골고루 잘 자라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씨 뿌리고 난 후 심방은 돛자리 위에다가 남은 줍씨로 점을 친다.

(8) 서우젯소리

씨점 후에는 모든 잠수들이 어울려 노는 서우젯소리가 이어진다. 심방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잠수들도 따라서 부르는데, 이 때는 잠수들이 너나할 것 없이 박수를 치며 흥겹게 논다. 요왕맞이의 세부제차 중에도 간단히 서우젯소리가 있었는데, 씨점 후의 서우젯소리는 보다 오랫동안 흥겹게 불려지는 것이다.

서우젯소리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널리 가창되는 민요의 한 유형으로 무의(巫儀)의 <석살림> 제차에서 전문적 직능자인 심방에 의해 가창되며 신놀림이라는 주술종교적 기능을 띠는 점에서 무가적(巫歌的) 성격과, 노래와 함께 춤이라는 집단적 유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유희요적(遊戲謠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⁵⁸⁾

(9) 액막이

액막이는 굿의 후반부에 시작된다. 나쁜 액을 막고 일년 내내 무사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제차이다. 잠수회 전체를 위한 <도액막음>, 일년 운수가 좋지 않다고 판단된 개별 잠수들의 <액막음>과 <각산받음>이 있다. 그리고 이들 액막음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왕차사본풀이>가 불려지게 된다.

요왕차사본풀이는 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치며 부르는데 그 내용은 일반적인 차사본풀이와 같으며, 해상에서의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해서 한다. 다만 차사의 성격을 용왕에 관련된 요왕차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풀이를 하고 난 후 심방은 도액을 먼저 막고, 이어서 잠수들 각자가 준비해 온 액막이용 물건(열명지, 지전, 폐백, 제비쌀 등)을 앞에

58)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6, p.46.

두고 액을 막음과 동시에 쌀을 이용해 점을 쳐 준다.

(10) 선왕풀이—배방선

액막이가 끝나면 단골들과 소미들이 제장을 정리하는 가운데, 심방이 선왕상을 마주 두고 앉아서 선왕풀이를 한다. 선왕은 도깨비 영감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 선왕에게 제물을 잘 대접하니 배의 무사고와 풍요를 일으켜주도록 기원한다. 그리고 선왕풀이 후에는 선왕상에 차렸던 제물을 모아 상자에 담고 바닷가로 나가서 멀리 띄워 보내는 배방선을 한다. 예전에는 짚배로 만들어서 했는데, 요즘은 주로 스티로폼 상자에 갖은 제물을 놓아서 한다. 동전도 몇 개 넣어서 선왕의 노잣돈을 마련한다.

(11) 도진

배방선까지 마치면 굿은 다 끝난 것이다. 심방은 굿에 청했던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다시 간단하게 송신(送神)의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나면 제장과 주위에 팔(또는 콩)을 뿌려 제장을 정화한다.

IV. 동김녕마을 잠수곳의 역할과 전승상황

1. 잠수곳의 역할

앞서 잠수곳의 자세한 제차를 살펴보고, 그 의미와 진행을 짚어보았다. 따라서 이제는 동김녕에서 왜 이런 형태의 잠수곳을 오랜 시간 전승시키며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잠수곳이 잠수 개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곳의 어떠한 부분이 잠수회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잠수곳의 제차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또한 잠수들은 특히 어떤 제차들을 중요시하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제차들은 어떤 제차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했던 잘 보이지 않았던 제차들도 다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수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제차들을 중심으로 잠수곳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 과정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그 역할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첫째, 잠수들의 해상무사고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이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 이는 그만큼 물질작업이 쉬운 일이 아님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잠수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예민하게 곳에 몰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사고에 대한 기원은 실질적으로 잠수곳 전체에서 크고 작은 형태로 내내 행해지며, 이때마다 잠수들은 두 손을 모아 거듭 반복하며 빈다. 무사고라는 것은 바다에서의 해상사고가 없기를 일차적으로 비는 것이나, 이외에도 자동차사고나 집안에 채수 없는 일 등등 잠수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무사고로 확대되어 기원된다.

둘째,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요즘 해산물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잠수들은 곳을 잘 해서 바다밭에 풍년이 들기를 바란다. 잠수들은 바다 역시 육지처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산물의 풍요를 바라면서 하는 여러 행위들은 소위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잠수굿은 잠수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더불어 마을의 단합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한다. 실제 동김녕에서 잠수들에게 음력 3월 8일은 ‘우리(잠수)들의 날’이다. 굿을 전후해서 잠수들은 특별히 자신들을 위한 의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다소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해도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넘어가며, 잠수회장을 중심으로 잘 단합해서 무사히 잠수굿을 치르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동김녕에서는 잠수굿이 포제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마을 행사다. 따라서 단순히 잠수들만의 의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크게 보면 해상무사고 기원, 해산물 풍요, 공동체의 유대강화라는 역할이 잠수굿에 녹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이를 통해서 잠수굿이 더 이상 잠수들만의 단순한 신앙활동이 아니라 그 외연이 확장되는 범위에 따라 그 층위도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이 잠수굿의 진행 제차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해상무사고 기원

(1) 열명(列名)

열명은 예명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굿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즉 누가 굿을 하는 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굿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제차이기도 하다. 잠수굿에서도 굿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열명을 해서 굿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부른다. 굿당의 천정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를 쪽 써 놓은 종이를 걸어놓는다. 동김녕은 잠수들도 많고 각 기관·단체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불러야할 이름이 많은 편이다. 종이에선 어촌계 임원 명단, 각 마을의 잠수명단, 선주명단, 각 기관이나 단체명단, 일반 참가자 등이 순서대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열명을 하는 이유는 축원을 올리는 대상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유와 더불어, 결국 잠수굿에서 기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첨가되고 있다. 그

들에게는 최고의 목적이 물질작업 중에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열명이라는 절차는 당연히 해상무사고 기원의 필수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 열명은 굿의 서두 부분에서만 아니라 굿을 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불려진다. 이름을 일일이 불러줌으로써 그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신에게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예명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해야 굿한 것 같다고 느껴진다. 굿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명이다.”(한중선 씨 인터뷰 내용)

한편 열명이야말로 잠수굿을 주최하는 주민들이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물론 잠수들만이 아니라 부조금을 내는 사람이나 기관 모두의 이름을 올려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잠수들이 주최하고 있는 굿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다.<사진 IV-1> 참고)

<사진 IV-1> 열명



(2) 새드림

새드림은 초감제 중의 한 제차로 소미가 나와서 물그릇과 감상기를 들고서 신이 내려오는 길의 모든 부정을 없애 치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초감제의 새드림이나 요왕맞이 초감제의 새드림을 하는 과정에서 소미가 여러 잠수들을 제장의 한 가운데로 불러내어 앉혀 놓고 그들을 상대로 부정[邪]을 멀리 쫓아내는 모습을 시연한다. 본주(단골)들의 몸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정을 없애고 깨끗한 몸으로 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부정을 없애는 의미가 확장되어 본주의 무사고를 바라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새[邪]는 기원자에게도 달라붙어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새를 멀리 쫓아내는 행위는 곧 무사고를 기원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때 소미가 신칼인 명두로 개개 잠수들의 몸을 쓰다듬어 주는데, ‘신칼치마가 한번만 닿아도 소망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그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한다. 잠수들은 이 과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반복해서 잘 보살피 달라고 기원한다.

(3)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초감제와 더불어 잠수곳의 한 축을 형성한다. 말 그대로 용왕을 맞아달려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양쪽으로 8개⁵⁹⁾씩 꽂아 놓은 뗏가지는 요왕질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 길이 요왕이 오고 가는 길이며 그 자체가 요왕문이 되는 것이다. 물질 작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 그야말로 요왕문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기원한다.

59) 요왕맞이의 뗏가지는 보통 양쪽으로 8개를 꽂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곳에서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6~11개 사이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점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장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立木竿十二 迎神祭之)”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이에 대해 현용준은 ‘立木竿’이 요왕맞이 때에 푸른 대를 세워 요왕문을 만들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기도 하다(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p.74.) 한편 요왕질의 뗏가지는 푸른 잎이 달린 상태로, 처음에는 묶지 않고 놓아 두기 때문에 심방이 질치는 시연을 하는 동안에는 마치 해조류가 넘실거리는 바다 속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뗏가지는 요왕질치기 시연이 끝나고 요왕문을 열려 맞기 전에 서로 양쪽을 묶게 된다.

나 조순들아 착허다 나 조순들아 고마웁다(다 막아줍서). 목 므른 사람이 물을 좇으
고(아이고 다 막아줍서) 목 므른 사람이 샘을 좇는 법이로구나(아이고 다 막아줍서).
정성 그득허다 시군문을 저승반 이상반 조상들이 내리젠 허난 처서님이 앞을 사난
조상님네 가문공스로 고양 놀려준다 해염수다(고맙수다. 다 막아줍서). 조상님아 고
맙수다. 인정을 싣끈 배가 파하는 일 없고 공 들영 놓아 두민 공든 탑 무너지는 법
이 없습네다. 작년에 궂인 운을 곱게 냉겨주난 고맙수다. 쉼 다섯솔(잠수회장을 말
함: 조사자 주) 혼 들에 혼 번씩만 백명이 넘는 지를 혼 번 드리치민 열두 번을 드
리치명 간장 썩으멍 솔 썩으멍 구신 테우리 생인 테우리 영 허영 오늘까지 이 곳
허는딜랑 백명이 넘는 해녀들 편안시켜줍서(아이고 다 막아줍서). 바당에 돈 벌영
살젠 물질 안 허는 조순들은 편안허게 살주만은 이디 예명올린 조순들은 배운 기술
은 바당물질 배우난 정일월은 칼날같은 브름쌀이로구나. 이삼사월은 진진헌 해 오뉴
월은 한 더위 오동짓들은 서단풍에 요즘이사 이거 고무옷도 입고 허난 허주만은 이
웃 입어도 여름은 나민 더운 짐이 무각무각 겨울은 나민 머리 실롭고 손 실롭고 발
실롭고 이 돈 벌어당 얼마나 살명 이 물질해영 백년이나 돌아오명 삽네까. 배운 기
술이 이 기술이난 하루 강 물질허민 돈 만원이라도 벌어진 이 바당을 영업삼으곡
해영 땡겍수다. 요왕님에서 죽을 목숨을 살려줍서.(2003년 동김녕 잠수굿, 요왕맞이
의 군문열림 중에서)

(4) 지드림

지는 흰 종이에 쌀(또는 밥)을 싸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해 첫 물에 들
때나 조금 때마다 수시로 개인들이 알아서 바다에 지를 드린다. 사람에 따라서 지의 갯
수가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왕지’와 ‘몸지’는 공통사항이고 가족 중에
물질하다가 수중고혼이 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몫의 지도 싸서 던진다.

이러한 지드림은 잠수굿에서도 나타난다. 요왕맞이 후에 지를 싸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일종의 바다라는 절대적인 세계에 자신의 정성을 보이며 바다에서 물질할 때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를 드리고 나면 바다 속에 하얀 지들이 많이
깔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잠수들에게 지드림은 일상화되어 있다.(〈사진 IV-2〉 참고)

<사진 IV-2> 지드림



(5) 요왕차사본풀이

차사본풀이는 죽은 이를 위로하고 저승의 좋은 곳으로 잘 가기를 바라는 무혼의례(撫魂儀禮)에서 불려지는 서사무가를 말한다. 그런데 잠수굿에서는 기원자들이 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요왕차사본풀이를 하게 된다. 요왕차사본풀이를 부르는 이유는 이미 죽은 이들은 저승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해 달라는 뜻과 함께, 바다에서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잠수들의 물질이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행해지고 잠깐 방심하거나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요왕차사본풀이를 통해서 무사고를 기원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 액막음과 각산받음

액막음은 굿은 액을 막는 것이다. 또 산받음이란 신의 뜻을 점쳐 그 결과를 알려 주는 것으로 각각의 개인이 개별적으로 산을 받는 것을 각산받음이라고 한다. 동김녕에서

는 곳 전반부에 심방이 전체적으로 산을 받아 본 후 어찌어찌한 사람들이 좋지 않다는 점괘가 나오면, 잠수회장은 특별히 대상으로 지목된 잠수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중에 액막이를 할 준비를 하게 한다. 보통은 ○세, ○세 하는 식으로 어느 나이의 사람이 좋지 않다고 심방이 말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자들은 곳이 끝나기를 기다려 심방에게 부탁해 따로 액막이를 하고 산을 받아보는 것이다. 심방은 개인별로 어떠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굿하고 나서는 바다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다. 이상하게도 일주일까지도 바다가 깨끗한데 여드렛날 굿하고 난 후 아흐레날에 바다에 들어가면 물 아래가 왁왁한다. 물 조류가 이상하게도 말이다. 물 조류가 바뀌는 시기인 모양이다. 잠수굿 다음날은 대부분의 경우에 물 아래가 왁왁해서 밑에 내려가야 물건이 보인다. 보통은 그 정도면 무서워해야 하는데 굿한 다음에는 그래도 그 물에서 물질해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굿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굿은 일 날 것을 본향, 조상이나 요왕에서 막아 줬다고 생각한다. 지드릴 때도 마찬가지다.”(이형자 씨 인터뷰 내용)

2) 해산물의 풍요

(1) 요왕세경본풀이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물의 발뿐만 아니라 바다발이라 하여 바다에까지 농사의 개념을 연장시켰다. 땅에 발이 있는 만큼 바닷가나 바닷물 속에도 발은 있어, 미역이 많이 자라는 곳을 두고 ‘메역밭’이라고 하거나 자리돔이 많이 잡히는 곳을 ‘자리밭’이라고 한다. 그리고 물의 발들이 어느 한 사람 몫의 일터라면 바닷가나 바다 속에 있는 바다발들은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바닷가 마을 사람들 공동의 발이며, 이런 발들에는 이름이 있게 마련이다.⁶⁰⁾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해안마을이면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다발에 풍요를 주는 신이 어떤 신인가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동김녕 잠수굿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원대상이 용왕이다. 잠수굿과 관계있는 성세깃당의 당신도 ‘요왕황제국 말жат아들’이다. 따라서 바다발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 용왕에 속해 있는 ‘요왕세경신’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다.

60)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p.131.

“우리는 바다밭에 있는 요왕세경신과 관련 있다. 세경신을 청해서 기도한다. 요왕세경신은 요왕에 소속된 팀이다. 동경국에 대왕 세경국 부인. 굿할 때 세경본 폴 때도 조부일월 상세경 신중 마누라님, 요왕 상세경 신중 마누라님 그렇게 구분 됐다. 상세경 신중 마누라님은 산질 물질이니까 이 해녀굿을 하면 이제 오곡씨를 나게 해 준다. 요왕과 요왕세경신이 해산물을 준다.”(문순실 심방 인터뷰 내용)

잠수들은 바다에 용왕이 있고, 바로 이 용왕이 해산물의 풍요를 주는 것이며 더불어 바다밭에서의 무사안전까지도 보장한다고 한다. 즉 잠수들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2)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요왕신과 요왕세경신 등의 신들이 내리는 길을 치워 맞아들이고 그 신을 잘 대접하여 보내는 의미이기에,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깃들여 있다. 앞서의 해상 무사고를 기원하는 의미는 물론이고 요왕과 요왕세경신이 바다밭을 잘 보살펴주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사진 IV-3> 참고)

<사진 IV-3> 요왕맞이



(3) 씨드림, 씨점

해산물의 풍요와 관련해 잠수곳의 후반부에 씨드림과 씨점이라는 제차가 있는데 풍요를 바라는 잠수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씨드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잠수 2명이 선정되는데,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부정을 타지 않은 자 중에서 자원하는 이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동김녕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씨드림을 단골로 맡아 오는 잠수들이 있다. 그들은 좁쌀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심방의 서우젯소리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다같이 춤춘 후에는 심방은 대양을 들고 잠수 2인은 바구니를 든 채로 밖으로 달려 나가며 바닷가 모든 부분에 좁쌀을 뿌린다. 이때 일정한 양이 일정한 지역에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다들 신경을 쓴다.

이렇게 바닷가를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잠수가 남아 있는 좁쌀을 가지고 돛자리 위에 뿌리면 심방이 점을 친다. 돛자리는 씨점을 하는 그 순간 심방과 잠수들의 눈에는 동김녕의 바다로 바뀌게 된다.

에 동경국으로 세경국에 씨 뿌리러 갑니다(삼촌 뿌립서). 세경국으로 동경국드레 씨 뿌리러 갑니다. 전복씨 뿌립네다. 오분자기 씨뿌립네다. 구쟁이씨 뿌립수다. 보말씨 뿌립수다. 뭉게씨 해삼씨 성게씨 ... 물토세기 우미 전각 ... 감태영 씨뿌립수다.(2003년 동김녕 잠수곳, 씨드림 중에서)

“초석(돛자리를 말함: 조사자 주)은 일종의 바다인데 동쪽에서 뿌리고 서쪽에서 뿌린다. 잘 뿌려야 한다. 내 머리에서 초석을 먼 바다, 중간 바다, 가까운 바다, 이웃 마을과의 경계선 등을 순간적으로 구분해서 점을 친다. 먼 바다의 물건은 태풍이 와서 해산물을 밀려오게 해 달라는 등의 식이다. 순간순간 머리 속에 떠오른다.”(문순실 심방 인터뷰 내용)

심방은 좁쌀의 밀집도나 퍼진 범위를 살펴보면서 바다밭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해산물들이 길하고 흥한지를 예상한다. 씨점에 집중하는 잠수들은 심방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마음속으로 바다밭을 어렵짐작하게 된다. 씨점을 통해 심방이 이야기하는 바다밭의 상태는 잠수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사진 IV-4〉, [그림 IV-1] 참고)

잘 들읍서 예. 우미는 지금 바당에 골고루 씨 뿌려졌수다 우미가 예. 우미는 골고루 해신디 지금 먼 바당에 예. 물건 어신 바당이 어디냐 허믄 한여 양. 한여광 석은빌

레 사이에. 그디 비었고 예. 또 가수 알아 예. 가수 아래 물가는 바다 물가는 바당은 예. 흐끔 조심협써. 그 바당은 가든 흐쓸 낫나 예. 경허고 어디냐 하든 이제 요 앞바당 예. 바로 요 앞바당에 이제사 어신 여가 생겼수가 어떻했수가?(잠수들이 서로 얘기를 함) 이 아래 먼 알바당에? 꺾바위도 예. 전에 어신 풀이 하영 남수다. 이 꺾바위들이 양. 전이 어신 풀이 비자작허게 나는데 양. 이 저 구쟁이씨들은 흐끔 부족허우다. 구쟁이씨가 예. 부족허고 오분제기씨도 쪼끔 부족허는데 예. 오분제기는 예. 어디가 많으냐 하면은 이제사 이 앞바당에 어디 여에 지금 오분제기 붙어먹는데 요 앞바당에 양. 견디 예. 올해는 막 한 바당은 양. 한 바당에꺼는 지금 바당이 무신 그물을 낚 한 바당에꺼 잡아뵈신가?(잠수들이 서로 소란스럽게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함) 거난 예. 먼바당에 물건은 이신디 자꾸자꾸 해녀들이 먹기전에 다른 사람이 먹어부는 거라마씨. 저 예. 서쪽 바당은 막 경계선에 도투지도 말앙 내뵈서. 이제는 양 서로가 서로가 먹당보난 이젠 막 몰람수다. ... 바당이 지금 예. 흥년이라 흥년 바당이 흥년. 겐디 꺾바위가 예. 지금 우미씨가 예. 어디를 막론하고 골고루 우미씨는. ... 툄씨도 비었던 해어도 지금이야 예. 쪼끔씩 쪼끔씩 전에 어신 풀들이 막 꺾바위로 비지작허게 나명 예. 올해는 흐끔 바당은 흥년들쿠다 솔직히 말해서. 그자 바당에서 망사리 골르고 대나 그자 무사고만 해여그네(“아이고 맞아 맞아”하고 잠수들이 맞장구를 친다) 올해 못 벌면 내년 벌고 이 물찌에 못 벌면 다음 물찌에 망사리 꺾득은 거고 그치룩만 생각협써.(2003년 동김녕 잠수굿, 씨점 중에서)

“바다를 해제하면 여름 때 금했던 바다에 풍년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알 수 있다. 씨점 할 때 결과를 보는 것과 같다. 씨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씨를 초석에 뿌리는 즉시 좁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점으로 다 보인다. 점을 치면 또 결과도 맞는다. 씨점이 한 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6~9월까지 금지됐던 것을 확인하는 의미도 된다. 동김녕은 해안에 양어장이 없어서 바다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김녕바다는 그래도 좀 풍부한 것 같다. 어쨌든 순간적으로 씨점을 통해서 판단한다.”(문순실 심방 인터뷰 내용)

씨점 후에는 다시 서우젯소리로 풀려 논다. 특히 여기저기 바닷가에 씨를 뿌리고 온 2인의 잠수들이 별탈이 없도록 서우젯소리로 풀려 주며, 다른 잠수들도 다같이 참여해서 떠들썩하게 노래 부르며 논다. 씨드림과 씨점은 일종의 유감주술적인 행위⁶¹⁾라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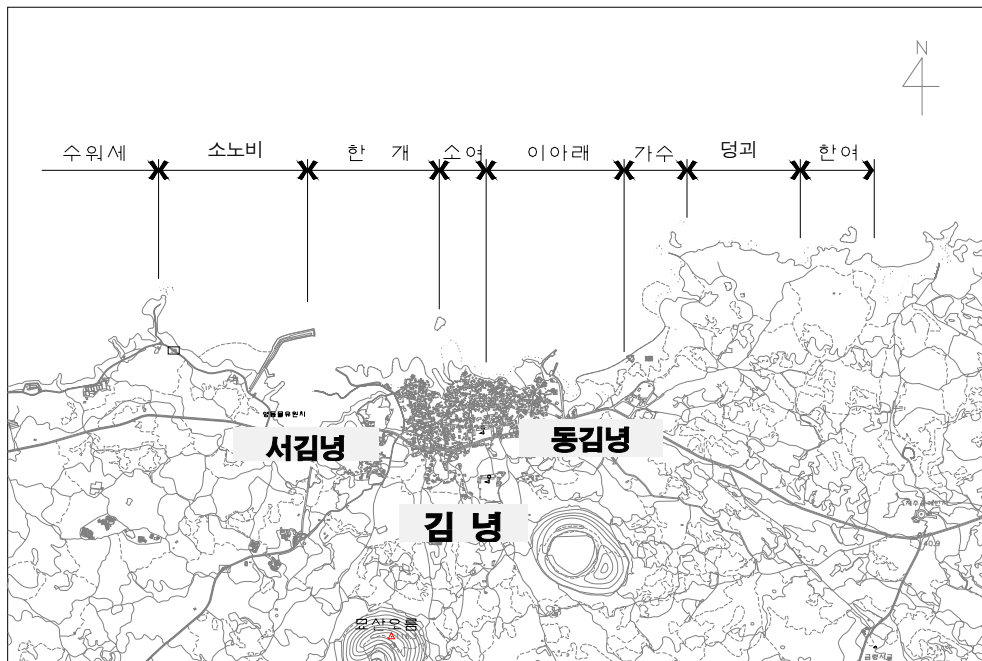
61) 현용준은 요왕맛이가 영신의례(迎神儀禮)이면서 기원유화의례(祈願有和儀禮)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씨드림·씨점은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것으로 규정했다. 즉 씨드림·씨점은 기원유화의례 내부에 있는 유감주술행위인 것이다. 조를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씨로 보고 그것을 바다에 뿌리는 것은 농경의례적 요소가 모태가 되어 그것이 어로의례에 적용된 것이겠지만, ‘類似는 類似를 낳는다’는 유감주술의 원리가 작용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의례 속에서 행해진 사항이 실제의 생활에 실현될 것을 기대

수 있으며, 잠수긱의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사진 IV-4> 씨점



[그림 IV-1] 동김녕마을의 바다밭



하여 행하는 의례가 유감주술의례이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pp.349~361.

3) 공동체의 유대강화

(1) 제물의 공동준비

앞서 제물마련을 언급할 때 설명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잠수국은 기본적으로 잠수회가 다같이 협동해서 일을 처리하고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낚하기 전날에 대부분 모여 제물마련을 위한 벧물질을 하는데, 2004년에는 총 104명의 잠수들 중에 70여명이 참여해 강한 협동심을 보여줬다.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일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높은 참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어촌계장과 잠수회장이 중심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사진 IV-5> 참고)

<사진 IV-5> 제물의 공동준비



잠수국에 공동으로 제물을 마련하는 모습은 김녕 큰당(본향당)의 본향당제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큰당은 70년대 이후로 예전의 큰곳에서 ‘얕은제’로 변화하면서 개별 의례화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향당제에 찾아오는 단골들은 다 저마다 개인별로 제물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당에 찾아와 제물을 진설할 때

도 다 저마다 개인별로 제단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⁶²⁾ 그러나 이에 비해 잠수굿에서는 아직도 공동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의 행사라는 사실을 잠수들에게 주지시키고 서로 연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잠수굿의 구체적인 전승과정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난다. 굿을 하는 당일 잠수들이나 방문객들이 먹을 식사준비 마련에는 보통의 잠수들이 다들 모여 준비하므로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젓상에 올리는 제물을 마련할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잠수들은 굿의 제물준비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드는 방법과 절차에다가 구체적인 제물의 형태나 개수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숙련된 경험과 특별한 정성이 요구되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굿당에 진설될 제물준비는 선정된 선배잠수와 대표 잠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책임을 맡은 대표 잠수들이 굿에 쓰일 여러 가지 물건을 마련해 오면, 선배 잠수들은 굿하기 전날 필요한 제물을 직접 만든다. 잠수회를 맡고 있는 회장과 총무나 동대표들은 일반 잠수들보다 제물마련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선배잠수들로부터 자문을 얻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잠수굿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중에는 젊은 해녀들도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나는 20여년 전에 윗사람에게서 배워서 제물마련에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내가 젊은이들한테 제물 준비하는 것을 다 말해 주었기 때문에 실상 젊은이들도 다 알아가고 있다.”(한중선 씨 인터뷰 내용)

“삼춘(선배잠수를 말함: 조사자 주)들이 다 가르쳐 준다. 원로하신 분들 뒤 이어가지고 다들 배운다. 웃어른들과 함께 동회장을 맡거나 여러 가지로 책임을 맡아서 함께 하다 보면 어깨너머로 다 배워지게 된다. 그리고 책임은 각 해녀들이 다 돌아가면서 맡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저절로 다 알아서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다. 어른들도 배워 놓아둬라 하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장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기재

62) 물론 분향당제 때 상단골이 간단하게나마 상을 차려가고, 마을 대표들의 부인들은 다른 주민들보다 더욱 정성을 드리고 제물에도 신경을 쓰고는 있다. 그러나 잠수굿처럼 마을 공동으로 도제상(都祭床)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의례화된 형태를 띠는 것은 사실이다.

되어 있어서 알 수 있다. 필요한 재료나 방법들이 다 전해 오니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나이든 삼촌들이 일일이 가르쳐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책임져서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워진다. 책임진 자리를 다같이 돌아가면서 하니 결국은 다들 알게 되는 것이다. 회장, 총무, 동회장 등 하다 보면 알게 된다. 단지 제물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려운 것이지, 시루떡이나 돌래떡 이런 것을 어떻게 얼마나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이 좀 어려울 뿐이다.”(이형자 씨 인터뷰 내용)

현재도 잠수굿의 준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힘을 보태고 있는 한중선 씨의 말이나,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잠수회 내에서 굿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굿을 맡은 문순실 심방이 그 어머니로부터 굿을 이어 받듯이, 잠수라는 단골들 또한 굿을 나름대로 세대를 넘어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잠수들은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음으로써 굿을 하는 동안 선배잠수들에게 굿의 준비나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그런데 잠수회의 대표직은 마을의 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맡게 되기 때문에 잠수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굿의 준비나 진행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잠수굿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지·전승의 노하우가 전승되고 있다.

또한 이 점은 잠수굿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심방과 단골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잠수굿처럼 공동체의 의례일 경우 단골집단 내부의 의례 계승과정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제주의 굿에 대한 연구는 본풀이라는 구비문학적 관점과 심방의 의례진행 측면에서 다뤄진 적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굿을 존재하게 만든 원동력의 한 부분으로서 단골들의 실질적인 의례전수·계승방법은 꼭 파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 분부사뵐

분부사뵐은 오전의 초감제와 오후의 요왕맞이 때에 모두 행해진다. 분부사뵐을 할 때는 어촌계장과 잠수회장과 일부의 잠수들이 모여 앉아 심방이 자신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심방은 한 손에 눈물수건을 잡고 말을 하고, 잠수들도 때때로 눈물을 훔치며 경청한다.(〈사진 IV-6〉 참고)

<사진 IV-6> 분부사뵐



분부사뵐의 내용은 여러 가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때와 장소에 따라 조심하라거나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감수하는 잠수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한 분부사뵐의 중요한 사항으로 잠수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화합하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촌계장과 잠수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지내야만 소원성취하고 아무 탈 없을 거라는 내용은 분부사뵐의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 의해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 분부사뵐은 신의 뜻을 전한다는 형식을 빌어서 강력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잠수들은 거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는 공동체의 유대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 혼술(어촌계장을 말함: 조사자 주)아, 신 다섯술(잠수회장을 말함: 조사자 주)아, 고맙다. 조상들이 저싱반 이싱반 문을 잘 열려 상을 잘 받아 사노랜 분무문안입고. 나 조순들 정성이 부족하여시민 무사 선몽을 시킴광 정성이 그득허난 벌써 깨우치 명 나 조순들랑 영현 일이 이시난 이결랑 영영 막곡 저결랑 정행 막으랜 해연 선몽을 시켜주난 문을 잘 열렵수다. 올해 열두 달 우미 물에나 바당물질 허는 조순이랑

멍심허라(다 막아줍서). 집이서 조왕에서 아침밥 해영 먹영 물질허래 나올 때 아픈
 조순이랑 그날 물질을 허지 말랜 해염구나(아이고 다 막아줍서). 조상이 어디시리
 해여도 구신은 쇠공쟁이 생인은 낭공쟁이난 므른발디 땅 곱으민 숨 쉬영 걸음 걷곡
 견당 버치민 자동차도 타주만은 바당은 깊이고 깊은 물 속이난 누게가 곱이 벗해영
 그 물건 해영 망사리에 놔 주지 앗으곡 나 조순들 배운 기술은 바당이난 싸우멍 틀
 으멍이라도 태왁 하나 의지해영 이 바당 가민 비온 날도 브름만 아니 불민 들어가
 곡 안개 낀 날도 들어가 물 알드래 들어갈 땐 므스와 배도 이 물질해영 나가사 허
 주 나오랑 보민 놈의 망사리 섭섭허곡 이녁 망사린 고득으민 웃음이 지곡 나 망사
 리 섭섭허민 온 몸이 노곤허곡 아파가민 약 먹으멍 이 물질을 허민 백년이나 허멍
 살멍 천년이나 허멍 살멍. 아이고 나 조순들아 사는 날까진 배운 기술이난 해여사
 될 일이고(다 막아줍서) 사는 날까지 물질허민 목숨은 이 바당에 띄와 놓아근 아이
 구 선왕님 배당 나갈땐 배에 의지허주만은 이녁만씩 떨어지민 태왁 하나 의지허여
 근(다 막아줍서) 숨이 꼬옥꼬옥 허민 진 한숨으로 태왁 의지 하나 해여 사는 나 조
 순들 돈은 벌민 얼마나 벌고 재산은 벌민 얼마나 벌리리야. 죽는날까지 고생을 허여
 사 될 일이고 물질하는 날까지 이일 해여사 될 일이란 나 조순들아 ... 니네 즈름
 좇아근 쉰 다섯술아 작년 훈 해 백명 넘는 지쌍 요왕더레 디리칠 적마다 아이고 우
 리도 조상님이 어디서 모르느니 니 혼자 드리치는 지를 받아근 나 조순 공히 주는
 쏘을 그냥 먹영가리 해연 나 조순들아 므른발디서 닌 니여 난 나여 싸워도 바당에
 서 조상을 도와준줄 니 공들인 덕으로 도왔구나. 올 훈 해도 도와주크메 걱정허지
 말라(다 막아줍서). ... 해상영업 편안시켜주마 나 조순들아(다 막아줍서). 쉰 훈 술
 아, 쉰 훈 술아, 그날 훈 돌부터 이걸 밥 먹어도 성더레 못 가는 나 조순아 올핸 운
 이 좋으난 니가 해녀들 잘 데령 허라 조상에서 도와주곡(다 막아줍서) 다 이녁므음
 인디 훈 어멍 훈 아방 난 애기도 다 성질이 틀리곡 싸움도 허는디 나가 김녕서 살
 멍 이런거 저런거 다 알앰땐 해여도 잘 들어들 봅서. 옛날도 집이 망허젠 허민 불턱
 을 두 받디 앗찌가민 벌써 집안 망해가는 거 돈은 무신 필요이시고 재산은 무신 필
 요이십네까. 백명 넘는 해녀들 불턱에 올 때 웃음 웃영오곡 올라갈 때 곱이 지쳐도
 웃음 웃영 올라가사 허주 나 조순들아 닌 니여 난 나여 등을 지지 말라 등을 지지
 말라. 아이고 너 훈 곳이 지어가민 니네들 조들아진다. 우리 조상들은 속이 업고 생
 각이 업느냐. 니네들 물숨 먹으멍 아이고 어떤 땐 천원돈 만원돈 모두멍 일년동안
 살림살아그네 해여주는 거 받았가멍도(눈물을 수건으로 닦음) 나 조순들아(다 막아
 줍서) 하다 등을 지지 말아근 니가 잘헌 일이 이시나 나가 잘헌 일이 이시나 훈 발
 자국만 뉘우치라. 죽어불민 땅 속가민 무각무각 썩어볼 몸천이여. 아이고 이 사람
 아니보젠 독허게 돌아삿당이라도 뒷날 봐지민 말 ㄱ라지고 얼굴 보아진다. 나 조순
 들아 불턱에 아지는데 불턱을 훈받더레 모디칩서. 이 웃어른덜 이시난 옛날 영혼들
 도 오란 한숨을 쉬멍 옛날 동서김녕 해녀들도 영해당 모두쳐신디 아이고 유래어신
 일이여 어떻한 영 불턱에 두받디 앗찌근 나 조순들아 영 간장들 썩엄시니. 아이고

돈은 허민 이돈 지영 갈거가 가정갈거가(눈물) 나 조순들아 사름 죽인 사름도 옥강 매어졌당 반성을 허민 다 배껴더래 집더래 보내주는게 사름이 아니가. 사름으로 못할 일이 어디시니. 나 조순들아 깊이 깊이 깨우치라 깊이 깊이 이행허라. 불도 조심허라 처서님이 이 앞이 차를 세워시난 잘 알아들어 이 차더래 돈복허게 실영 보내어 주민 쉰 다섯님아 올핸 이 곳 허영 조상덕에 큰일허거들랑 멍년 나거들랑 고맙수덴 허영 회장직을 벗고대나 오랑 허랭 허곡, 일흔 넷님 나 조순들도 너무나 고마운 조순들이여 쓸 혼되도 정성이여 밥 혼직도 정성이여 돌래떡 사발사루 하나도 정성이로구나. 니네덜 우으로 넘는 일 이 어린 것들 송보젠 말앙 불턱에 앉는 날까지 삼춘네건 나 조개야 훌묵심영 해염시라 허민 조상에서 물숨 먹을 일을 건어주마 건어주마 해연 분부문안 입고. 쉰 혼 술아 쉰 혼 살아 오늘로 조상님들안티 다 고맙수덴 허라 고맙수덴 허라. 쉰 혼 술 어촌계장 이땅 요왕 질칠때랑 백명 올은 해녀들 울어근 어촌계 간사까지 잘 해영오민 조상들은 정월둘에부터 해녀들안티 등을 지영 애돌릅더라만은 어데 무쇠술에 화소역 먹는 나 조순들 배고파 밥 먹으면 배분줄 아는 나 조순들 송을 보리야. 돌아상 반성허는 나 조순들아 백명 넘는 조순 거늘좌 주마 거늘좌 주마. 나 조순들아 불턱을 모디치라 모디치라 모디치라 후회될 일 이신다 후회될 일 이신다. 조상이 어디 이시랜 해어도 나 조순들아 웃대가 잘 못허민 조순에 대가 끊어지는 법 당대에 부랑허고 당대에 죄가 지민 당대 조순에 망허고 흥허고 영허는 일 아니 보암시나. 나 조순들아 우리 조상들도 니네안티 먹영가는 거 너무 미안허다 미안허다. 니네들 편안허영 망사리 ㄱ득 양식장에도 망사리 ㄱ득행 돈 허영 탕 웃음 웃어서 우리도 아이고 영 허난 나 조순들 일년 영도 큰긋허영구나 해영 우리도 지꺼정 춤추명 오랑 먹영 갈 거난(다 막아줍서) 나 조순들아 불턱을 모디치라 모디치라.(2003년 동김녕 잠수굿, 요왕맛이의 분부사ړ름 중에서)

(3) 서우젓소리⁶³⁾

서우젓소리는 곳에서 자주 불리는 노래로, 잠수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은 누구나 그 가락에 익숙해져 있다. 고향에서 서우젓소리는 대부분 가사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가사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다. 그런데 가사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붙일 때라도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잠수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물질에 대한 애환과 살림살이의 고단함, 가정생활의 희노애락 등이 주로 표현되므로 서로의 삶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3) 서우젓소리에 대해서는 변성구, “제주도 서우젓소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6 참고. 한편 고향에서 불리는 서우젓소리에 대해 문순실 심방의 설명 이외에도, 서우젓소리를 비롯한 제주의 여러 민요들의 직접적인 연행과 관련해서 ‘민요패 소리왓’ 회원인 송정희 씨와의 대화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서우젯소리는 ‘매기는 소리(선창)’와 ‘받는 소리(후창, 후렴)’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라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서우젯소리를 부를 때 초반에는 심방이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가사를 먼저 부르면 나중에 잠수들이 집단적으로 받아서 이어가고, 또 후반부에 개개의 잠수들이 가사를 만들어 부른다고 해도 나머지 잠수들이 받아준다.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서우젯소리의 특성은 다같이 놀 수 있는 대동판을 형성하기에는 아주 제격이다. 거기다가 춤까지 곁들여지므로 다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사진 IV-7> 참고)

<사진 IV-7> 서우젯소리



원래 잠수는 많은 민요를 창출해내고 전승시킨 집단이다. 동력선이 없던 시절 노를 저어 거친 바다를 헤치며 나아가 물질을 하던 삶이 민요 속에 깊이 녹아 있다. 따라서 잠수와 관련한 민요를 살펴보면 ‘훈뱃잠수’라고 불리던 잠수들의 인생과 공동체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4) 지드림

앞서 해상무사과 부분에서 언급한 지드림과 같은 것으로, 다만 이 경우는 잠수회와 마을 전체를 위해서 도지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5) 도액막음과 도산받음

도액막음과 도산받음도 개인적인 액막음이나 산받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범위를 넓혀 잠수회와 마을 전체를 위해 하는 것이다.

(6) 참가자의 범위와 부조, 답례

포제도 마찬가지로지만 잠수굿을 할 때 마을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이 각각 부조를 하는데, 그 부조하는 이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잠수굿을 이미 하나의 마을의례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물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마을사람들도 부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일례로 장사나 사업하는 주민들도 잠수굿에 참여해서 기원하면 혹시 번창하거나 액을 막을까 싶어서 부조를 하고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물론 김녕마을 내에서도 잠수굿에 참가하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제와 더불어 가장 큰 행사라고 말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자의 범위와 부조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조는 결과적으로 잠수굿을 운영·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경제적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잠수굿의 전승에 일정 정도 기여한다. 따라서 잠수들도 부조에 대한 답례로 해산물(소라)을 각각 나눠주고 신경 써 준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 또 부조하는 이들은 그 이름이 제장에 걸려 열명의 대상이 된다.

2. 잠수굿 전승의 기반

하나의 전통적인 의례는 단지 의례 그 자체로 존재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어떠한 의례이든 간에 그것을 지속·유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같이 따라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의례를 진행시키기 위한 목적 또한 같이 전승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의례가 지속·전승된다고 했을 때, 그 의례를 유지시키는 제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관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의례의 변화과정과 나뭇의 유기적인 역동성을 드러내 주는 데에도 유용하다. 또한 그 의례가 일차원적인 단순한 신앙적인 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상황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김녕 잠수굿의 전승상황과 기반을 살피는 것은 제주도 잠수굿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동김녕의 잠수굿이 유지될 수 있었던 생명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나뭇대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잠수의 존재, 잠수회의 어업생산력 유지, 제일의 고정, 매인심방의 존재라는 네 가지 측면이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고 있음을 추출할 수 있었다.

1) 잠수의 존재

동김녕 잠수굿의 전승이 가능했던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당연히 잠수들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굿이라는 것도 결국 단골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보면 이는 아주 당연한 결과이다. 잠수들은 자신이 물질을 하는 한 잠수굿은 꼭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만 하면 물건이 있건 없건 물질을 30년은 할 것이다. 물질을 하는 한 굿은 꼭 해야 한다. 굿을 작게 한다 하더라도 굿은 꼭 해야 한다.”(동김녕마을 최연소 잠수 3인 중 한 명인 한○옥 씨(46세) 인터뷰 내용)

동김녕은 현재 104명의 잠수들이 물질을 계속하고 있다. 잠수들이 나날이 감소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지역은 아직도 잠수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잠수들에게 있어서 굿은 해마다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잠수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현재에 잠수들의 숫자가 미미하여 예전만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면 잠수굿의 전승기반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만약 잠수들의 존재가 거의 사라진다면, 개인별로 소박하고도 간단하게 지내는 개인 요왕맞이는 남을지 몰라도, 일정 시간 동안 마을 전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잠수공동체의 잠수굿은 존재하기가 어렵게 됨을 뜻한다. 실사 심방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하더

라도 곳을 의뢰할 단골이 없으면 곳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세대를 이어 곳이 전승되어야 할 기원자의 존재는 잠수곳의 전승기반에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숫자상으로 많은 잠수의 존재라는 측면 이외에도, 잠수곳에 대한 집단적인 참여도가 높은 점과 내부의 유지·전승 상황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때 잠수곳의 전승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잠수회의 어업생산력 유지

곳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곳의 규모가 크고 작은 간에 제물마련과 심방에 대한 보수, 그리고 각자가 인정을 거는 것까지 포함하면 제법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곳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처럼, 잠수곳도 잠수회의 공동기금이 매년 축적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요즘은 부조금도 비교적 적당히 들어오는 편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유지되어 왔던 데는 잠수회의 공동기금 조성이 큰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시대에 따라 곳이 변화하는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솔직히 곳이 종교적인 행위이기 이전에 이제는 적절한 자본이 들어가야만 하는 엄연한 경제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동김녕은 잠수들에 의한 어업생산력이 현재도 유지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요즘 해양자원 고갈과 오염이라는 환경변화로 인해 옛날만큼은 좋은 수입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물질로 인한 수입이 꽤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제주시 수협관내에서도 김녕어촌계의 수입은 상위그룹에 속한다. 그런 김녕어촌계의 재정상황에 잠수회의 물질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잠수회 자체적으로 어업생산력이 뒷받침되니까 자신의 의례를 스스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부조를 받는다 해도 자신들의 비용으로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곳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3) 제일(祭日)의 고정

중요한 전승기반의 하나로써 고정된 제일(祭日)을 들 수 있다. 즉 동김녕마을에서는 그들 표현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음력 3월 8일이면 곳을 하는

날이라고 아주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일이 고정되다 보니 사람들은 매번 택일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을 뿐더러, 제일이 다가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가짐을 조심하는 근신자세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점은 다른 마을에서도 제일이 정해져 있는 곳은 마찬가지다. 일례로 영등굿인 경우 당(堂)에 영등제일이 정해져 있는 곳은 제일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승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마을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정월에 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등달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날을 택일해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⁶⁴⁾

한편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음력 3월 8일이 물질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물질은 조금⁶⁵⁾일 때부터 시작되는데 굿의 제일이 물질시기와 관련이 있다. 동김녕의 물때는 조금이 음력으로 8일과 23일이며, 따라서 한물은 9일과 24일이다. 날씨가 맑았다면 보통 다섯물 정도까지는 물에 든다. 그런데 굿의 제일과 관련해 8일부터 조금이 시작되는 날이며, 실질적으로 6일부터 물질할 수 있는 바다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동김녕의 잠수굿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매인심방의 존재

잠수굿의 전승기반에는 매인심방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제주도의 각 마을마다 매인심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다. 따라서 매인심방이 없는 경우에는 심방을 다른 곳에서 불러와야 한다. 불러오는 심방이라도 계속 같은 심방이

64) 정월에 잠수굿을 하는 경우로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를 들 수 있다. 신흥리 잠수굿은 정월의 포제일시와 같다. 즉 마을에서 포제일시를 택하면 잠수굿도 그날 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포제를 지낸 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다. 2005년에는 2월 20일(음력 1월 12일)에 어촌계 창고에서 지냈다.

한편 영등달이라 하더라도 택일해서 하는 경우는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의 경우이다. 가파리는 또한 짝수해에만 격년제로 굿을 하고 있다. 가파리 잠수굿은 지난 2004년 3월 8~10일(음력 2월 18~20일)까지 3일 동안 어촌계 해녀탈의장에서 벌어졌다. 또한 성산읍 신양리에서는 음력 2월 15일에 영등이 나가고 난 후 음력 3월이 되기 전에 택일하여 잠수굿을 하고 있다. 신양리 잠수들은 영등이 나갔으니 영등굿이 아니라 잠수굿이라고 생각한다. 성산읍 신양리 잠수굿은 2005년 3월 30~31일(음력 2월 21~22일)에 어촌계 해녀탈의장에서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65) 조금이란 물이 들지도 싸지도 않을 때를 가리킨다.

오게 되면 나름의 일관성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데, 잠수굿을 할 때마다 심방이 바뀌게 되면 굿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⁶⁶⁾ 그런데 동김녕은 매인심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다. 심방 역시 같은 마을에 살면서 평상시에는 서로 ‘삼촌-조카’식으로 마주 대하다가, 잠수굿을 할 경우에는 심방으로서 굿을 집전한다. 심방도 같은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게 되고, 잠수들도 심방이 자신들의 평소 상황을 잘 아니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김녕에서 무업(巫業)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심방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잠수굿을 맡고 있는 문순실 심방의 말에 따르면 김녕의 심방은 황씨→임씨→이씨→①이씨 하르방→②임씨 할망→강씨→③한씨→④김씨(김○보), 문씨(문춘성)→⑤김씨(김○보), 문순실 심방(번호는 조사자가 편의상 부여한 것임)의 순서라고 한다. 이 가운데 지난 약 1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김녕 잠수굿이나 당을 매었던 심방을 중심으로 계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위의 ①이씨 하르방이라는 심방은 이달춘(李達春) 심방으로 ②임씨 할망과 서로 부사이다. 이들은 ‘눌굽이 하르방·할망’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①이씨 하르방이 먼저 사망하자 ②임씨 할망이 이어서 했고, 결국 임씨 할망이 죽자 그 다음으로 김녕의 매인심방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③한옥녀 심방이다. 한옥녀 심방은 임씨 할망이 죽으면서 명두를 이어받은 소위 수양딸이었다. 그런 한옥녀 심방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사위인 ④김○보 심방에게 매인심방의 지위가 넘어갔다.

그런데 이 김○보 심방에게 자격이 넘어가던 시기에 김녕 매인심방의 역할에 한 번

66) 예를 들어 대정읍 가파리의 잠수굿을 들 수 있다. 가파리는 격년제로 짝수해의 음력 2월에 잠수굿을 한다. 2004년에도 잠수굿이 행해졌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까지 거의 가파리에서 잠수굿을 맡아 해 주던 제주도 심방을 그 해에는 데려올 수가 없어서 다른 심방이 굿을 맡아서 했다. 그런데 이 심방은 예전에 한번 가파리에서 잠수굿을 맡아서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제주도 출신이지만 굿은 육지식이었고, 그를 따라온 소미들도 육지출신들이었다. 여기서 이러한 사례를 접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본다. 첫째, 매인심방의 유무가 굿의 안정적 전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둘째, 단골은 전통적인 제주굿에 익숙하고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심방은 단골의 정서와는 다른 형태의 굿을 선보였을 때 주민들 정서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결국 굿의 효용성의 극대화 문제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가. 셋째, 제주도식이든 육지식이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가파리 잠수굿의 연혁상 나름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화가 나타난다. 한옥녀 심방까지 이어질 동안에는 매킨심방의 역할이 김녕에 있는 삼분향을 매는 것 이외에 마을의 잠수굿 또한 맡아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김○보 심방으로 넘어 가는 시기에 마을의 당을 매는 심방과 잠수굿을 하는 심방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 이원화 된 것이다. 즉 김○보 심방이 삼분향을 맡기는 하였지만 잠수굿까지 맡지는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김○보 심방의 부인은 김녕사람이었지만, 김○보 심방 자체는 김녕 사람이 아닌 삼양사람이었고, 게다가 한옥녀 심방의 직접적인 아들도 아닌 사위였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내가 회장 때였는데 굿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되었다. 회장이 (굿을) 책임지라 심방(구하는 것)도 책임지라 해서 잡을 사람은 없고 생각 끝에 이젠 안 되겠다 싶어 순실이어머에게 가서 이제 굿을 맡아줘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순실이어머가 굿하다가 순실이한테 물려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대경이사위(김○보 심방을 말함: 조사자 주)에게 굿을 줄까말까 하다가 굿을 안 줬다. 외방사람이고 아들도 아니고 사위인데 굿을 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냐고 해서 우리는 여든이어머를 잡은 것이다. 대경이각시(한옥녀 심방을 말함: 조사자 주)는 사위에게 굿을 줄까 했는데 잠수들이 외방사람인 사위에게 굿을 주지 않았다. 여든이어머는 육지에서 오랫동안 살긴 했지만 원래 고향이 김녕이고 신랑도 김녕사람이었다. 여든이어머에게 굿을 준 때가 내가 50세쯤 됐을 때이다. 그로부터는 매해 굿을 했다. 그러니까 한 25년쯤 전이다.”(한중선 씨 인터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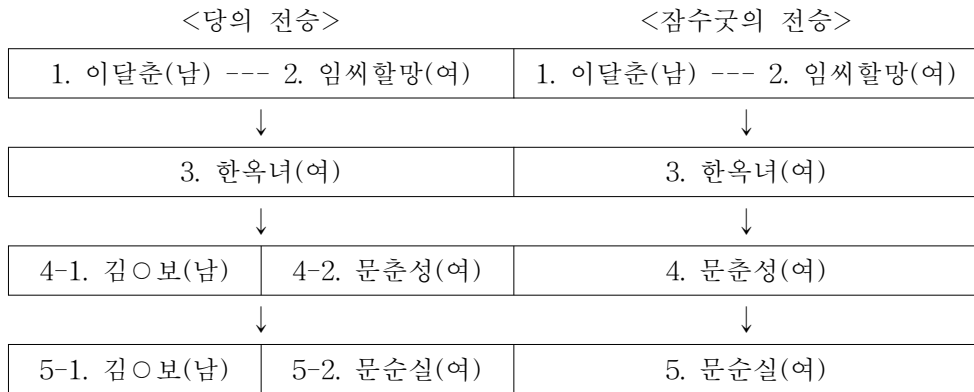
잠수들로서는 이왕이면 김녕사람에게 굿을 맡기고 싶었고, 꼭 김녕 출신이 아니어도 최소한 김녕에 거주해야만 한다는 나름의 조건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잠수굿 만큼은 당시에 마을 내에서 같은 심방일을 하고 있던 문춘성 심방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문춘성 심방은 김녕 출신으로 육지부에서 살기도 했었지만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당을 매는 것과 잠수굿을 맡는 것이 두 명으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잠수굿을 맡는 심방도 나름의 매킨심방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위 삼분향도 김○보 심방 혼자서 다 맬 수가 없고 조금은 나누어서 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매킨심방의 역할에 변화가 생겨 당은 김○보 심방이 중점적으로 맡되, 제일별로 다른 심방이 같이 나누어서 참여하는 식으로 변화됐고, 잠수굿은 문춘성 심방이 단독으로 가져가게 됐다.

이는 이제까지 당과 잠수굿을 함께 맡던 관행에 변화가 생긴 것을 뜻하고, 이 과정에서 심방 선정에 단골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당과 잠수굿 사이에 매인심방이 이원화되는 과정에 나름대로 잠수들의 심방선택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지난 약 1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김녕에서 당을 맨 심방과 동김녕 잠수굿을 맡는 심방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1→2→3까지는 변화가 없었지만 4부터 이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V-2] 참고)

[그림 IV-2] 김녕리 매인심방의 계보와 변화 양상



cf. 문○덕 심방

매인심방의 존재는 잠수굿의 안정적인 전승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굿의 제차, 본풀이(신화)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될 수 있었고, 심방이 마을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잠수회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별로 생기지 않게 된 것이다.

5) 기타

동김녕 잠수굿의 전승상황과 그 기반에 다른 요소를 추가적으로 찾아본다면 구좌읍 일대가 제주도 다른 지역보다도 무속신앙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겠다. 인근 중산간에 있는 송당본향당은 제주도 당신앙의 원조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함

신앙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김녕리 윗부분 중산간 지역의 마을들뿐만 아니라, 김녕리와 인접한 다른 해안 마을들도 아직까지는 무속신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잠수굿의 전승과정과 변화양상

무속신앙은 끊임없이 견제를 받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일제시대에 전통문화 말살이 이어지고, 이후 근대화·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우리 무속신앙이 미신타파의 대상⁶⁷⁾으로 낙인 찍혔으며, 더욱더 시급히 없애야 할 장애물로 인식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한편 최근 들어서 이런 일련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서서히 전통에 대한 재조명 또는 재해석을 시도하는 움직임 역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재 정책적인 측면 혹은 이른바 민중운동적인 측면이든 재해석에 대한 관점과 주체는 저마다 다르게 표출되었으나, 어쨌든 이를 통해 예전에 비해서는 무속신앙을 포함한 전통문화를 우리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잠수굿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미신타파의 대상에서부터 가장 제주적인 문화요소로까지 그 스펙트럼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펼쳐져 왔다.

그리고 잠수굿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잠수굿 역시 시대의 틀에 따라 자신의 모양을 변화시키면서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무속신앙에 대해 각각의 시대가 형성해 낸 이른바 ‘담론’⁶⁸⁾은 바로 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동김

67) 최길성은 미신의 意義, 미신타파 운동의 전개, 근대화와 미신타파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예를 들어 고찰한 바 있다. 미신타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길성의 “迷信打破에 대한 一考察”, 『한국민속학』 7, 민속학회, 1974 참고.

68) 김성례는 아끼바의 식민담론, 민족담론, 민중문화담론 등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무속 전통에 대한 담론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속이라는 문화적 범주에 한정지워 현대생활의 유토피아적인 대안을 창출하거나, 혹은 전통의 원류로 화석화시키거나, 이미 그 전통적 삶의 고유한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농촌(민) 사회를 모델로 한 상상의 공동체를 계속 추상적으로 재생산하기를 멈추고, 무속현상과 문화를 실제로 구성하는 사람들, 그

녕의 잠수곳에 각인되어 있는 시대의 담론을 읽어내는 것은 잠수곳이 어떻게 시대와 타협 또는 대결하며 전승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동김녕마을에서 실제 잠수곳을 어떻게 진행, 유지, 존속시켜 왔는지 알아보아야 할 차례다. 더불어 잠수곳의 구체적인 전승과 변화가 시대적인 흐름과 어떻게 호흡하며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동김녕 잠수곳을 추적할 수 있는 지난 100여 년간의 시기를 생각할 때, 잠수곳의 전승과정의 시기적인 구분을 크게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려고 한다. 왜냐하면 잠수곳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담론의 변화과정이 특히 1990년대를 기준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잠수곳을 주관하는 잠수들의 곳에 대한 참관정도나 기타 내부 상황도 이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1) 1990년대 이전

사실 1990년대 이전이라고 시기구분을 했지만, 1990년대 이전이라는 그 속에도 많은 사회적·문화적 층위들을 내포하고 있을 작은 시대의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전의 잠수곳은 간단히 말하면 일제시대와 ‘4·3 사건’⁶⁹⁾, 그리고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미신타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선 최길성은 일제의 미신타파 정책을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學務局이 중심이 된 神社·神道政策이며, 둘째는 警察局이 중심이 된 取締行政이고, 셋째는 社會課가 중심이 된 사회교화운동으로 완전히 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⁷⁰⁾ 또한 해방이 된 후에는 제주현대사에서 큰 상처를 남긴 ‘4·3 사건’으로 인해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주체들(real-life subjects)의 일상의 세계라는 맥락에서 그 변화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무속의 동시대성(contemporaneity)에로 연구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p.238.) 김성례, “무속전통의 담론분석”, 『한국문화인류학』 22집, 1990 참고.

69) 제주 4·3은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으며,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지금도 계속적인 조사와 위령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4·3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끄적했던 역사적 기억을 지닌 채 숨죽이며 살아왔던 제주사회에서 오랫동안 유폐됐던 용어를 그대로 빌린 것이다.

70) 최길성, 윗 글, p.52.

한편 1950년대는 기독교가 국가 비호를 받으면서 급속히 성장하던 시대였고, 무당을 ‘미신업자’로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강화된 학교교육은 무속의례를 더욱 대중의 생활로부터 밀어내었다. 특히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음주, 도박, 관습 일소와 미신타파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신당파괴가 진행되기도 했다.⁷¹⁾ 또한 관제 전통문화를 유포함으로써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려 했던 1980년대 역시 무속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시각은 다를 것이 없었다.

물론 국가가 정책적으로 문화재 보호나 전통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일부에 대해 지정·보존·복원·전승 등의 움직임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무속전통에 대한 온전한 접근이 아니라 종교적 측면을 거세하는 등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⁷²⁾ 동시에 미신타파운동이 워낙 강력한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분위기 또한 자유로이 굿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한마디로 잠수굿은 부정적인 시대흐름과 격동의 사건들에 휩싸여 유지와 전승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정담론의 시기는 굿을 미신타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제 굿을 하지 못하게 했고, 교육 등 여러 가지 선전활동을 통해 부정적 담론을 광범위하게 주입시켰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정체성 부정을 경험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후손세대와의 정서적 단절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굿을 못하게 된 결과로써 주민들은 실제로 개인에게나 마을에 여러 가지 액운이 닥쳤다고 믿고 있다. 잠수굿에 정통한 원로잠수 한중선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녕에 일제시대 전부터 굿은 있었다. 일제시대 때 못 하게 하니 실제로 굿을 못 했다. 일제시대에 굿을 못 하니 그때는 사람 많이 죽었다. 옛날에는 미역하나가 돈이 되었는데 물뭇, 속적삼 입고 했는데 하다 보면 추워서 김녕 사람 대여섯이 물에서 죽었다. 그래서 많이 죽었다. 굿을 못 한 기간은 내가 18~19살 때쯤부터 시작

71) 조성운, “산업사회의 무당”, 「전통과 현대」 6호, 전통과 현대사, 1998 가을호, pp.98~99.

72) 정부정책적인 측면에 대비해 하나의 저항운동으로 나타났던 민중문화운동을 주장했던 쪽에서도 역시 굿(무속의례)의 종교적 측면에 대해서는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성운, 위 글, pp.100~102. 참고.

해서 일제시대 끝날 때까지 못했다. 일본군인 가버리고 해방되었다 해서 이제 잠수들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다시 곳을 하기 시작했다. 4·3 사건 때에도 곳을 못 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도 곳을 못하고 해방되고 나서 잠깐 했다가 4·3사건이 나면서 또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이다. 사람이나 죽은 영혼이나 배부르게 먹어야 모든 게 편안한 거지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수가 많이 죽은 것이다. 곳을 못 하게 되면 확실히 잠수들이 물 속에서 많이 죽게 된다. 그래도 시신을 다 건져왔다. 그렇게 물 속에서 죽어도 시신을 못 건져온 적은 없고 다 건져올 수 있었다.”

물질을 하면서 전에 없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담론에 간혀 곳을 공개적으로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되었다. 매번 목숨을 걸고 물질하는 잠수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곳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급기야는 숨어서라도 곳을 관철시켰다. 동김녕에서도 소나무밭이나 굴 같은 장소에서 몰래몰래 보이지 않게 잠수곳을 치렀다고 한다.

“4·3 사건 후에 50년대에 다시 곳을 시작했다가 이후에 또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 동안 곳을 못 했다. 한 5~6년쯤 곳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한 것은 아니다. 소나무 밭이나 굴 속 같은 데에 가서 숨어서 간단하게나마 곳을 했었다. 제대로 못 해도 숨어서 하는 적은 했었다. 그러다가 순실이어멍하고 탈의장 옆 원래 곳자리에서 계속 곳을 한 것이다.”(한중선 씨 인터뷰 내용)

이런 사항으로 미뤄 본다면, 부정적인 담론이 형성되었던 시기에 잠수들은 물질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사망사고를 피하기 위해 해상무사고 기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곳을 비밀리에 거행하였다. 또 들키지 않고 재빨리 곳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을 생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승시킨 잠수곳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치러지는 약식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열명과 무사고 기원, 지드림, 액막음 등의 축원 사항이 간단하게 행해지는 형태인 것이다. 잠수들은 부정적인 시대의 틀에도 불구하고 잠수곳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형태로나마 곳의 모양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시절 잠수곳이 시대논리로 억압당하다가 다시 복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잠

수곳 당일 심방의 입을 통해서도 말해진다. 초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곳이 어떻게 탄압받아 왔고, 잠수들이 어떻게 다시 복원하고 관찰시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하는 것이다.

불휘없는 송애가 남니까 조상없는 조순이 이십네까 줌도 견으민 불휘로 견어사 그 치록 견영 나삽네다. 옛날 이 곳 시작허건디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일 요왕황제국에 말젓아돌이난 서울 연주문을 올리고 요왕개폐문을 올린 이 김녕 알성세기 밧성세기 촛지허난 상선 중선 하선 가는 선은 오는 선 촛지하고 줌녀들 숨비에기 소리 의지 허난 옛날 이당 설련헌 한씨 조씨 임씨 하르바님네 옛날 이 당 설련해였수다. 이 당 설련허난 해녀곳은 줌녀곳 삼월 초여드렛날 이 불턱에서 이 곳 해영오난 아무 때도 답답할 때난 왜정땀 당허난 곳 못허게 허여 가난 해녀들이 바당에서 사고 만나고 죽어가고 영허난 그때 해녀항쟁 일어난 이 곳을 막지 못 해연 그 후제로 해년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일인데 칠십년댄 다시 당허난 미신파탄이엔 곳 못 허게 해연 스님 데려단 곳 해영 가난 바당에서 물질허던 줌녀 기절허고 죽당 살아나고 바당 사고 나가난 다시 팔십년대 되난 나라에서도 곳도 허락허여가난 그때로부터 다시 대로 들런 이 공소 선양해연 이 때까지 요왕에 공들인 덕으로 바당에서 큰 사고 어시 넘 었수다. 작년 혼 해에도 이 바당에 사고 날 일을 어촌계장 동회장이 정성들연 이 곳 허난 해녀들 바당작업은 해어도 큰 사고가 어시 넘언 작년 혼 해를 일년을 무사히 넘겨주난 고맙수덴 해연 다시 이 원정을 올림수다 에.(2003년 동김녕 잠수곳, 초감제 중에서)

이런 내용은 해마다 잠수곳을 통해서 반복되어 말해짐으로써 동김녕 잠수회 내부에 집단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곳을 잃어버리거나 지키고자 했던 힘든 ‘줄다리기’는 잠수회라는 공동체의 역사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곳에서 자체의 내부 역사가 매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만큼 물질이 목숨을 거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곳곳하게 곳을 지켜내었다는 자부심도 확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잠수곳은 단순한 무속신앙 행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문화적 함의를 총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전에는 잠수회 내부에서도 아무나 잠수곳을 구경할 수 없었다. 모든 잠수들이 모여서 곳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실제 곳당에는 몇몇의 대표 잠수들만 참관해 곳을 진행했다. 이는 보다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동김녕 잠수들의 인식이었고, 따라서 곳을 구경하는 것은 매우 엄격해 대부분의 잠수들은 곳을 보기가 힘들었다.

“해녀들이 돈만 각출해서 내고, 준비과정부터 윗어르신들이나 책임진 사람들만 제에 참가해서 조용히 굿을 했다. 그런데 그게 공개되고 모두가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한 15년 정도 전부터이다. 김정수 계장님이 어촌계장일을 맡아서 할 당시인 1990년도쯤부터 굿을 볼 수 있었다. 그전에는 굿을 막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굿당에 가서 구경하거나 참여하게 된 것은 90년대 들어서부터였고, 그전에는 일부 어르신해녀나 책임진 사람 위주로 굿을 엄격하고 조용하게 지냈다.”(이형자 씨 인터뷰 내용)

“옛날에는 좀 더 엄했다. 지금은 여러 사람들 와서 구경하지만 옛날에는 제물 만들고 하는데 참석을 하지 못했다. 우리 해녀들도 제물 만드는 방에는 마음대로 못 들어갔다. 특히 몸에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은 더욱 더 그랬다. 딱 제물 만드는 할머니들만 들어가고 엄하게 했다.”(김정수 前 어촌계장 인터뷰 내용)

또한 1970년대 말 무렵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재래의 잠수복에서 현재의 고무 잠수복을 입게 되는 등 물질작업의 실제적인 환경도 많이 변화했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잠수굿의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1970년대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재래의 잠수복으로 물질을 했기 때문에 잠수회의 생산력이 현재에 비해서 적었으며, 공동작업도 80년대 들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으므로 현재의 재정상황과는 달랐다. 부조도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굿의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 일반 잠수들의 개별 각출금도 있었다.

2)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에는 우선 잠수굿 자체에 대한 일반 잠수들의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물론 현재에도 오전의 초감제를 할 때는 극히 일부의 대표 잠수들만 참여해서 하는 것은 같지만, 그래도 지난날에 엄격하게 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모습이다. 게다가 2004년 이후의 잠수굿은 굿당을 어촌계 창고 바로 앞에 마련했기 때문에 마당을 사이에 두고 음식을 준비하는 창고와 굿당이 마주 보게 된 셈이어서 더욱 그렇다. 굿당이 바로 지척에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조금 넓은 편이어서 공간도 넉넉해졌다.

한편 굿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조금씩 이루어졌다. 잠수들은 자신들의 굿을 자랑스

럽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부정을 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외부에 선뜻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부정을 타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외부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해신제를 제주도하고 전국에 알리자 하는 의미도 있어서 좀 개방을 했죠. 이거는 봐야 된다. 우리 해녀들만 알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 봐가지고 아! 김녕이 다 하면은 거기는 우리 해신제가 유명해가지고 뭐 만장굴이다 이런 것 보다는 해신제가 유명하다 이렇게 알게 해서 좀 개방을 시켰다. 해녀분들 이해시켜 가지고 말이죠.”(김정수 前 어촌계장 인터뷰 내용)

이처럼 지난날 미신타파의 대상이 되었던 곳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더욱 활발해지고, 중앙도 중앙이지만 각 지역의 지역문화 또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때마침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화요소를 발굴하고 다듬어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확립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관광 등의 경제적인 목표와도 맞아 떨어졌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방문해 관광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유산은 큰 매개체 역할을 했다. 그중 일부는 축제의 콘텐츠로도 변모하는 양상을 보였고, 전통문화 관련 장소는 대규모로 개발되어 말끔하게 단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학술분야의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전통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밖에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활발히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동김녕의 잠수굿도 예외는 아니었다. 잠수굿이 비교적 전승이 잘 되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제주의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행사라는 점은 선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제공한 셈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자연히 부조금도 증가하게 되어 잠수굿의 재정상황은 더욱 튼튼해졌다. 따라서 이제는 예전처럼 잠수들이 일정액을 조금씩 각출해서 굿을 하는 모습은 사라졌다.

“이렇게 풀어지게 된 때는 약 95년도쯤부터인 것 같은데, 거의 제주대학이다. 대학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허락을 했다. 학생인데 이거 안 해서 되겠느냐. 학생이다 하면은 좀 오고, 대학교수도 좀 오고, 서울서도 와서 한 3~4일간 와서 해 가고 이렇게 연구는 허용을 했다. 그 외는 좀 허용을 안 해 주고... 결국은 부조금이 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쯤부터였다. 90년대 중반쯤부터 지방자치제나 정치활성화나 각 마을의 문화유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해녀들이 각자가 조금씩 각출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부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김정수 前 어촌계장 인터뷰 내용)

지난 시절 냉대 받던 상황에 비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 이전 시기에 유포된 부정담론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 가끔 충돌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최소한 곶을 숨어서 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오히려 그 전통문화를 직접 확인하고자 몰려오는 사람들로 이제는 발 디딜 틈 없게 될 지경이 되었다. 한편 이는 곶 자체가 자연적으로 단골들과 교감하며 스스로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대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다시 긴장을 해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잠수곶은 살아 있는 무속의례다. 이미 존재가 사라지거나 박제화되어 단순히 재연하는 것이 아닌, 현재도 해당구성원에게 그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제 생업과 관련된 의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잠수들은 자신들의 의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동원한다. 그런데 현 시기 동김녕 잠수곶에 쏠리는 외부의 시선 때문에 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금기준수여부와 곶의 집중력 저하 문제가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자신들의 의례였기 때문에 자신들만 조심하고 정성을 드리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곶판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곶판에 들락거리며 곶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자체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잠수들은 곶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몸가짐을 조심하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보거나 행하지 않으며, 만약 상이 났다든가 하는 부정한 일이 예기치 않게 생기면 자진해서 잠수곶에 참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으로 인해 마을 전체의 잠수들이 참가하는 잠수곶에 부정이 생길까 염려해서다. 잠수들의 무사고와 해상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일에 어떤 부정한 요소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잠수들의 금기이며, 간단하지만 매우 정성이 들어가 있는 행동이다. 잠수들은 이런 금기의

설정과 유지를 정성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잠수곳의 효력을 더욱 배가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정성을 드리면 드린 만큼 되돌아온다고 인식한다. 목숨을 걸고 물질을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금기의 강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지 몰라도 어쨌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잠수곳의 신성성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동김녕의 잠수곳과 매희심방의 존재가 워낙 알려지다 보니 하나둘씩 학술연구활동 목적으로 아니면 사진이나 비디오촬영, 단순관광이나 구경 등의 목적으로 곳관에 외부인들이 끼기 시작했다. 문제는 잠수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자신들이 설정한 금기를 지키고, 잠수곳을 이해하면서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리 특별하게 괴로울 것은 없겠는데, 대부분이 방문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김녕의 잠수들이 곳을 참관하기를 희망하는 외부방문자들을 나름대로 판단하는 잣대도 있다. 그 잣대란 곳의 참관을 허용하는 것처럼 살짝 말을 흘려보아 그 의미를 외부방문자가 얼마나 알아채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방문자에 대한 신뢰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초감제 끝나면 들어왔다가 질치기 전에 나가라.”(한○일 씨 인터뷰 내용)⁷³⁾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잠수곳 제차(祭次)의 구성과 의미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여부를 묻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외부방문자에 대한 참관요청 거절 등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다. 앞서 잠수곳의 제차구성을 밝혔지만, 잠수곳은 크게 오전의 초감제와 오후의 요왕맛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초감제 끝나면 들어왔다가 질치기(즉 요왕질침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요왕맛이를 가리킨다) 전에 나가라’는 것은 실상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에 대한 외부방문자의 이해여부에 따라 잠수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아채 외부방문자라면 최소한 자신들의 곳에 부정이 생기게 하거나 곳의 집중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73) 2004년 잠수곳을 하기 전날에 본 조사자가 한 잠수에게서 직접 들은 말이다. 그는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 말을 했다. 주위에 있는 일부의 다른 잠수들도 동감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이 말의 함축하는 의미가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잠수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의 방문자들이 잠수곳을 이해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만든 금기를 지키는 지에 대해서도 불신하기 시작해 금기야는 출입 자체를 원천봉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거의 지배적이다. 자신들은 일년 내내 마음 졸이며 목숨을 의지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정성 드리며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그렇지 않아 화가 나는 것이다. 즉 부정 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다. 잠수곳은 잠수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구경꾼들이 한가롭게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잠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가는 대목이다. 실제로 일부의 방문자들은 월경이나 불경스러운 언어구사와 행동, 제장 분위기 혼란, 요왕질 어지럽히기 등등 곳을 보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금기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 곳판이 산만해지게 되므로 집중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잠수들은 매년 다음해부터는 외부방문자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노라고 열의를 다지지만 실상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외부방문자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그만큼 외부방문자들이 자신들처럼 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의지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곳판에서의 집중력 저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V. 제주도 잠수굿의 형태와 의의

1. 제주도 잠수굿의 형태

1) 제주도 잠수굿의 기원

제주도에 언제부터 잠수들이 생겨났고, 또 이들에 의한 물질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고고학 분야의 유물발굴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주변 해안해역에서 채취되는 보다 널찍하고 단단한 진복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도구로 화살촉과 반월도(半月刀)가 있다고 하니,⁷⁴⁾ 오래전부터 물 속으로 잠수(潛水)해 들어가 진복을 채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 문종대에는 탐라 구당사 윤응균(尹應均)이 대진주를 바쳤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잠녀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들의 생활상이나 중앙 조정에서 진상하는 해산물로 인한 폐해 등이 있었다는 기록⁷⁵⁾을 살펴본다면 그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잠수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잠수굿도 그런 잠수들의 존재와 함께 이루어지고 꾸준히 전승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원초적인 형태는 지금으로서는

74)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9, pp.183~184.

75) 이건(李健)의 「濟州風土記」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천(賤)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고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그 미역을 캐낼 때에는 소위 잠녀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해정(海汀)을 편만(遍滿)하며 낫(鎌)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 올리는데 남여가 상잡(相雜)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복을 잡을 때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복을 잡아다가 관가 소징(所徵)의 역(役)에 응하고 그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衣食)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의 간고(艱苦)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불렴(不廉)의 관의 있어 탐오지심(貪汚之心)이 생기면 명목(名目)을 교묘히 만들어 징색(徵色)하기를 수없이 하므로 1년간의 소업으로서도 그 역에 응하기가 부족하다. 하물며 관문에 수납(輸納)의 고통과 이서(吏胥)의 무간(舞奸)이 폐가 끝이 없으니 또 무엇으로서 의식의 자(資)를 바라리오. 이런 까닭에 만일에 탐관이나 만나면 소위 잠녀배(輩)는 거지가 되어 얻어먹으려 돌아다닌다고 한다.” 濟州道 教育委員會, 「耽羅文獻集」, 신일인쇄사, 1976, p.198.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각종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주에는 무속이 성행하였으며 섬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신에게 빌어 기원하고자 했다는 사실들은 당시에 굿이 일반적인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당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기록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⁷⁶⁾

그러므로 한 사람의 잠수이기 이전에 한 마을과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이미 당이나 굿을 통한 무속신앙 행위는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거기다가 물질을 하는 잠수였다면 분명히 물질작업과 관련한 신앙행위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작업 관련 신앙행위가 예전 시대에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개인행위로 하든 집단행위로 하든 오랜 시간 동안 전승되어 내려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잠수굿과 영등굿의 상관관계

잠수들을 위한 무속의례에는 영등굿도 있다. 영등신을 맞아 들여 하는 영등굿은 아직도 제주도의 많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잠수와 어부의 해상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잠수굿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등굿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짚어보아야 한다.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然燈’과 관련해서 ‘金寧’이라는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잠수굿과 여러모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영등굿의 의미와 형태, ‘金寧’이라는 기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다. 이러한 검토는 제주도 잠수굿의 실제적인 모습과 형태를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1) 영등굿의 의미와 형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와 있다.

2월 초하루에 귀덕 김녕 등지에서는 장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76) 김정(金淨)의 「濟州風土錄」, 김상헌(金尙憲)의 「南槎錄」, 이건(李健)의 「濟州風土記」, 이원진(李元鎭)의 「耽羅志」 등에서 당시 제주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다.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떼 모양을 말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악마희(躍馬戲)를 해서 신을 즐겁게 했다. 보름이 되어 끝내니 이를 연등(然燈)이라 한다. 이 달에는 승선을 금한다.⁷⁷⁾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然燈’과 관계된 의례는 귀덕 등지의 북서부 지역과 김녕 등지의 북동부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을 두고 기존의 선행연구를 진행한 현용준은 ‘然燈’이 곧 제주도 음력 2월의 풍속을 말하는 ‘영등’이라는 분석을 하였다.⁷⁸⁾

일단 제주도에선 전승되어 내려오는 영등에 관련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영등신은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배기섬에서 제주도로 내방하는 외래신이며, 시기는 주로 음력 2월 1일에 들어서서 2월 15일에 다시 나간다고 전한다. 영등신은 주로 영등할망으로 관념되고 있으나, 영등하르방이라고 표현된 전승형태도 있다. 아무튼 이 영등신이 오는 시기에는 바다의 소라나 고동 등이 텅 비어 있으며 도민들은 빨래도 하지 않고 배도 띄우지 않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영등신은 기본적으로 풍신(風神)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등신이 들어왔다 나가는 기간의 날씨 여하에 따라서 딸이나 며느리를 대동하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승되며 한 해의 풍흉을 예상하기도 한다. 영등신은 해녀가 채취하는 바다의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주는 신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어업과 농업을 포함한 생업전반에 걸쳐 풍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영등신앙은 비단 제주도에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육지부에도 영등과 관련한 민간신앙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홍석모의 「東國歲時記」에 이미 2월 풍속으로 영등이 거론되었다.

영남 지방의 풍속에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영등신이라 한다. 그 신이 무당에게 내리면 그 무당은 동네로 나돌아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투어 맞이하다가 즐긴다. 이 달 초하루부터 사람을 꺼려 만나지 않는데 15일 혹은 20일까지 간다.⁷⁹⁾

77) 又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然燈 是月禁乘船(「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 濟州牧 風俗條).

78)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참고. 이 논문은 1969년 「韓國民俗學」 창간호(韓國民俗學研究會)에 실린 것을 다시 수록한 것이다.

이능화는 「朝鮮巫俗考」에서 영호(嶺湖)지방 일대의 영동신(靈童神)에 대해 조선 정종(正宗)대의 실록과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 홍석모의 「동국세기(東國歲時記)」, 윤정기(尹廷琦)의 「동환록(東寰錄)」, 채제공(蔡濟恭)의 「번암집(樊巖集)」 등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개 영동신(靈童神)이란 영호(嶺湖) 지방 농가에서 받드는 신(神)이다. 이 신(神)의 기원(起源)은 각기 다르다. 혹은 영동군(永同郡) 지인(知印)[속명 通印]의 화신(化身)이기 때문에 영동(永同)이라 하였는데, 영동(永同)과 영동(靈童)은 음(音)이 서로 같으며 또는 경산군(慶山郡) 전동신(田童神)이기 때문에 영동(嶺童)이라 한다고 한다. 그 신(神)을 잘 받들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하여 농가에서 많이 신봉(信奉)하고 있으며 수많은 전파되어 있다. 또 속칭 영등신(靈登神)이 여아(女兒)를 데리고 하강(下降)하면 바람이 많이 분다 하며, 딸을 데리고 하강(下降)하면 그 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여 풍영등(風靈登)·우영등(雨靈登)이라 칭하기도 한다. 또 이 신(神)은 노염을 잘 타기 때문에 노염을 잘 타는 사람을 영등신(靈登神) 할미라 한다. 대개 그 신(神)을 할미[姑]라 칭한 것으로 보아 남신(男神)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참고해 보면, 백제(百濟) 무왕(武王)의 어릴 때 이름이 서동(薯童)이기 때문에 서동대왕(薯童大王)이라 칭하기도 하고, 혹은 말통대왕(末通大王)이라 칭하기도 했다. 영통(永通)과 영동(靈童)은 음(音)이 서로 유사하다. 이 서동(薯童)의 사실은 익산군(益山郡)에 있고, 익산(益山)은 근해읍(近海邑)으로서 영동신(靈童神)은 곧 영통신(永通神)이다.⁸⁰⁾

한편 송석하도 “風神考”에서 영등신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즉 영등신은 영동할만네·영동할맘·영동할마니·영동할마시·할마시·영동바람·風神할만네·영동麻姑할마니 등으로 불리는 신이다. 신앙형태상으로 생산에 관련된 農漁荒神이며 ‘可分性 有毒 妖氣 集成體’라고 할 수 있다. 또 특수한 것은 一洞里라든가 一郡이라는 대집단의 所崇 대상인 共同 致誠神이 아니고 一戶 所崇神인 가장 利己의인 신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글에서 물대[水竿]를 세우는 立竿民俗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⁸¹⁾ 그리고 영등신앙은 중부 이남의 동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⁸²⁾

79) 嶺南俗 家家祭神 名曰靈登神 降于巫 出遊村閭 人爭迎而樂之 自是月朔日 忌人物 不接之 至十五日或二十日. 洪錫謨 著·이석호 譯註, “東國歲時記”, 「朝鮮歲時記」, 동문선, 1991, pp.68~69.

80) 이능화 著·이재곤 譯, 「朝鮮巫俗考」, 동문선, 2002, pp.284~287.

81) 송석하, “風神考”, 「韓國民俗考」, 일신사, 1963 참고. 송석하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水

그런데 이렇게 육지부에 영등관련 신앙이 있다는 점은, 제주도의 영등굿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산물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육지와 문화적 관련 속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 물론 육지부의 영등신앙과 제주도의 영등신앙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육지부의 개인 所崇神이라는 성격에 비해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라는 집단의 숭배대상으로 나타나며, 게다가 직접적인 농업만이 아닌 어업과 해녀에 관련한 성격이 첨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⁸³⁾ 하지만 영등신앙이 중부 이남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제주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육지부의 영등신앙과 그 본질적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하자면 풍요를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성격은 공유하면서, 다만 영등신에 대한 의례를 행하는 규모나 방법 등에 있어서 육지부와 제주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제주도와 육지부의 영등신앙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 이제 제주도의 영등굿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주도 영등굿은 바로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굿을 말한다. 보통 영등굿은 2월 1일 영등이 들어올 때 하는 영등환영제와 보름 후 영등신이 나갈 때에 맞춰서 하는 영등송별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영등환영제에 비해서 영등송별제를 더 비중 있게 치르는 편이다. 현용준은 제주도 각 지역에서 치러지는 영등굿을 조사 보고한 바 있는데, 이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도 전체의 각 지역에서 골고루 행해지고 있는 형편임을 알 수 있다.⁸⁴⁾ 주로 해안마을이 더욱 많지만 중산간 일대에서도 간간히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영등굿에 대해서 해녀채취물의 증식제로서의 성격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어업일반, 농업, 바람의 피해 방지, 도외 출타인의 안녕 등의 효능에까지 확대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⁸⁵⁾

현용준의 조사는 1960년대의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도 각 지역마다

竿의 立竿民俗에 대해서 秋葉隆의 “巨濟島の立竿民俗(최철·설성경 역음, 「민속의 연구(I), 정음사, 1985)”을 참고할 수 있다.

82)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11>,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p.104. 지도 4-1(영등(風神祭)의 분포) 참고.

83) 장주근, “강인한 삶의 현장, 풍요에의 기원”,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83, p.96.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p.74. 참고.

84)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p.63 표 참고.

85) 현용준, 앞 글, p.74.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도 대다수가 전승되고 있는 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해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을 듯하다.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에 서 관심 있게 지금도 영등신을 위한 의례는 행해지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영등곳의 세부진행도 각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조사되었고, 그 제 차나 기본적인 사항 역시 잠수굿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일례로 기존에 조사 보고된 영등곳의 제차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천읍 북촌리 영등굿》⁸⁶⁾

- ① 삼천벵맷대 세움
- ② 초감제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연유닭음-군문열림-예명올림-비념-다음 제차로 넘김
- ③ 요왕맞이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연유닭음-군문열림-요왕질침-비념-요왕문 열림-나까도전 침-삼천군병질침
- ④ 씨드림-씨점-서우젯소리-도산받아 분부사림-지아림
- ⑤ 자손들 산받음-자손들 액막음-도액막음
- ⑥ 배방선

조천읍 북촌리 영등곳의 제차를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은 다른 곳의 영등곳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마을마다 각각 처한 사정이나 자신들만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가감되거나 추가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제주도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틀에서 동김녕 잠수굿과도 큰 차이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동김녕은 영등달에 하지 않아 영등곳이 아니고 일반적인 잠수 굿임에도 둘 사이의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초감제와 요왕맞이, 씨드림, 지드림, 액막음, 배방선 등을 기본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2)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 중 ‘金寧’과 관련한 검토

앞서 인용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는 영등신을 위한 의례를 김녕 등지에

86) 현용준, 윗 글, pp.67~68. 이 논문에서는 조천읍 북촌리의 영등곳을 주대상으로 하였다. 현재와 시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등곳의 제차를 살피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도 했다고 적고 있다. 옛 기록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옛 기록이 개인적인 의례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전도적인 민간적 풍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는 김녕에서도 영등달에 영등굿을 했다는 말인지 고민스럽다. 지금의 형태로 보아서는 김녕에서 영등굿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김녕에 영등신을 위한 의례를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으니 혼란스러운 것이다.

현재까지 동김녕의 잠수굿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모아 보면, 동김녕의 잠수굿은 영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제일도 음력 3월이어서 영등달과도 관계가 없다. 잠수굿과 관련되는 김녕 성세깃당의 본풀이에서 잠수굿의 제일을 음력 3월 8일로 못 박고 있는 것을 보면 잠수굿의 제일은 오랜 전통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본풀이가 누대에 걸친 전승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동김녕의 잠수굿은 영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현재 동김녕에서는 영등달에 잠수 개개인이 실제 어떻게 하는 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 잠수들의 공식적인 의례와 관련해서는 영등과 관련한 잠수굿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잠수굿의 제차 중의 하나인 <요왕세경본풀이>를 봐도 나타난다. 즉 바다밭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영등신이 아니라 요왕세경인 것이다.

동김녕의 잠수들은 영등달에 어떠한 의례도 하지 않는다. 보통 제주 풍속상으로 영등달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보편적인 일이긴 하지만, 다른 마을이 마을제로서의 영등굿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에 비한다면, 동김녕에서는 성세깃당을 포함한 삼분향이라고 불리는 각 당들의 제일에도 영등제는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개인별로도 특별한 의례를 예나 지금이나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순실 심방의 이야기로는 약 30년 전만 해도 배하는 사람들이 영등배인 짚배를 만들어서 띄웠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배하는 사람들만 하고 해녀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서김녕 사람들 모두 배를 타는 사람은 짚배를 띄웠는데 이것은 제주도 전체가 하는 것이고, 배를 타는 사람들은 영등달에 영등신이 강남천자국 등에서 오고 가니까 그때 배를 만들어 띄운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오래 전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 짚배 띄울 때도 심방 불러다가 크게 하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정성 드려서 제물 줌 차리고 간단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또한 문순실은 예전부터 영등달에는 영등할망이 들어오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영등달에 곳을 해야 하게 되면 영등신을 위한 뭇으로 영등상을 하나 더 놓아서 하기는 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살펴보자. 우선 현재 김녕에서 옛 영등곳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현재로부터 거의 500년 전의 옛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김녕에도 같은 의례가 있었을 수 있다. 당시 영등곳의 분포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보면 김녕 지역도 그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8~19세기 당시 제주의 고지도에 보면 김녕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인 속칭 ‘영등물’이 ‘연등포(延登浦)’ 등으로 표기⁸⁷⁾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명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옛 기록의 ‘金寧’이 현재의 김녕리가 맞다면 이는 김녕리 입구의 속칭 ‘영등물’ 지역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현재에는 영등관련 의례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아마 시대가 흐르면서 김녕에서는 영등곳이 점점 사라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본다. 근 500년이라는 시간은 무속의례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시간일 수 있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린 김녕이라는 기록이 실상 현재의 구좌읍 일대를 지칭하는 넓은 범위의 대명사로 쓰였을 지도 모른다. 김녕은 고려시대부터 현(縣)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일대를 김녕이라는 대표적인 마을 이름으로 통칭해서 말해질 개연성 역시 있다고 여겨진다.

87)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 濟州 『湖南全圖』, 濟州 『全羅南北道輿地圖』, 濟州 『八道地圖 <湖南防輿編>』, 濟州地圖, 濟州 旌義 大靜 『海東輿地圖』 등 제주 관련 고지도에는 현재 김녕리 입구 ‘영등물’ 지역이 연등포(延登浦), 영등포(迎登浦)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濟州의 옛地圖」, 1996 참고. 한편 영등포(迎登浦)에 대해서 고평민, 「제주도 포구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pp.62~64. 참고.

3) 제주도 잠수곳의 형태

일반적으로 잠수곳은 잠수들의 무사안녕과 해산물의 풍요를 위한 것이다. 제주도 내의 해안마을에서 아직도 잠수들이 물질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크고 작은 형태의 잠수곳이 열린다.

이런 잠수곳은 마을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중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음력 2월인 영등달에 영등굿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영등굿이 거의 잠수곳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김녕마을의 경우처럼 영등달에 잠수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기를 택해 잠수곳을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한 신흥리나 신양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등달에 하는 것에 비하면 그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어쨌든 영등달에 하지 않는 경우도 몇몇 있기는 한 것 같다. 이런 사례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변화된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잠수곳의 모습이 다 영등굿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잠수곳의 형태가 곧 모두 영등굿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은 제주도의 잠수곳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비록 영등굿이나 잠수곳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도 짐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수곳과 영등굿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제주도 잠수곳의 형태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제주도 잠수곳의 형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현 시점에서 거의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영등굿과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할 때 잠수곳이 가지는 특성이나 변별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영등굿과 잠수곳에 대해 정확한 구분을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둘 다 잠수들을 중심으로 어업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의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등달에 벌어지면 영등굿이고, 영등달이 아닌 달에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잠수곳이라고 불려왔다. 즉 영등굿이 곧 실질적으로 잠수곳이요, 잠수곳은 곧 영등굿의 변형이거나 아류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이는 둘의 성격이나 내용

이 기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영등굿이 대개의 경우 잠수(선주 등 어업종사자 포함)들을 위한 의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거꾸로 잠수굿은 곧 영등굿의 변형이나 아류로만 보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 즉 잠수들을 위한 굿은 영등달에 영등신을 맞이해 치르는 의례일 수도 있고, 영등굿과는 별개로 치러지기도 한다는 말이다. 물론 잠수의 물질작업에는 정신적으로 용왕이나 영등신이나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 잠수굿의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구분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등굿과 잠수굿 사이의 변별성은 없는 것일까. 각각의 굿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와 지점은 어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등굿과 잠수굿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성격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면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다밭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는 문제도 영등굿과 잠수굿을 구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잠수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주요 대상신이 어떠한 신이냐에 따라 굿에서 그 신을 위한 세 부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등굿에서는 당연히 영등신이 바다밭의 풍요를 관장한다. 그런데 굿에서 모셔지는 신들을 살펴보면 비단 영등신만이 아니라 용왕과 선왕(船王)이나 본향당신도 같이 청해질 뿐만 아니라 이들도 해상안전과 바다밭 풍요에 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영등굿에서는 모셔지는 대상신이 여러 종류이고, 각각의 신들을 위한 제차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잠수굿에서는 용왕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생각한다. 물론 동김녕마을도 본향신을 청해 들이기도 하고, 굿의 말미에 선왕을 위한 소제차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등굿보다는 용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며 바다밭의 풍요와 더불어 해상안전의 중심역할을 담당한다.

잠수굿에서 용왕과 관련해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자. 앞서 동김녕의 잠수굿에 <요왕세경본풀이>가 있다고 밝혔다. “요왕세경신은 요왕에 소속된 팀”이라는 문순실 심방의 표현처럼 요왕에도 여러 신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잠수들은 생각한다. 즉 용왕신에도 방위관념이 있어서 ‘동해청요왕(東海靑龍王)’, ‘서해백요왕(西海白龍王)’, ‘남해적요왕(南









海赤龍王), ‘북해흑요왕(北海黑龍王)’, ‘중앙황요왕(中央黃龍王)’의 다섯 용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요왕 휘하에 여러 관리가 속해 있고, ‘요왕부원국 삼체스 거북스제’ 등 사자(使者)인 차사도 달려 있다.⁸⁸⁾


또한 신양리 잠수굿에서는 <용올림굿>이라는 특별한 제차를 볼 수 있다. 이는 잠수들이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신양리 잠수들은 바다의 풍요를 주고 자신들의 해상무사고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용왕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인심방이 천으로 용의 가면을 만들어 쓰고 몸체를 길게 만든 모습을 한 후 감상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 용왕을 불러온다. 그런 후 바닷물이 빠진 모래사장 위에 엎드려 낮은 포복으로 기어 오며 용왕이 바다에서 나와 잠수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재현한다. 이 때 잠수회장은 치마폭을 벌려 그 위에 많은 인정(돈)을 걸고 대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잠수들이 쭉 둘러서 있게 된다. 한편 용왕의 입에는 여의주가 물려 있다. 여의주는 천문 2개와 상잔 2개로 형상화하며, 모래사장을 다 기어와 대기하고 있던 잠수회장에게 내뱉어 그 해의 운수를 점친다. 점괘에는 모두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노적’의 점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⁸⁹⁾ <용올림굿>이라는 제차는 잠수들의 기원대상, 기원내용 등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제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등굿과 잠수굿의 변별성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 살펴보자. 영등신을 위한 의례는 제주도의 해촌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에서도 그 흔적을 살펴 볼 수 있다. 일례로 중산간에 위치한 제주 신당의 원조라는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의 송당본향당에도 영등제일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영등굿은 원래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 등 전체적인 생업

88) 현용준, “濟州의 漁民信仰”,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pp.151~152.

89) 용올림굿의 4가지 점괘는 다음과 같다. ① > ② > ③ > ④의 순서라고 한다.

- | | | | | |
|------|-------------------------------------------------------------------------------------|-------------------------------------------------------------------------------------|-----|-----|
| ① 노적 |  |  | ○ 앞 | ○ 앞 |
| ② 청룡 |  |  | ○ 앞 | ○ 뒤 |
| ③ 흑룡 |  |  | ○ 앞 | ○ 앞 |
| ④ 백룡 |  |  | ○ 뒤 | ○ 뒤 |

 : 상잔 ○ : 천문

과 관련한 실상 그 범위가 넓은 제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영등굿이 주로 본향당 등을 비롯한 당의 제일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살펴봐도 그렇다.⁹⁰⁾ 당의 영등제일에는 잠수들을 비롯한 어업관련자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 모두가 찾아가고 있다. 따라서 당과 관련된 영등굿은 찾아가는 단골들을 보더라도 물질 만이 아닌 전체 생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영등굿의 성격에 대비해서 잠수굿을 살펴본다면, 잠수굿은 특정지역(해촌)에서 특정집단(잠수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련집단)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전문적인 영역(물질)을 관장하는 굿이라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잠수들은 평상시 마을 주민으로서도 다른 신앙행위에 참가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위험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의례를 만들어내고 오랫동안 전승시켜 왔기 때문이다. 또한 해촌 지역에서는 그물고사, 연신 등 각각의 크고 작은 의례가 다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행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해도 그렇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동김녕의 경우에도 그물고사 등 어업관련 의례들은 주체들에 따라서 다 따로 행해졌다.

만약 가정을 한번 해 본다면, 생업(농·어업 포함)풍요라는 영등굿의 형태와 해촌마을 잠수들을 위한 잠수굿의 형태가 각각 존재하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그 역할이나 기능이 사라지거나 좁혀져서 오늘날에는 영등굿이 내용상으로 잠수굿화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시절에는 전도적으로 행해졌다가 현재에는 영등굿이 거의 해촌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등굿과 잠수굿의 관계를 잘 고찰할 수 있다면, 동김녕의 사례가 영등굿과는 별개로 지난날의 전통적인 잠수굿의 흔적이 남은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주로 원래 영등굿의 형태로 잠수관련 의례를 치르는 제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동김녕의 사례가 특수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리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試論的)인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으며, 추후 꼼꼼한 현장조사와 심층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90) 제주도 칠머리당의 영등굿,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본향당의 영등굿, 하도리 각시당의 영등굿,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본향당의 영등굿 등은 모두 당의 제일과 관련이 있다.

2. 제주도 잠수곳의 의의

1) 생업활동과 신앙의례의 유기적 연관성

잠수곳에는 생업활동과 신앙의례의 유기적 연관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잠수들은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이면서 반농반어의 생활을 겸해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을 구성원으로서 분향당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당의 제일에 참가했을 것이며, 어업활동이 아닌 농경 관련 신앙행위들도 함께 했으리라 본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질은 다른 생업활동에 비해서 나잠어업의 형태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기에 그만큼 위험률도 높았다. 따라서 잠수들을 평상시 마을의 기본의례 외에도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신앙행위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잠수곳을 하게 된 동기는 잠수라는 한 개인과 불턱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무사안녕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숨을 담보로 물질을 하는 잠수들은 마을의 다른 생업활동을 영유하는 사람들과는 구분되고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무언가 더욱 깊은 정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참가자들은 잠수라는 하나의 동일성만 있으면 되었다. 당의 의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골들 사이에 위계 체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친족이나 성씨 구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즉 물질행위를 하는 잠수라는 하나의 생업집단을 위해 곳을 했던 것이다. 잠수곳은 잠수라는 하나의 생업인과 생업집단을 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잠수들의 생업인 물질은 일종의 직업과도 같은 것이다. 실제로 잠수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기도 한다.⁹¹⁾

“잠수곳을 하는 이유가 우리들이 해녀이고, 해녀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

91) 안미정은 제주해녀의 물질에 대한 인식과 제주해녀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논하면서 ‘부지런하고 강한 직업인’으로서의 면모가 있음을 언급하였다(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1998, pp.177~184.). 한편 권귀숙은 해녀라는 존재가 일본 식민자본주의와 가장 가까운 변경에 위치했던 제주도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집단은 조직의 경험과 임노동의 경험을 지닌 일종의 직업집단이라고 보았다(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1998, p.342.).

각한다. 해녀는 우리들이 목숨 걸어서 하는 직업이다.”(이형자 씨 인터뷰 내용)

“우린 양복 입는 직업이다. 검은 양복 입는 직업(웃음). 그 양복은 우리 말고는 아무나 못 입는다. 이 직업이 위험하고 목숨 걸고 하며 숨 안 쉬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굶을 하는 것이다. 무사안녕을 빌기 위해서다. 그것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하다.”(안○숙(48세) 씨 인터뷰 내용)

잠수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직업으로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는 여러 층위들이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전문적인 직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연스레 하다 보니 어느새 직업처럼 되어 버렸을 수도 있다. 설사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물질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제적 수입이 생기는 ‘별이’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물질의 직업적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은 계속되는 물질로 인해 만성적인 두통 등 잠수(潛水)에 따른 고질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있다. 잠수들의 상비약인 뇌선은 이미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감기가 걸리면 코가 막혀 숨쉬기가 불편하게 되니까, 물질작업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몸에 감기기운이라도 있을라치면 미리미리 약을 먹어 차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소위 직업병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현상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물질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잠수라는 존재가 제주 전통사회의 모습이기 이전에, 한번 바다에 들어 물질을 배우면 그 깊은 바다를 뇌리에서 잊을 수 없는 심리적인 이유 이전에, 물질은 이미 현실의 경제적 조건과 해촌마을내 잠수의 사회적 위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잠수들은 자신의 생업(직업)조건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수굿을 통해서 매해 반복적으로 잠수굿을 치르는 것이다.

2) 제주도 공동체문화 전승의 중심역할

제주도 공동체가 만들어내고 전승시킨 문화유산들은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전통적인 신앙행위 만이 아니라 신화(본풀이), 노동요, 생산민속기술, 역사유적 등등 유형·무형의 형태로 다양하다.

그런데 유형의 문화유산들도 나름대로 그 보존과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더욱 소외되어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제시대와 ‘4·3 사건’, 근대화와 산업화의 흐름, 환경의 파괴나 변화, 서구적 교육의 영향 등으로 무형의 문화유산 중에서 아직까지 현장을 바탕으로 그 전승이 유지되는 분야는 생각 외로 많지 않다. 혹은 전승이 이어지더라도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든 지경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잠수와 잠수굿은 독특한 위상과 전승력을 보여준다. 비교적 아직까지도 잠수들의 물질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와 더불어 잠수굿 또한 계속 전승되고 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잠수들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어, 언젠가는 잠수들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짐으로써 잠수굿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까지 잠수들이 만들어가는 잠수굿 만큼 전래의 생산양식과 그에 바탕을 둔 민간신앙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게다가 잠수굿은 잠수 개인별 의례를 통합하면서 공동체의 의례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잠수굿은 치르는 마을들의 사정에 따라서 매해마다 또는 격년제,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한다. 또 굿에 소요되는 기간도 1일이나 1~3일 등 마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마을의 규모나 잠수들의 숫자, 경제적인 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굿의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하든 잠수굿은 한 잠수를 뛰어 넘은 공동체의 굿이다. 더불어 물질을 하며 살아가는 잠수회의 집단 의식이자 연대의 장치이다. 그리고 굿에서는 물질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이 나열되며, 특히 굿의 막판에 서우젯소리는 다같이 어울리는 계기가 된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 지난 시절의 민속문화 현상 가운데 공동체 단위로 모여 하루 이상의 기간동안 집단적이며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는 모습은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일부 전승이 잘 되는 마을의 포제나 당제 등도 있다. 하지만 포제는 그 의미와 역할을 떠나 지나친 엄숙주의와 참여자의 제한 등으로 인해 땃힌 것을 한껏 풀려 놀리는 대동판이 형성되기에는 좀 분위기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당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일부 굿 형식으로 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점점 그 형태가 축소되고 있는 도중이거

나 아니면 벌써 개별 의례화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잠수굿 만큼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전승이 현재 별로 없다. 비록 잠수집단의 의례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잠수를 넘어선 마을 주민들의 전승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잠수굿은 제주도 공동체문화 전승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3) 마을굿으로 기능 확대

한편 잠수굿은 일단 잠수회가 중심이 되어 치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마을굿으로서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지 잠수가 물질만 하지 않고 농업활동도 겸해 하듯이, 굿을 할 때 잠수들에 관계된 내용만 축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족과 한 마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소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이전 시기 본향당제가 가지던 공동체의례가 많이 축소되거나 약화된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향당의 당제를 잘 유지하고 아직도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곳도 다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전의 당굿 형태에서 비념 형식으로 개인 의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잠수굿이 가지는 마을굿으로서의 기능은 더욱 커진다.

잠수굿이 가지는 마을굿의 기능은 동김녕의 잠수굿 뿐만 아니라, 조천읍 신흥리 잠수굿이나 성산읍 신양리 잠수굿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신흥리는 매해 정월에 택일해 포제를 지내고 나서 아침이 밝으면 곧바로 잠수굿을 한다. 잠수들은 잠수굿을 일단 자신들을 위한 굿으로 여기면서도, 포제를 지내고 나서 곧바로 굿을 하는 것은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마을제의 성격이 있어서 정월에 한다는 것이다.⁹²⁾

신양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양리는 영등신이 나간다는 음력 2월 15일에 신양리 본향당에서 영등굿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해 음력 2월 15일 이후에서 음력 3월 이전의 시기 중에 적당한 날을 택일해 잠수굿을 별도로 치르고 있다. 매향인 양정순 씨(73세)나 잠수들은 음력 2월 15일을 기준으로 영등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후에 하는 굿은 영등굿이 아닌 잠수굿이며 잠수들을 위한 굿으로 여긴다.

신양리에서 잠수굿 직전에 본향당에서 영등굿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잠수

92) 신흥리 어촌계장 김용규 씨(58세)의 설명이다.

곳을 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잠수들은 본향당의 영등곳에는 마을 사람들이면 모두 가는 것으로 자신들도 참가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목숨 걸고 물질하는 자신들을 위한 곳을 따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영등이 나가고 난 후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바빠지는 음력 3월 이전에 잠수곳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 두 해 하다보니까 약 25년 전쯤부터는 잠수들도 마을이나 한 가정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김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열명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열명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소액의 부조금도 내기 시작했다. 현재 해녀탈의장에서 곳을 하는데, 해녀탈의장의 한쪽 벽면이 전부 열명지로 가득 찰 만큼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남녀노소를 망라해 다 붙여진다.

이렇듯 제주도 잠수곳은 일반적으로 한 해의 초반에 잠수들의 무사안녕과 바다의 풍요를 용왕신을 주요 기원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무속의례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잠수회라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외연이 확장되어 마을곳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1. 연구결과의 분석과 정리

제주에는 잠수와 관련해 많은 유형·무형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전승되어 오고 있다. 지난날의 전통사회에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은 전승문화들이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잠수들의 물질과 그에 따른 문화들은 그래도 현재까지 그 생명력을 곳곳하게 보존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잠수와 관련한 전승문화들이 왜 비교적 그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물질이 아직도 극성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물질작업이라는 것이 극도로 위험스러운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잠수들의 노력이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잠수들의 정신적 신앙으로서 잠수굿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 있는 종교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잠수굿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의미들의 층위를 캐내고,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그 내부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동김녕마을에서 행해지는 잠수굿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신앙의례인 잠수굿과 단골인 잠수회, 매인심방이라는 삼각축이 온전히 살아 있는 동김녕의 잠수굿은 제주도 잠수굿을 이해하는 데에 실마리를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동김녕 잠수굿을 중심으로 해서 잠수굿과 마을 내 다른 신앙의례와의 관계, 하나의 잠수굿이 행해지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잠수굿의 제차구성, 제차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잠수굿이 전승·유지될 수 있는 기반에 대해서도 4가지 사항으로 추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잠수굿에는 비단 이런 고유의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내부의 움직임도 마땅히 다뤄져야 할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주도 잠수굿의 의미와 역할,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주도 잠수굿의 전체적이고 본래적

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유사한 작용을 하고 있는 영등곶의 경우를 보조적으로 검토했다.

본고에서 다뤄진 동김녕마을 잠수곶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수곶은 그 자체로 혼자 도드라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을 내 개별적 의례와 공동체의 의례라는 바탕위에서 싹 트고 유지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제나 당제 등의 기존 신앙의례는 잠수곶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다. 잠수는 잠수이기 이전에 한 가정과 마을의 구성원이므로 잠수곶을 들여다보는 데에 마을의 신앙의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둘째, 잠수곶의 기본요소로 제일, 장소, 심방, 단골, 제물마련, 금기사항의 항목을 정하고 분석을 우선적으로 시도했다. 그 결과 동김녕 잠수곶의 제일은 성세깃당의 당신본풀이에 근거한 것이며, 물질할 수 있는 시기인 물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잠수곶이 그냥 막연한 무속의례가 아니라 생업활동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표지가 되는 것이다. 장소에 대해서는 성세깃당과 별도로 자신들의 생업 공간인 바다에 곶당을 마련해서 곶을 하고 있었으며, 곶당의 이전문제도 잠수곶의 변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또한 매인심방의 존재는 잠수곶의 진행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고, 잠수곶을 담당하는 심방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단골집단의 선택과정과 기준이 있었다. 그밖에 제물마련 과정이나 금기사항도 역시 잠수곶의 총체적인 면을 짚어보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동김녕 잠수곶을 살펴보니 있어서 사용된 기본사항들은 다른 마을의 잠수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잠수곶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잠수곶의 제차 구성과 그 제차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크게 해상무사고 기원과 해산물의 풍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이 있음을 밝혔다. 실제 어느 제차의 어떤 부분이 잠수곶에서 잠수들과 공유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제차의 분류와 나열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잠수곶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동김녕 잠수곶의 내용과 다른 마을의 잠수곶의 내용에 특별한 차이점은 없으므로, 동김녕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제차들의 3가지 역할은 다른 지역의 잠수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잠수굿이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잠수의 존재, 잠수회의 어업생산력 유지, 제일의 고정, 매인심방의 존재라는 4가지의 분류기준을 가지고 설명했다. 이 4가지의 기반이 모두 골고루 갖춰진다면 잠수굿의 전승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한 부분이 없거나 약화되었다면 굿 자체가 사라질 수 있거나 아니면 약간 불균형한 형태의 잠수굿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 분석은 동김녕의 경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잠수굿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간혹 마을에 따라서 변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4가지의 전승기반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함으로써 나름대로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동김녕 잠수굿의 전승과정과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다. 일제시대와 근대화·산업화 시기의 미신타파운동 등 부정적인 담론이 횡행하던 시대나 '4·3사건'이라는 역사의 상처 속에서 잠수굿은 자신의 몸집을 한없이 낮춤으로써 사라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시기의 잠수굿을 유지한 원동력은 잠수들의 해상무사고 기원이었다. 반면에 1990년대 접어들어 불기 시작한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스펙트럼 속에서도 잠수굿을 가장 제주적인 문화유산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그런데 그 움직임들은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발굴해내자는 의미도 다분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콘텐츠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업적 의미라는 또 다른 통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잠수들은 잠수굿의 순결함과 진지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굿의 부정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문화적 대응을 이루어내어야만 했다.

지난 시절 무속의례에 대한 탄압은 단지 동김녕마을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마을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거리낌없이 굿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미 현대적으로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수굿의 존재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비단 잠수굿만이 아니라 무속의례가 전승이 잘 되는 일부 마을들은 타인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동김녕의 잠수굿을 중심으로 제주도 잠수굿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주도 잠수굿의 의미와 형태, 의의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제주도 잠수굿의 정확한 발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잠수의 물질이 가지는 역사가 오랜 만큼 잠수굿 역시 그 연원이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각종

문헌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지난날 제주에서는 무속의례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수들의 존재와 더불어 개인적인 형태이든 집단적인 형태이든 잠수들을 위한 의례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둘째, 잠수굿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등굿의 경우를 부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잠수굿이나 영등굿이나 기본적으로 기원하려는 내용과 실제 굿의 진행 등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여러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영등굿은 제주도의 전반적인 지역에서 농업과 어업 등 생업 일반을 포함하는 풍농·풍어의례였던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해촌마을의 의례로 축소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보았다. 반면에 잠수굿은 해촌마을에서 잠수라는 특정한 생업집단을 위한 의례였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았다.

셋째, 제주도 잠수굿이 가지는 의의로 생업활동과 신앙의례의 유기적 연관성, 제주도 공동체문화 전승의 중심역할, 마을굿으로 기능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잠수굿은 잠수라는 특정한 생업(직업)집단이 굿을 통해 생업활동의 극한적인 위험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하는 종교적 장치이다. 마을의 당제가 혈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단골의 설정을 기본으로 하는 점에 비해, 잠수굿의 단골인 잠수회는 혈연과 지연을 떠나 물질이라는 하나의 생업활동만 공유하면 되는 것으로 현재 잠수굿 만큼 생업활동과 신앙의례의 연관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드물다.

또한 이렇게 끈질긴 전승력을 가지고 이어지다 보니 제주도 공동체문화 전승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유형·무형의 문화유산들에 비해 보다 집단적이고 보다 강력한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잠수굿의 특성은 결국 현재에 이르러 마을굿으로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초에는 잠수들만의 의례에서 출발했을지 모르나 마을 내에서 점점 공동체의 의례가 사라져가는 지금 잠수굿이 가지는 외연은 생각 외로 크다.

2. 과제와 전망

한편 본고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잠수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전승문화도 언젠가는 역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잠수와 그들의 전승문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내고 보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문화와 문화를 창출해 낸 주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일회적이고 표피적이며, 잠수와 그들의 문화를 대상화·타자화 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잠수의 가치를 살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보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이후에도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서 잠수들의 전승문화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 하나 본고에서는 잠수곳과 영등곳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 영등곳도 잠수들을 위한 의례이며, 실상 잠수곳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간단히나마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제주도 잠수곳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논의를 위해 영등곳의 경우를 보조적으로 살피면서 논지를 전개했지만, 여전히 시론적(試論的) 입장의 문제제기라는 점은 남는다. 이후에 영등곳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문헌조사를 실시해 다시 한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자료 >

- 「新增東國輿地勝覽」
洪錫謨 著·이석호 譯註, “東國歲時記”, 「朝鮮歲時記」, 동문선, 1991
제주도 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신일인쇄사, 197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濟州의 옛 地圖」, 1996
金斗奉 著, 「濟州島實記」,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김혜우·고시홍 엮음, 「高麗史耽羅錄」, 제주문화, 1994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 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제주도 무속」,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박수양, 「김녕리 향토지」, 명성종합인쇄, 1986
북제주군 구좌읍, 「구좌읍지」, 북제주군 구좌읍, 2000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2002
북제주군·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북제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 북제주군·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I, 북제주군·제주대학교 박물관, 1998
서울대학교 제주학우회, 「제주신당의 내용 및 현황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제주학우회, 1973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김녕리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9
제주도, 「제주의 민속」 V. 제주도, 1998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단행본 >

-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 고광민, 「제주도 포구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_____,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1
- 권삼문,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2001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
- 김선풍 外,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집문당, 1996
- 김수남 外,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83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 김창민,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집문당, 1995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5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11>,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 박광순, 「한국어업경제사연구 : 어업공동체론」, 유풍출판사, 1981
- 비교민속학회, 「민속과 종교」, 비교민속학회, 2002
- 실천민속학회 편, 「민속문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집문당, 2001
-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유동식,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 이능화 著·이재곤 譯, 「조선무속고」, 동문선, 2002
-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일조각, 2004
-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9
- 임재해, 「민속문화를 읽는 열쇠말」, 민속원, 2004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_____, 「한국신화의 민속학적연구」, 집문당, 1995
- _____,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98
- 장철수,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 전경수 編, 「한국 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집문당, 1992
- 제주도, 「제주여성문화」, 제주도, 2001
- _____,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 워크숍 자료모음」,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 제주사료탐독회,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 조성윤·하순애·이상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2
- 조홍윤, 「한국 무의 세계」, 민족사 1997
- 좌혜경,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 주강현, 「한국민속학연구방법론 비판」, 민속원, 1999
- 진성기, 「제주도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 _____, 「제주도 무속논고」, 제주민속연구소, 1990
-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 최인학 外,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2002
- 최인학, 「문화인류학」, 새문사, 1986
- 최인학·최래옥·임재해 編,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 秋葉隆 著·심우성 譯, 「조선민속지」, 동문선, 1993
- _____, 著·최길성 譯, 「조선 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 秋葉隆·赤松智城 著, 심우성 譯,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 한규설, 「공동어장과 어촌 : 그 제도와 생산을 중심으로」, 참한출판사, 1993
- 한림화·김수남,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한길사, 1987
- 허남춘,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 1999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 _____,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 황루시, 「우리 무당이야기」, 풀빛, 2000
- A. van Gennep 著·전경수 譯,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
- B. K. Malinowski 著·서영대 譯, 「원시신화론」, 민속원, 2001
- C. Geertz 著·문옥표 譯,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 E. Durkheim 著·노치준, 민혜숙 譯,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1992
- E. Hobsbawm·T. Ranger 編, 최석영 譯,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 M. Eliade 著·이윤기 譯, 「샤머니즘 : 고대적 점신술」, 까치, 2001
- _____, 著·이은봉 譯, 「성과 속」, 한길사, 2003
- _____, 著·심재중 譯, 「영원회귀의 신화 : 원형과 반복」, 이학사, 2003
- _____, 著·이은봉 譯, 「종교형태론」, 한길사, 2002
- M. Harris 著·박종열 譯,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1993

- R. M. Dorson 編著 · 나경수 譯, 「민속조사방법론」,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S. Freud 著 · 김현조 譯, 「토템과 금기」, 경진사, 1999

< 논문 >

- 강경희, “제주도 어촌의 근대화와 종교변화 : 가파리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4집, 제주학회, 1997
- 강만익, “우도 어촌의 성립과 변화과정”, 「제주도연구」 10집, 제주도연구회, 1993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2
- 고광민, “행정권과 신앙권”, 「제주도연구」 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1998
- 김동진, “『三郡戶口家間摺冊』의 內容과 자료적 가치”, 「濟州島史研究」 제7집, 제주도사연구회, 1998
- _____,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구조와 지배체제”, 「濟州島史研究」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 김두희 · 김영돈, “해녀에 대한 잠수지역의 문제에 대한 조사”, 「논문집」 제14편, 제주대학교, 1982
- 김성례, “무속전통의 담론분석”, 「한국문화인류학」 22집, 1990
- _____, “원혼의 통곡 :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제주무속”, 「제주도연구」 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_____,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구술생애사의 서사분석”, 「한국여성학」, 제7집, 1991
- 김순희,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서의 제주잠수회”,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자료집」, 세계심학회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
- 김영돈 外,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 김영돈, “제주 해녀의 민속학적 연구”, 「제주도연구」 3집, 제주도연구회, 1986
-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탐라문화」 10호, 1990
- 김창민, “제주도의 역사와 당제”, 「한국문화인류학」 2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1
- 로저 L 자넬리 · 임돈희, “전통의 새로운 개념 : 전통의 구성”, 「비교민속학」 11집, 비교민속학회, 1994
- 문무병,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 원, 1984
- _____, “제주도 당신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993
- _____,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탐라문화」 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 _____, “해녀의 신화와 제주인의 상상력”,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자료집」, 세계섬학회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
- 박양생, “한국해녀의 생리학적 특성 : 잠수양상 및 에너지대사에 관하여”, 「제주도연구」 2집, 제주도연구회, 1985
- 박혜준,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 박호원, “한국공동체신앙의 역사적 연구 : 동제의 형성 및 전승과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7
-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6
- 서경림, “제주도 어촌에서의 잠녀의 역할”,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자료집」, 세계섬학회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
- 송경언,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 : 문제와 대응전략”, 「제주도연구」 22집, 제주학회, 2002
- 송석하, “風神考”, 「韓國民俗考」, 일신사, 1963
- 송인정, “제주도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에 관한 연구 : 동촌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교원대학교 대학원, 1998
-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1998
- 유철인, “물길하는 것도 머리싸움 :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제31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 _____, “일상생활과 도서성 : 제주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1집, 제주도연구회, 1984
- _____, “제주사람들의 사회와 섬에 대한 관념 : 인구이동과 제주사회”, 「제주도연구」 9집, 제주도연구회, 1992
- _____, “제주해녀의 몸과 기술에 대한 문화적 접근”, 「민속학 국제학술회의(3회) 요지집」, 민속학회, 1999
- 이기욱, “환경과 제주문화 : 제주문화의 생태인류학적 연구서설”, 「탐라문화」 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이대화, “제주도 포제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8
- 이문웅, “재일 제주인 사회에서의 무속”, 「제주도연구」 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_____, “제주도의 당제에 나타난 혈연성과 지연성”, 「한국의 사회와 역사」, 최재석교수 정년퇴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1991
- 이부영, “제주 무속의 몇 가지 특징과 분석심리학적 시고”, 「제주도연구」 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 이완중, “제주도 마을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995
- 이창기,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 도전·적응·초월의 메카니즘”, 「제주도연구」 9집, 제주도연구회, 1992
- 정루시아, “제주도 당신앙 연구 : 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9
-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의례”, 「탐라문화」 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 _____, “산업사회의 무당”, 「전통과 현대」 6호, 전통과 현대사, 1998 가을호
- _____, “정치와 종교 : 조선시대의 유교의례”, 「사회와 역사」 53호, 한국사회사학회, 1998
-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조혜정, “제주도 해녀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3
- 주강현, “서해안조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 : 어업생산력과 임경업장군 신격화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창간호, 역사민속학회, 1991
- 최길성, “미신탈파에 대한 일고찰”, 「한국민속학」 7, 민속학회, 1974
- _____, “제주도 심방에 대하여”, 「제주도연구」 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秋葉隆, “巨濟島の立竿民俗”, 「민속의 연구(I)」, 정음사, 1985
- 한림화, “제주 잠수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역동성”,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자료집」, 세계 심학회·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
- 한창훈, “제주도 잠수(潛嫂)들의 생활과 민요”, 「탐라문화」 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 현용준, “제주도 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 _____, “제주도 민속문화의 보존과 개발방향”, 「제주도연구」 2집, 제주도연구회, 1985
- _____, “제주도 신화와 의례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탐라문화」 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_____, “제주도 어촌마을에 관한 연구-1”, 「논문집」 제2편, 제주대학교, 1970
- _____,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Ⅱ)”, 「국문학보」 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0
- _____, “제주도민의 신앙체계와 무속”, 「제주도연구」 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_____,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 민속학적 측면”, 「탐라문화」 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4
- 현혜경, “제주농촌마을의 기제사의례 변화”, 「제주도연구」 16집, 제주학회, 1999
- 히라노 히데키, “일본과 한국의 나잠업자의 현재적 의미”,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자료집」, 세계섬학회·평화연구소, 2002